경제정책 하면

나라경제

3
2008 March
nara.kdi.re.kr

만남 **배철호**
국회 예산정책처장

사물을 배운다
인스턴트 라면

특별기획
상상력이 돈이다!

MBnomics start!

ISSN 1227-8033



지폐를 줄였습니다
소비도 줄여야 합니다

건강한 소비가 건강한 경제를 만듭니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14mm와 8mm 작아진 오천원권. 당신의 지갑을 더 많은 돈으로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작아진 지폐 만큼 우리도 이제 소비를 조금 줄여야 할 때 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봄은 춘천에서 온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고 들으면 문득 어머니가 생각나곤 하지. 음력설만 지나면 동치미에는 군내가 난다던 말씀이며, 정승 댁 개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도 정승이 죽으면 가랑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던 말씀, 요즘 같은 정권 교체기에 더욱 생각나곤 하지. 내 인식 속의 세상 인심은 아직도 겨울이고 유난히 추위 타는 나는 자연히 따뜻한 봄을 기다리지.

언제부턴가 봄은 어느 남촌이 아니라 서울보다 춥다는 춘천에서 온다고 생각해 왔다. 어찌 봄만이랴. 생각과 현실은 늘 어긋나게 마련이고 그 어긋나는 지점에서 모든 창조는 태동된다. 올 봄 역시 춘천에서 올 것 같다. 춘천은 가을도 봄이고 사철이 항상 봄일 것만 같다. 고향도 아니고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춘천에는 항상 봄철만 있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다. 그런 편견 이상의 엉뚱함과 허황됨에서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라는 시 한 편이 태어났다.

"겨울에는 불광동이 여름에는 냉천동이/ 무릉도원은 도화동에 있을 것 같고/ 문경에 가면 괜히 기쁜 소식이 기다릴 듯/ 추풍령은 항시 서릿발 낙엽의 늦가을일 것만 같아

春川이 그렇지/ 까닭도 연고도 없이 가고 싶지/ 얼음 풀리는 냇가에 새파란 움 미나리 발 돋음 할 거라/ 녹다만 눈 응달 발치에 두고/ 마른 억새 깨 벗은 나무 가지 사이사이로 / 피고 있는 진달래꽃 닮은 누가 있을 거라/ 왜 느닷없이 불쑥 불쑥 춘천을 가고 싶지/ 가기만 하면 되느니/ 가서, 할 일은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저 다만 새 봄 한 아름을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몽롱한 안개 피듯 언제나 춘천 춘천이면서도/ 정말 가 본 적은 없지 / 엄두가 안 나지, 두렵지, 겁나기도 하지

봄은 산 너머 남촌 아닌 춘천에서 오지/ 여름날 산마루의 소낙비는 이슬비로 몸 바꾸고/단풍든 산허리에 아지랑대는 봄의 실루엣/ 쌓이는 낙엽 밑에는 봄나물 꽃다지 노랑웃음도 쌓이지/ 단풍도 꽃이 되지, 귀도 눈이 되지/ 춘천, 춘천, 春川이니까"

누가 왜 하필 춘천을 춘천이라고 이름지었나. 얼음 풀리는 봄 냇물이 흐르고 있을까. 봄에 춘천에 갈까? 가을에 찾아가 가을도 봄임을 확인하는 게 나을까?

나는 이렇듯 허황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겉돌아 왔다. 스스로를 격리시켜 왔다. 그러면서 어쭙잖은 詩나부랭이나 끼적거려 왔다. 동치미 국물을 버리면서 입안에 퍼지는 봄나물의 향기. 과학도 문학도 예술도 모름지기 엉뚱한 발상을 필요로 한다고? 춘천엔 아예 가지 말자. 더욱 엉뚱해지고 말자.





유안진 시인. 서울대 명예교수.
1965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시단에 등단. 첫 시집 〈달하〉를 비롯하여 〈봄비 한 주머니〉, 〈다보탑을 줍다〉 등 12권의 시집과 〈지란지교를 꿈꾸며〉 등 다수의 수필집과 속요집 〈딸아딸아 연지딸아〉 등이 있다. 정지용문학상, 소월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Contents



MB nomics start!

p14
특집
이념과 규제보다 실용과 자율 중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통한 분배 개선

16 7% 성장능력 갖춘 경제로
세계최고 기업환경 조성, 신성장동력 확충해야
장수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18 '활기찬 시장 경제' 시동 건다
친기업 · 친시장 정책으로 투자 활성화
김태준 동덕여대 경제경영학부 교수

20 규제 줄이되 법집행 엄정하게
창업절차 간소화, 법인세는 경쟁국 수준으로 내려야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22 금융은 백댄서 아닌 신성장 주역
중소기업 자금 지원도 강화해야
채희율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24 학교 자율과 다양성을 살려라
대입 자율화하고 초 · 중등 교육과정과 인사에 관여 말아야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26 환경을 살리는 대운하
도로운송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1/5에 그쳐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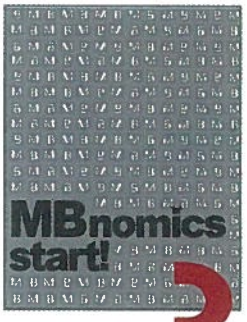
28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하라
잠재성장률 높이고 신성장산업 중심 산업구조 개편해야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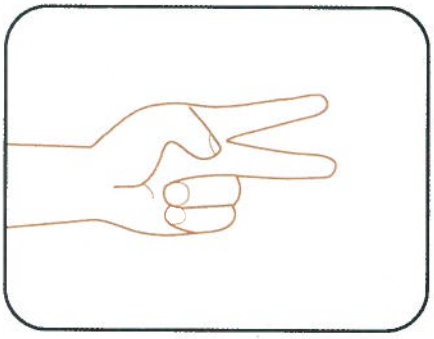
30 보수와 실용의 조화를
레이거노믹스와 일맥상통… 자유시장 작동 방해 요인 제거해야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10 [만남] 배철호 국회예산정책처장
대담 :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우리는 '나라살림 지킴이' "허술한 예산안 꿈도 못 꾸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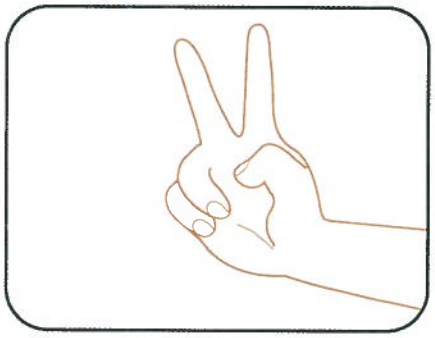


80
좌담
리스크 범위 내에서 신중한 활용 모색해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채선병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기획팀장
오석태 한국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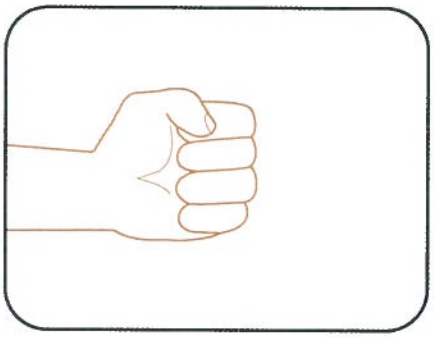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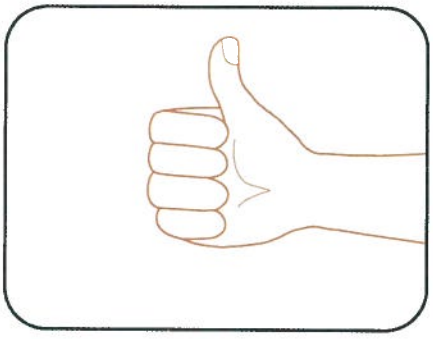
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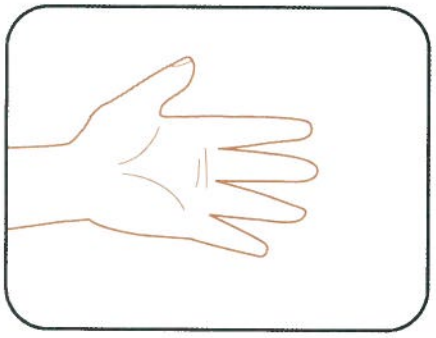
기쁨



바위



인정



보



화해

조금만 바꾸면 ~

살다 보면 아무일도 아닌데 상대방으로 인해 상처 받고 얼굴 붉히는 일 많으시죠?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표정과 말투를 조금만 바꿔 보세요! 사회 질서는 당신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Contents



42
사물을 배운다 인스턴트 라면
라면 없이 살 수 있나요?

3 [천천히 걷기]
봄은 춘천에서 온다
유안진 시인

8 [Reader's Letter]

32 [전국 고교생 경제 한마당 사상식]
1학년이 선배들 제치고 대상 움켜 쥐어

34 [권태균의 오지기행]
문경 가은읍 수예리

38 [경제뉴스 행간읽기]
'경기호황' 이라는 이름의 착시
이지훈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

40 [그림 속 경제]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
갑부 예술가 속출!
이미란 아트블루 국제부 전시기획실장

41 [추천! 이 달의 경제서적]
서연이와 한준이의
재미나고 신나는 경제여행 外

58 [김두얼 박사의 경제사이야기]
왕으로 살기,
양반보다 힘들다?
김두얼 KDI 연구위원

60 [시골의사 박경철의 부자되기]
'파생상품이 위기에 빠진 날'
박경철 경제 칼럼니스트

84 [세계경제현장]
아프리카에 부는
지식재산권 바람
박성준 주제네바대표부
과학산업기술관

86 [해외시장 리포트]
교토의정서 발효 앞두고
바이오 연료 생산 늘려
정종태 KOTRA 시카고무역관장

90 [김찬호의 문화견문록]
팔순 아버지의 토크쇼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92 [이동진과 함께 보는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추격자'
이동진 영화평론가

94 [아름다운 그 곳]
서울 서교동 KT&G 상상마당
이정미 나라경제 기자

97 [건강하게 삽시다]
위장이 나빠지면
이도 아파요
김철규 하늘꽃한의원장

98 [시평]
이명박 대통령님께
황영진 KDI 연구위원



p62

특별기획
상상력이 돈이다!

63 스토리텔링에 주목하라
최혜실 경희대 국문과 교수

66 명랑 퓨전 사극? 영상의 상상력이 진화한다
김헌식 문화평론가

68 소설 밖에서 소설을 생각한다
이기호 소설가

70 잘 놀아야 잘 만든다
박상우 게임평론가

72 뮤지컬 신화 계속 되려면…
원종원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74 만화가 돌아왔다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 교수

76 테마파크, 꿈을 현실화시켜라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78 "뭘 만들지?"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오세요
채수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기획혁신팀 대리

54 [요즘 뭘 하십니까]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상지대 총장
"改革은 가죽을 생으로 벗기는 거지"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회용품의 사용을 쉬는 것-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만은 뿌듯해질 거예요.
일회용품 줄이기 – 말보다 실천이 먼저 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Reader's Letter

사공일 위원장 인터뷰 기사 돋보였습니다

애독자 입니다. 이번호 『나라경제』의 모든 기사들이 훌륭하지만 특히 사공일 위원장 인터뷰는 정말 돋보인 기사였어요. 조 · 중 · 동 등은 물론 공중파에서 인터뷰를 하지 못했던 사공일 위원장의 인터뷰를 성사시킨 것은 『나라경제』만의 파워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기대할께요.

양준혁_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지구온난화 특집이 학교 교육에 좋은 교재가 될듯

지난해 정년 퇴직한 교육자 입니다. 지난 1월 우연히 『나라경제』를 접하고 재미 있는 기사가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호에 지구온난화 특집이 있더군요. 반가운 느낌이 앞섰습니다. 최근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학교 교재로 사용할 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라경제』의 기사가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구헌_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안경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안경을 수집하는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씩 모으다 보니 어느덧 2천여 개에 이르렀습니다. 오래 된 안경부터 최근 안경의 흐름까지 일목요연하게 소개된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스개 같은 얘기지만 '한국안경신문' 이란 매체가 있다는 사실도 재미 있었습니다. 안경신문을 구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신상철_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영화 평도 실리네요?

이동진의 영화칼럼을 『나라경제』에서 볼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경제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나라경제』를 꼼꼼히 살펴볼 수 밖에 없는데, 사실 『나라경제』 편집팀에게는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딱딱한 내용이 많아 지루했거든요. 이동진 칼럼 같은 기사들이 있어 다른 지면도 눈여겨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경제 기사도 좋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기사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김새롬_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재테크 정보는 구할 수 없나요?

30대 후반의 독자 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전세값을 올려,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이사갈 집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나라경제』에서는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나요? 부동산이 아니면 주식 정보라도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박경철 칼럼은 원칙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_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경제정책 하면

나라경제

2008. 3 [제19권 3호 통권 208호]

발행 |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 현정택 KDI 원장
편집인 | 전홍택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강호인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편집주간 | 김동률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홍보실장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차영환 정책상황팀장
외교통상부 최연호 통상홍보기획관
과학기술부 김주한 종합기획과장
농림부 김남훈 행정법무팀장
산업자원부 이준태 법무행정팀장
정보통신부 김준상 혁신기획관
보건복지부 하 성 재정기획관
환경부 최홍진 정책총괄과장
노동부 시민석 재정기획팀장
건설교통부 황성연 기획총괄팀장
해양수산부 류재형 정책기획팀장
기획예산처 박춘섭 중기재정계획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치걸 경영정책팀장
금융감독위원회 도규상 기획과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선민 총괄조정팀장
행정자치부 이희봉 재정정책팀장

편집간사 | 유수영 재정경제부 정책상황팀

편집장 | 김서령 KDI 경제정보센터
취재 · 편집기자 | 공은주, 이정미, 이윤우, 길준범

배포 | 김경숙, 김정철

발행처 | KDI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02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화 | 02-958-4656, 4654
팩스 | 02-3295-0744
홈페이지 | http://nara.kdi.re.kr
e-mail | nara@kdi.re.kr

발행일 | 2008년 2월 29일(매월 말일 발행)
제19권 3호 (통권 208호)
등록일 |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기사 문의 | 02-958-4667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2-958-4312
구독료 |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 | 중앙일보 시사미디어(주)
인쇄 | (주)삼화인쇄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용을 계산했다. 2004년 설립 당시엔 6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21건을 추계해 처리 업무가 크게 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자부한다. 또 하나 큰일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경제와 재정 관련한 조사 · 분석 업무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돕는 것이다.

김서령 :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 이를테면 예산정책처가 조언해서 만들어낸 정책 이름이 뭔가. 이곳에서 국가재정을 절감한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한강과 서강대교가 한 눈에 보이는 이렇게 멋진 집인데 풍경보다 더 멋진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좋겠다.

배철호 : 올해 예결위 예산 편성할 때 국가채무 한도액을 1조1천억 정도로 줄였다.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다. 예비비 집행도 적절치 않다 해서 1,500억이나 줄였다. 기초생활보장 법정지출 예산은 당초엔 액수를 적게 편성해놓고 나중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식으로 적절하지 않게 운영해왔는데 그런 편성 방식을 고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건강보험재정은 25조원이나 되는 거액이면서 국회 심의가 안 되고 있었다. 복지부 입장에선 일단 기금화하면 구속을 받게 되니까 안 하려 했던 건데 이를 기금화하고 마땅히 국회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부에 자꾸 싫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공무원 증원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중복된 위원회가 많다는 것도 따지지 않을 수 없었다.

김서령 : 듣고 보니 예산정책처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림을 얼마나 야물게 사는지를 점검하는 시어머니인 듯하다.

배철호 : 그렇다. 대통령 중심제 하의 개발연대엔 행정부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을 대변하는 입



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다. 과거 행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면 좀 더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수시로 한다. 송도, 부산 등 각 경제자유구역에 가서 현지 공무원과 수혜자들을 상대로 무엇이 문제냐고 묻는다. 현지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행정부 쪽엔 하기 어려운 얘기를 우리에겐 솔직하게 해준다.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장단기 경제전망을 통해 세입을 추계하는 것도 우리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수입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거시경제지표를 가장 정확하게 전망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김서령 : 조직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 여기 모인 인재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배철호 : 예산분석실, 경제분석실, 사업평가국과 지원부서인 기획관리단 4개의 실 · 국이 있다. 구성을 보면 하는 일도 대강 파악되지 않느냐.(웃음) 직원 수는 96명이다. 반 이상이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모셔온 박사, 회계사들인데 외부 전문가들은 문제를 더 분석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처 직원들의 모토는 '전문성', '중립성', '신뢰성', '독립성' 이다. 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만드는 전문 능력이 우선이고 다음이 여당과 야당, 어느 쪽에도 치우쳐선 안 된다는 게 중립성이다. 당연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게 우선이고 국회 내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

김서령 : 예산정책처가 분석해 낸 연구 보고서가 국회의원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다 허사가 돼 버리는 거 아닌가?

배철호 : 우린 철저하게 국회의원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이다. 여기서 만들어진 분석보고서를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활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의정단상에서 행정부에 대해 '이건 잘못돼 있으니까 고쳐라, 예산정책처에서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고쳐라' 라고 말해 주셔야 우리의 존재 의의가 생긴다. 사실 처음엔 별 관심 없다가 최근에 우리 보고서가 전문적이고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니까 의원들이 큰 관심을 갖는다.

김서령 : 국회의원들이 직접 예산정책처에 정책조사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그건 얼마나 되나?

배철호 : 설립 이후 지금까지 1,300여 건에 이른다. 의원들 중에도 특별히 우리 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이 계시다. 최근엔 의원들이 요구하는 조사 분석 의뢰가 전체 업무량의 절반쯤 된다. 의정지원 활동은 특히 이번 17대 국회에서 크게 늘었다. 종전에는 행정부가 법안 발의의 70~80%를 담당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의원 발의가 훨씬 많아졌고 그러다보니 우리 업무도 점점 늘어난다.

김서령 : 신생 조직을 이만큼 끌고 오기까지 힘든 일이 많았을 줄 안다. 처장으로서의 고민과 고충이 있었다면?

배철호 : 초대처장 사건(편집자 주: 최광 초대 처장이 당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반(反)시장주의적'이라고 비판해 면직된 일을 말한다)이 있어 조직 분위기가 산만한 상태여서 그걸 추스르느라 첨엔 애 좀 먹었다. 또 하나 내가 행정부 소속으로 오래 일했으니까 혹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야당 쪽의 오해와 의심을 불식시키는 것도 어려웠다. 작년에 새집을 지어 우리 처가 국회 의정관 안으로 이사한 것도 큰일이었다.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늘어 국가채무 한도액을 1조1천억으로 줄였다. 예비비 집행도 1,500억이나 줄였다.

김서령 : 이제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예산정책처의 일도 달라지나? 업무량이 폭주할 텐데 인력은 충분한가?

배철호 : 새로운 의원들이 오셨을 때 예산정책처를 오리엔테이션 하기 위해 홍보책자를 만들었다. 의원들이 알기 편하게 〈국가 예산〉이라는 책자도 4월까지 발행할 계획이다. 인력은 계약직이 많으니 필요할 때 그 분야 전문가를 불러올 수 있어 합리적이다.

김서령 : 국민세금이 잘못 쓰이는 사례가 생긴다면 예산정책처도 책임

에서 자유롭지 못하겠다. 그걸 미리 잘 감시, 조율하는 것도 처장의 큰 역할일 텐데... 숭례문 화재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나는 그를 화재 사흘 후에 만났다) 이번 일은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

배철호 : 숭례문이 불타니 당장 세금을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 문화재 화재 예방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에서 미리 신경 썼어야 했다. 우리도 국회의 일부인데 당연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안 그래도 지난해와 올해 재해 대책 예산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좀더 많이 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피해 난 다음에 복구예산을 주는 사후약방문은 아무 소용없으니 하천 치수, 화재 같은 재해 대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령 : 배 처장은 경제기획원 예산국 사무관을 시작으로 기획원 예산총괄과장, 재정경제원 총무과장,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등 행정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만 30여년 해온 사람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예산통인데 막상 입법부에 들어와 입장이 바뀌고 보니 어떤가. 예산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나? 보람은 어느 쪽이 더 큰가?

배철호 : 예산 편성과 집행, 두 가지를 다 해본 후 국회에 와서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 보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는 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양쪽에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흔치않은 경험이다. 어느 게 낫다고 말할 수 있겠나. 다 좋다.(웃음) 다만 우리 처 직원들에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주문하곤 한다. 바둑도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에게 판이 더 잘 보이지 않나. 깊이 알아보고 나서 그리고도 문제가 있을 때 흠을 잡아야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지적해선 안 된다는 얘기를 늘 한다.

김서령 : 30년 전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당시와 지금은 우리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졌다. 국가예산에 직접 관여한 사람의 감회가 남다를 것같다. 잊지 못할 기억이 있나?

배철호 : 처음 공무원 시작하던 75년엔 국가 총예산이 몇 천억 규모였다. 1조를 돌파했다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지금은 250조나 된다.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80년에 예산정책과 담당 사무관일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해는 전년도 예산을 0점 기준으로 놓고 당년도 예산을 전혀 늘리지 않았다. 그걸동결예산이라 부르는데 동결예산을 편성한 건 그 이후엔 없었다. 그 해 흑자가 나 국가부채를 상당히 갚았다.

김서령 : 제일 인상적인 게 그 동결예산이었나. 가장 힘든 시절은 왜 이야기 안하나?(웃음) 0점 기준 예산이란 건 도대체 뭐냐?

배철호 : 그렇다. 사무관 6년차에 그 일을 했다. 그때 한이헌, 강봉균씨와 함께 일했다. 문희갑씨가 예산실장이었는데 그 아래 실무자로 밤 새워가며 일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두 개 부서를 합칠 무렵 재경원 총무과장으로 갔을 때였다. 두 부처를 융화하기 위해 인사교류도 많이 하고 각종 모임, 단합대회도 자주 했다. 이번에 또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합쳐지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그땐 기획원뿐이었지만 이번 같은 대대적 개편은 우리 정부 생기고 처음 아니냐.

선배로서 부탁하고 싶은 건 조직 융합이 잘 되도록 서로 겉돌지 말고 책임질 일을 타 부처에 떠넘기지 말라는 거다. 흡수하는 곳은 흡수된 부서를 존중해주고 공룡부서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거다.

'0점 기준 예산' 이란 예산을 관례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꼭 필요한지를 다시 따진 후에 새롭게 편성하는 방식이다. 실무자들이 예산을 0점 기준에 놓고 한 번쯤 동결예산도 편성해 보겠다는 각오는 지금도 필요하다고 본다. 매해 경직성 예산이 80%이고 나머지 20%만이 자유롭게 편성된다. 그걸 획기적으로 0점 기준으로 놓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다.

김서령 : 변양균 실장과 가까운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변양균 실장 이름이 거론될 때 늘 배철호 처장 이름이 같이 나오더라.

배철호 : 기획원 시절부터 함께 일했으니 20년을 지근거리에 있었다. 다감하고 소신있고 재능있는 사람이었다.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김서령 : 좌우명이 있나?

배철호 : 저 액자에 쓰여 있듯 무사증연 유사감연(無事證然 有事敢然)이다. 일이 없을 때는 맑은 물처럼 고요하고 큰일이 닥치거든 과감하게 실행하라는 뜻이다. 저 말에 맞춰 살려고 노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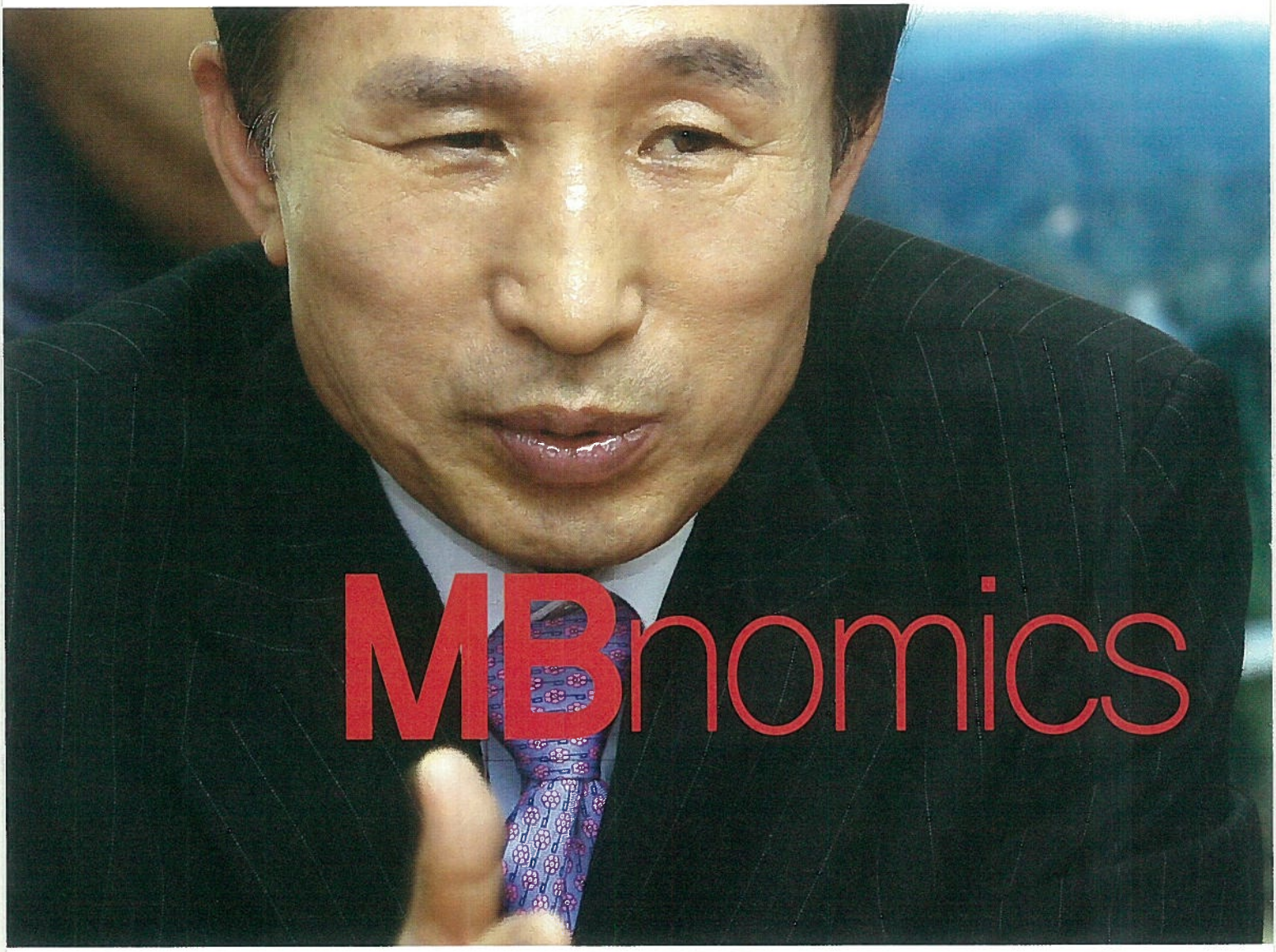
김서령 : 가족은?

배철호 : 집사람은 전업주부이고 아들만 둘 있다. 한 녀석은 작년에 치웠다.

김서령 : 딸을 치웠다고 하지 아들도 치운다고 하는 건 처음 듣는다.

배철호 : 요즘은 정말 아들 딸 구별이 없더라. 아들도 치우는 거 맞다.(웃음)

사진 **강욱현**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기자 정리 **길준범** 나라경제 기자


MBnomics



start!

이념과 규제보다 실용과 자율 중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통한 분배 개선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요체인 'MB노믹스'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결승점은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 일류국가 건설이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다. 기업 · 금융 · 교육 등 사회 전분야에 걸친 MB노믹스를 집중 분석 한다.

편집자주

7% 성장능력 갖춘 경제로

세계최고 기업환경 조성, 신성장동력 확충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관련 사상과 정책의 총합을 소위 'MB노믹스'라 칭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소명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비전은 선진 일류국가의 건설, 즉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철학은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라 할 수 있으며 경제 목표는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MB노믹스의 7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①이념과 규제보다는 시장을 중시한다. ②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논리를 우선한다. ③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의 개선을 도모한다. ④경쟁을 보장하되 탈락자와 사회적 약자는 보호한다. ⑤가격 문제는 수요통제보다는 공급을 중시해 해결한다. ⑥사회와 문화 전반에 법의 지배가 우선하게 한다. ⑦폐쇄보다는 개방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추구한다 등이다. 이상의 7대 원칙은 개방적 시장경제주의(Global Market Economy)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규모와 수준의 경제가 7% 성장체질을 갖추도록 하려면 모든 면에서 혁신을 해 최대의 효율을 내야 가능하다.

먼저, 침체된 경제의 회복이 필요하다. 당장의 현실은 매우 냉혹하고 어려운 여건으로 가득 차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로 인한 미국경제의 둔화, 연이은 세계경제의 침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더욱이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전 세계적인 금융경색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계경기의 변화와 기업들의 투자 동향,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외화유동성과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금리와 환율의 안정적 운용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과 감세조치 등을 조기에 시행해 민간투자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의 경직적인 조항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세계잉여금을 적절히 활용해 재정이 최소한의 성장촉진적인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건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기업환경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 최고 기업환경은 다음의 네가지 사항을 이뤄야만 실현될 수 있다.

첫째 출자총액한도제도 등 경쟁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도 경쟁선진국의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규제환경은 세계 175개국 중 116위로 열악하다.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기업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최대의 투자를 하고 성장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세율을 최저화해야 한다. 유럽 각국에서 벌어진 법인세 인하경쟁은 이제 인근의 동아시아 국가간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만은 2007년에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했다. 경쟁국보다 높은 세율은 과감하게 인하해야 한다.

셋째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금융의 규제와 감독제도를 개편하고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 등 지식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현재의 20% 수준에서 선진국처럼 30% 이상 수준이 되도록 높여야 한다.

넷째 노사관계의 법치화를 이뤄야 한다. 지금처럼 노사관계에서 법과 질서가 무시돼서는 진정한 노사평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더 이상의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불법 노사분규를 예방해 성장동력의 손실을 예방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GDP의 5%까지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 · 의료 · 교육 · 관광 ·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제도를 혁파하고 동시에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공공구매를 확충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 경제는 점차적으로 성장력이 확충돼 2012년에는 7%의 성장능력을 갖는 경제체제로 바뀔 것이다.

장수만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지구를 들어올릴 그들의 힘은 무엇인가?

「문제아」, 「딴따라」라 질시하는 어른들과 사회의 편견속에서
순수한 노력과 열정만으로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대한민국 B-BOY
이제 그들만의 문화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화로 만들어 갑시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 만 남

배철호 국회예산정책처장

대담 :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때 : 2008년 2월 13일 낮 3시

곳 : 배철호 처장 집무실

우리는 '나라살림 지킴이' "허술한 예산안 꿈도 못꾸죠"



1948년 生
서울대 경영학과, 영 랭커스터대 박사
1995년 재정경제원 총무과장
2001~2002년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2003~2004년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2004~2005년 국가보훈처 차장

김서령 : 국회예산정책처란 기관은 아직 일반에게 생소하다. 설립취지는 무엇이며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 외국에도 이런 기관이 있나?

배철호 :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 직속기관으로 행정부의 예산 편성 · 집행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국회 입장에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거다. 온전히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생겼다.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자칫 부처 이익이 중시되거나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걸 견제하는 게 국회 역할인데 국회의원들은 전문 분야가 달라 재정부문을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을 연구 분석해 허투루 쓰이는 세금이 없는지를 살피는 '나라살림 지킴이' 다. 미국예산처인 CBO를 벤치마킹한 거다. 2004년 3월에 생겼으니 만 4년째에 접어들었고 2005년 6월 2대 처장으로 취임했다.

김서령 : 지금까지 예산정책처가 해온 일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일의 성과를 살펴봐야 국회예산정책처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알 것 같다.

배철호 : 예산안, 결산 제출 시점에 맞춰 각종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분석보고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06년 53종, 2007년 65종, 지금까지 총 202종의 예결분석보고서를 만들었다. 또 법률안을 만들 때 소요비용을 미리 객관적으로 추계하는 일도 한다. 전에는 비용 계산 없이 주먹구구로 법률안을 상정했지만 이젠 특정 법률을 시행하려면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계산한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을 미리 알아보는 것과 똑같다. 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총비용과 연도별 소요액을 알아야 충실한 법률안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나. 필요액을 미리 알아야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까지 629건의 법률안 소요



세계 4대의 금도로 (기네스북)에 등록된
대우 옥포조선소의 100만톤급 도크

'활기찬 시장 경제' 시동 건다

친기업 · 친시장 정책으로 투자활성화

MB노믹스의 거시분야 핵심공약은 '747 공약'이다. '747'이란 10년 동안 연평균 7% 성장을 통하여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GDP규모 기준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경제비전을 의미한다. 향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완화 및 여성취업자 확대, 양극화 극복, 증대되는 복지수요의 충족 그리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 우리경제가 향후 7% 수준의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이런 당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747공약이 실현가능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학계는 물론 사회전반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논쟁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해서 이제 저성장기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되는 우리 경제가 과연 7~80년대처럼 7% 성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는 쪽에서는 시장중시 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FTA 확대 등과 같은 지속적인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천적 리더십이 발휘될 경우 아직도 우리 경제는 7% 성장을 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국제화시대의 외부 경제환경은 그 어느 시대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수출과 내수간 연결고리가 미약하며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력이 4%대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연평균 7% 성장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747공약과 관련된 또 다른 논쟁은 우리 경제가 비록 향후 10년간 연평균 7%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GDP규모 기준으로 과연 세계 7대 경제강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3



인도 타밀나두 주 첸나이의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을 방문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오른쪽)이 현장 직원들과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 경제규모 국가로 추정되고 있다.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7대 강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성장 수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현재 세계 7위 내지 12위 수준의 경제규모 국가인 이탈리아 · 인도 · 러시아 · 브라질 등이 어느 수준으로 성장하느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들 국가의 통화와 미국 달러와의 환율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747공약의 마지막 7은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MB노믹스의 목표이자 비전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10년 후에 우리 경제가 세계 7대 강국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MB노믹스의 거시부문 공약인 747공약의 핵심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MB노믹스는 7%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무엇보다도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나 법인세 감면 등 친기업 · 친시장 정책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핵심적인 성장동력으로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직의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한 국가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확대를 통한 성장인프라 구축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지난 1월 인도 타타자동차가 공개한 10만 루피(235만원)짜리 인도 産 국민차 '타타나노'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적 비용 축소, 노사간의 대화와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통한 사회갈등구조 해소와 사회통합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7%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갭이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정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등 R&D 투자확대, 산학연 협동을 통한 효율적인 기술개발시스템 구축 그리고 노동안정 및 직업훈련교육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 일본 · 중국 · EU 등과 같은 전통적인 주요 교역국가 이외에 중동과 인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수출과 해외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업 · 서비스산업과 같은 지식산업,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또 다른 경제성장의 축으로 인식하고 이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정책의 우선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제 MB노믹스의 핵심공약인 747공약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성장비관주의 또는 성장회의주의에 입각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국민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성장경로를 찾고 실현하기 위한 도전에 동참하고, 새정부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김태준 동덕여대 경제경영학부 교수
tjkim@dongduk.ac.kr

규제 줄이되 법집행 엄정하게

창업절차 간소화, 법인세는 경쟁국 수준으로 내려야



지난 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신년 리셉션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미래의 국가지도자에게 요구한 최우선과제는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 우리 경제의 안정에 기반한 재도약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원리의 작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기업가정신의 회복 그리고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게 국가는 곧 기업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은 국가 최고통치자가 아니라 국가 최고경영자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런 면에서 MB노믹스의 핵심은 기업정책이고 이것은 그동안 실종된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는 '친기업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새로운 정책기조로 떠오른 친기업 정책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최대한 발휘하게끔 해주는 정책이다.

기업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기업가들은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신이 나서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그런 면에서 '친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살리는 '친시장'이 돼야 하고, '친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친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뒷다리를 잡는 규제들을 없애 시장이 지시와 명령이 아닌 인센티브 시스템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의 질서를 깨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공정한 게임의 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규제는 줄여야 하지만 질서유지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 시장의 질서 유지가 주요 임무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구는 친시장적 정부에서 도리어 그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순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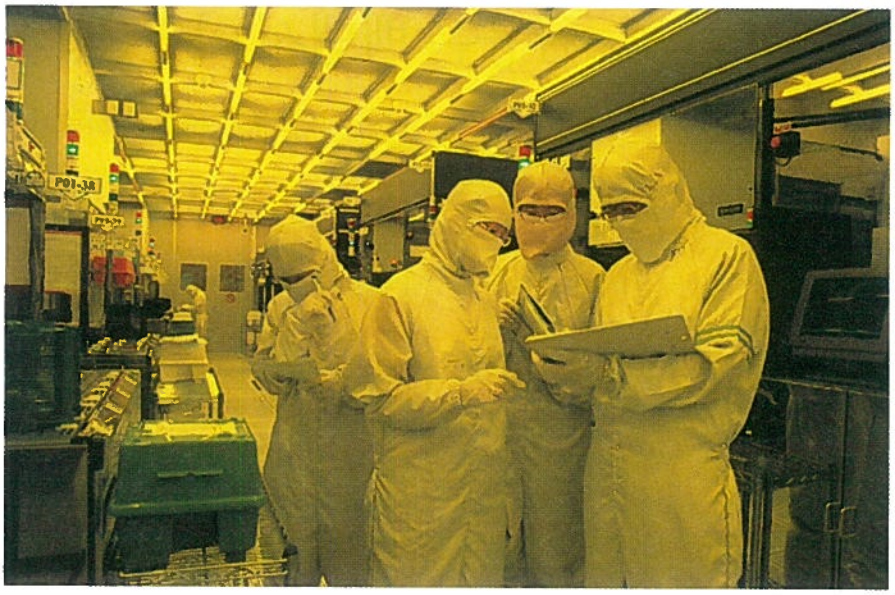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은 정

부가 아니라 기업이며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노력과 창의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을 일구어낸 원동력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이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려는 정신이 참다운 기업가정신이며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동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투자와 창업이 활성화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시장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강요하면서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와 고용 기피 등을 불러일으켜 기업가정신을 실종시켰다. 국내에서 기업을 하려는 의욕은 사라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단순히 경기순환의 하강 국면에 있음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기반침하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이 신규투자를 꺼리고, 기술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머뭇거리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의 회복이야말로 새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인들이 가장 존경받도록 사회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경제정책의 일관성 및 친시장적 기조의 유지를 통해 각종 제도의 불투명성을 없애고 경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가정신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이 나타나도록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경제가 다시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과 관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법인세를 동아시아 경쟁국 수준을 목표로 꾸준히 인하해 해외공장이전, 외국인 직접투자 위축 등을 막아야 한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엔지니어들이 D램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의 우리 공정거래정책은 사업자들 간의 관계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이익 보호와 경제력집중 억제에 역점을 둔 산업조직정책에 치중함으로써 경쟁촉진을 추구했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다. 또한 작금의 국내외 경제상황은 「공정거래법」 제정 초기의 경제규모 및 국제경쟁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라졌으므로, 이러한 상황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공정거래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구태의연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과감하게 그만두고 경쟁촉진이라는 공정거래정책 본연의 업무에 몰두해야 한다. 특히 재벌기업에만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재벌정책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필요하다면 재벌기업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일반적인 기업정책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전면 폐지하고, 나머지 대기업집단 관련 제도들의 점진적인 완화 내지 폐지를 로드맵으로 작성해서 규제완화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대신 '타자위해의 원칙'에 입각해 집단소송, 이중대표소송, 손해배상 등 사후규제는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새정부의 공정위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급측면의 경쟁정책과 수요측면의 소비자정책에 전념함으로써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이어야 한다. 정권교체에 따른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새정부는 정당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가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정부 때문에 기업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시장의 질서유지는 강화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해 모든 기업들이 새정부의 기업정책은 친기업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mhkang@dankook.ac.kr

금융은 백댄서 아닌 신성장 주역

중소기업 자금 지원도 강화해야

외환위기 이후 한국금융은 금융구조조정, 금융혁신, 업무영역의 변화,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 등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다.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늘어났고, 금융하부구조가 개선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도 이전에 비해서는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국제화 수준은 미흡하고 자본시장기능도 취약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금융부문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 변덕스러운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킬 만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정부는 금융부문이 성장 촉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금융부문이 성장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본연의 중개기능을 제대로 담당해야 하며, 부가가치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신성장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머리가 우리 신체의 움직임을 지시하듯이 금융은 경제가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한다. 사람이 머리를 다치면 전신이 마비되듯 금융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면 경제는 방향을 잃고 쇠퇴한다. 금융이 경제의 운행을 제대로 지휘하려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과 자본시장이 조화롭게 발전하면서 민간경제주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선별(screening), 사후관리(monitoring),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등 금융의 다양한 기능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정치권이 자금배분에 간여하는 것이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 정책당국은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경영전략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우리의 금융시스템에서 필요한 시장과 제도가 민간 주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활성화와 국민연금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등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몸의 동맥이 약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건강에 이상이 오듯이 돈줄이 막힌 데가 있으면 경제체질이 약화된다. 경제 구석구석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취업자 중 88%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동시에 보증제도 및 사후관리의 개선 등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고수익-고위험 채권시장의 육성, 대기업의 중소기업 무의결권주식 취득 활성화 등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의 마련도 필요하다.

공적 금융기관 이용에 애로를 겪는 신용취약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민금융기관과 마이크로 크레딧의 활성화와 함께 이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요구된다. 지난 정부는 금융산



국가와 기업이 하나가 돼 세계 자산 매입에 나서는 중국식 세계화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미미하고 목표 달성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선언적 차원에서 공포되고 정책추진에서의 우선순위도 높지 않았던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차기 정부는 유사한 정책 목표를 추구하되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자세히 보자면 금산분리의 완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개선, 업권별 칸막이 해소, PEF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에서도 도전과 창의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소유 금융회사 민영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 정책 추진을 통해 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금융 전문인력의 육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국투자공사(KIC)의 규모를 일정부문 확대(연금 일부 및 과잉 외환보유고 활용 등)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국부펀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의 무책임한 외화자금 만기 미스매치와 이로 인한 부실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볼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의한 금융리스크의 확산, 프랑스의 소시에떼 제네랄 사건에서 드러난 내부관리 시스템의 문제 등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과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의 이동과 금융기관 설립의 양 측면에서 거의 자유화돼 있다. 따라서 범세계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와 금융의 변화가 우리의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올바로 식별하고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금융정책당국이 담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지난 2005년 7월의 한국투자공사(KIC) 개소식

향후 금융감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피규제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시장친화적(market-friendly) 규제감독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감독당국은 제재위주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로 거듭나야 한다. 하지만 경제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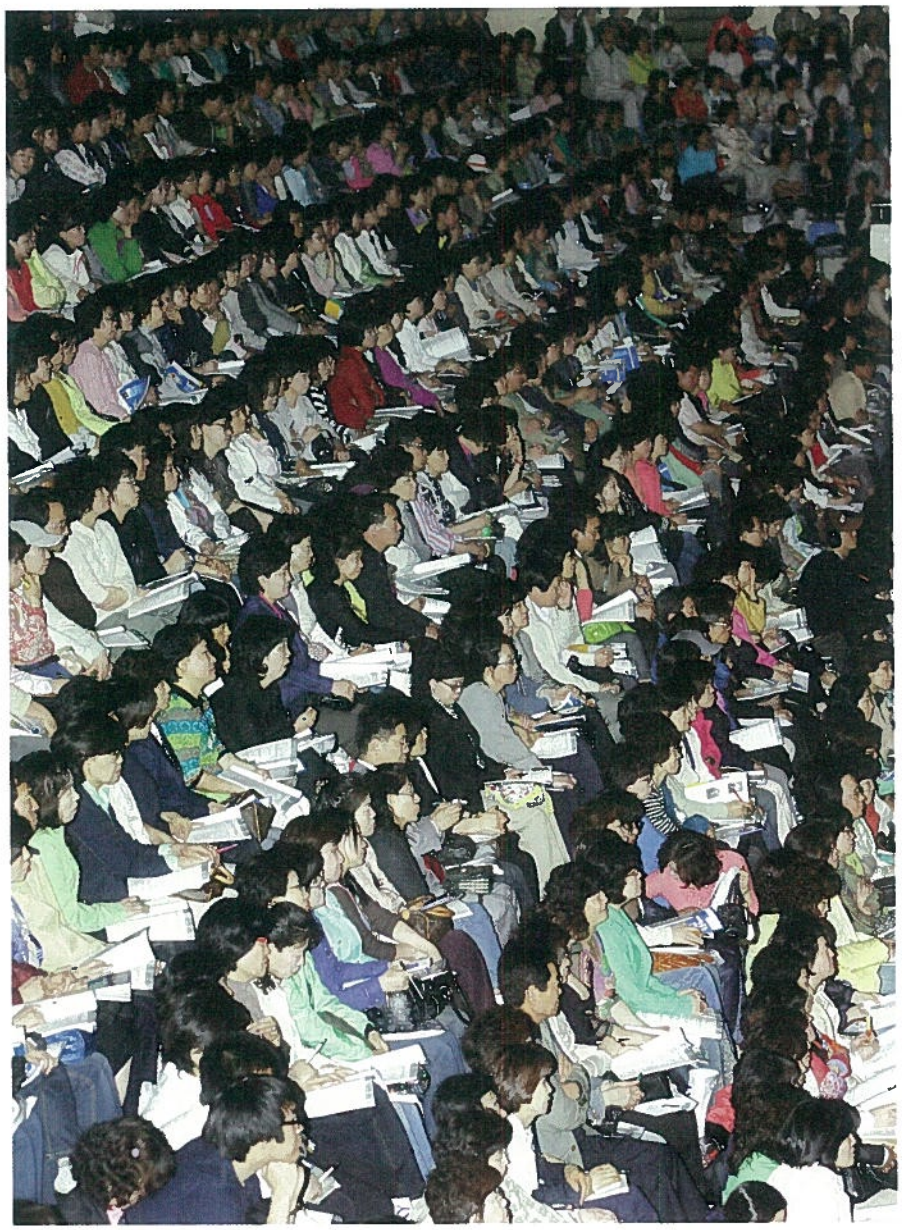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우리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주변국가, 특히 중국 · 일본 · ASEAN 등 인근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대경제에서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을 뒤에서 보조하는 데 만족하는 '백댄서' 가 아니다. 경제의 전면에서 성장을 능동적으로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심술을 부리면서 실물경제 운행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금융부문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국민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정부의 금융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채희을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hychai@kyonggi.ac.kr

학교 자율과 다양성을 살려라

대입 자율화하고 초 · 중등 교육과정과 인사에 관여 말아야



지난해 4월 서울 한양대 체육관에서 열린 2008년도 대학 공동 입시 설명회

학교를 살려야 한다. 학교를 살려 나라를 살려야 한다. 물론 교육의 보금자리가 학교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류문명사 반만년을 지켜내온 곳이 학교이며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과 제자간의 끝없는 대화가 그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가꾸어왔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는 지금 죽어있다. 죽은 학교에는 선생님도 없고 아이들도 없다. 다시 학교를 살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교육의 미래가 없고 나라의 미래가 없고 인류의 미래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기조는 학교를 살리는 데 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그동안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것이 문제였다.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하나의 잣대로 만들고 따라오라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 국가를 핑계로 서로 발목을 잡은 형국이었고 정치인들은 표 하나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학교의 자율과 다양성을 살리는 게 해법이다. 교육은 획일적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학교의 개성을 살리는 길 외에는 없다. 학교의 개성을 살려 학교를 살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의 자율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300년 근대국가 공교육제도가 학교를 만들었고 학교라는 괴물은 교육을 죽였지만 그래도 한 시절 교육의 보루로 성가를 높여왔다. 그러는 가운데 학교의 힘은 커져가기만 했고 교육은 죽어갔다. 학교의 뒤를 국가가 봐주는 바람에 학생과 선생님들은 뒷방 신세가 되었다. 이제 이들을 다시 앞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의 힘을 빼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와 결탁한 국가의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 대학부문과 초 · 중등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5대 공약, 합해서 10대 공약이 마련돼 있다. 이 공약들은 구조적인 얼개를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지렛대가 학교정보공시제다. 학교정보 공시는 학교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낱낱이 알려주는 일이다. 물론 학교가 하는 일을 알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동안 학교정보 공시에 대한 요구는 지속됐지만 공시를 해야 할 정보가 없다, 혹은 보여주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유보되었다.

그렇지만 옛날에도 공시해왔고 다른 나라도 모두 공시를 하고 있다. 그 공시정보의 가짓수는 많지만 가장 핵심은 역시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를 했지만 어떤 잣대로 공부를 잘했는가를 재는 것에 대한 객관적 합의가 곤란하다는 거창한 담론에 발목 잡혀 전통적으로 활용해왔던 학업성적을 잃어버렸다.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제 그것을 다시 되살려내야 한다.

학교를 살리는 일은 대학을 살리는 일과 초 · 중등학교를 살리는 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대학을 살리는 일은 입시를 자율화하고 학문을 진작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부터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허무는 일이다. 혹자들은 아무나 데려다 잘 가르치는 것이 대학이 할 일이지 입맛에 맞는 학생들만 데려가려는 것은 무임승차하려는 도둑놈 심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이야기에 무수하게 나오는, 선생님이 제자 하나를 고르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에 관한 것만 떠올리면 금방 드러나는 허구다.

학문연구는 대학의 생명이다. 교육과 연구가 통합되고 사회봉사를 통해 그 결과가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이 대학의 요체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대학들은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그 기반 자체가 없다. 1970년대 허약했던 대학의 연구기반을 국가출연연구시스템이라는 정책으로 오늘날 정보통신강국을 비롯한 기술산업입국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틀의 융합이 필요하다.



순천향대 영어캠프 잉글리시 정글에 참가한 학생들이 외국인으로부터 영어로 모의 출국심사를 받고 있다.

대학과 R&D 융합이야말로 대학과 연구기관이 윈-윈하는 전략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의 초석을 낳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과학부의 탄생에 기대를 걸어보아야 할 것이다. 초 · 중등학교를 살리는 일은 누누이 지적되어왔던 자율과 분권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가가 개개 학교의 교육과정과 인사운영에 관여하면 안 된다. 국가 교육과정의 틀은 가능한 느슨하게 만들어야 하고, 교재의 선택과 제작은 철저하게 선생님의 고유영역으로 맡겨둬야 한다. 선생님들은 사실상 이 나라 최고의 인재들이다.

조선경국대전에 규정된 사범자(師範者)는 지와 덕을 겸비한 사람의 모범 그 자체다. 우리 선생님들도 분명 처음에는 그러한 자질은 물론이요 사명감과 꿈을 가지고 학교현장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 사명감을 국가의 과도한 간섭과 제도의 굴레가 사정없이 짓밟아버렸다. 학교와 선생님의 눈물과 땀을 인정해주고 권위를 살려야 한다. 교장선생님에게는 학교 특색프로그램을 담당할 선생님을 뽑고 지원해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선생님에게는 수업에 쓸 교재와 수업방법 그리고 학생들을 독려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 어려운 줄 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

영어교육은 학교를 살리고 대학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는 프로젝트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언뜻 생각하면 엉뚱한 프로젝트 같지만 그래도 국어나 수학교육에 비해서는 간명하게 그 길이 보인다.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필요한 교사를 지원하고 교육환경을 꾸밈에 있어 다른 분야보다는 선명하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완성정책은 모든 교육개혁의 시금석일 것이다. 영어교육이 잘 되면 그것은 다른 것도 잘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사교육과의 전쟁은 부차적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학교다워지는 것이고 대학이 대학다워지는 것이다. 그럴 때 사교육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래야 인재대국의 기틀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sychun@cnu.ac.kr

환경을 살리는 대운하

도로운송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1/5에 그쳐

신정부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정책에 대한 찬반논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반대여론이 많았고 지금도 큰 변화가 없다. 이처럼 반대여론이 많은 것은 대운하 정책이 대선공약으로 제안돼 정치적 공방으로 빠져든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큰 요인이다.

유럽에서는 운하를 이용한 수로운송이 도로운송에 비해 환경친화적이고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적극 장려하고 있다. 배는 한 번에 많은 양의 화물을 수송하기 때문에 연료와 인력 소모, 그리고 오염발생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대운하에 운행될 2,500톤급 배는 15톤 트럭 150~200대의 화물을 싣기 때문에 단위무게당 소모되는 연료가 도로운송의 1/3 이하다. 또한 타이어 마모나 비산먼지가 없어 오염 발생량이 1/7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파괴와 교통체증에 따른 연료낭비와 대기오염 등을 고려하면 수로운송의 환경장점은 이보다 훨씬 크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도로운송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수로운송을 더욱 장려하고 있다.

독일은 171km의 인공수로를 뚫어 마인도나우(Main-Donau) 운하를 1992년 개통했고, 벨기에는 초현대식 선박승강기(Ship Lift) 스트레피-티유(Strepy-Tieu)를 2003년에 완공했다. 네덜란드는 수로운송을 꾸준히 늘려 현재 전체 화물의 29%를 차지하게 됐으며, 프랑스도 2000~2005년 사이에 수로운송 화물량이 두 배로 늘어났다. 유럽연합 소속 25개국(2006년 기준) 중 18개국에 현재 약 35,000km의 운하가 있으며, 이 운하를 통해 유럽의 수많은 도시와 산업지역이 연결돼 있다. 특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 유럽의 항구도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물동량의 43%가 내륙운하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운송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마르코 폴로 계획(Marco Polo Plan)을 발표했다. 도로교통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2013년까지 총 8억2천유로(약 1조원)를 수로운송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1유로를 수로운송에 투자할 경우 6유로의 환경편익이 돌아온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수로운송이 그만큼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006년에는 내륙주운 확대에 필요한 투자유치, 기술향상, 인력양성, 기반시설구축, 정책 및 법적 제도 개선 등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나이아데스(NAIADES: Navigation And Inland waterway Action and Development in Europe,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물의 요정을 의미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로의 현대화, 사용 연료의 질 향상,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스템의 운영, 내륙운송체계의 혁신을 위한 연구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 운하반대론자들은 환경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운하를 만들면 하천을 준설하고, 터널을 뚫고, 인공수로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론자들에 의해 환경파괴적인 것이 돼버렸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은 환경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물동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수입과 수출 물량으로 인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비교적 저조했던 지난 2000~2006년에도 컨테이너 물동량은 900만TEU에서 1,600만TEU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것이 2020년에는 4,700만TEU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FTA가 체결되자 정부는 2015년까지 95만TEU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이러한 예측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이 적어도 세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컨테이너 화물뿐만 아니라 기타 화물도 비슷한 규모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정부 예측대로 물동량이 증가하면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하고, 교통 혼잡이나 우리의 고비용 반환경 물류수송은 조금도 나아질 것이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에 건설된 약 3,1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2020년까지 6,000km로 증설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도로건설은 엄청난 환경파괴를 요구한다. 지난 2004년 완공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보면 경기도 여주에서 경북 김천까지 총 151km 구간에 터널 20곳(18.3km), 산을 깍은 절개지 405곳(94km),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은 도로용지가 무려 10.6k㎡(여의도 면적의 3.6배)에 달한다. 철도는 도로보다 더 직선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길고 많은 터널과 절개지를 필요로 한다. 현재 서울에서 대구까지 완공된 경부고속철도에도 74km에 달하는 터널이 뚫려 있고 곳곳이 산이 잘린 절개지이며 콘크리트로 만든 교각이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



독일의 엘베강을 가로지르는 강 위의 운하 '트로크브뤼케'

해 산간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강의 저수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훨씬 친환경적이다. 현재 건설 중인 경북 김천의 부항댐을 보면 5,430만톤의 물을 저수하기 위해 길이 440m, 높이 57.4m의 콘크리트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댐으로 인해 거주민 280세대가 이주하고 계곡과 논밭 3.3㎢가 수몰되고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3,9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낙동강 수계에는 부족한 수자원과 치수를 위해 현재 부항댐 외에도 화북댐(4,870만톤)이 건설되고 성덕댐(2,790만톤)이 재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세 개의 신규 댐을 더 건설해야 하고 두 개의 기존 댐을 확대 재개발할 계획이다. 경부운하에 10억톤의 물이 저수되면 환경파괴적인 댐 건설을 일부라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원인물질 배출량은 지난 몇십년 동안 급속히 증가했다.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지난 1970~2004년까지 35년 동안 7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90~2004년까지 15년 동안 104%나 증가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됐고 교토의정서에도 서명했다.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삭감 의무가 면제됐지만 그 이후부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삭감해 나가기란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로 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삭감의무를 이행해나가는 과정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3년부터 1990년 기준 배출량 5%를 감축해야 한다. 5%를 감축할 경우 2013년에 무려 국내총생산(GDP) 기준 6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운하를 이용한 수로운송은 도로운송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에 불과하며, 도로교통 혼잡에 따른 연료 낭비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을 보면 발전 33.7%, 운송 19.7%, 산업공정 11.9%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화물을 수로운송이 대체해 운송이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일부분이라도 삭감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책에 대한 올바른 환경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거시환경이론이다. 환경문제를 미시적 관점에서 단일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운하정책도 운하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물동량 변화, 도로교통의 문제점, 수자원 확보, 온실가스 저감효과, 기타 대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과학적인 자료와 사례를 근거로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대안을 비교 · 검토해야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ssp@ewha.ac.kr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하라

잠재성장률 높이고 신성장산업 중심 산업구조 개편해야

우리 경제는 2019년경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 진입 전에 선진경제로 진입하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화가 어려워질 것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선진국의 자격요건으로 본다면 앞으로 10년 후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 정도는 돼야 한다.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 매년 5% 이상의 실질경제성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으로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미 잠재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졌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 없이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0세기 100년 동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일본 한 나라뿐이고 스페인 · 홍콩 같은 선발 중진국들이 지난 13년 이상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의 덫에 걸려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따라서 신정부는 선진화를 위해선 단기적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성장잠재력의 강화가 선진화의 필수요건이지만 물론 충분조건은 아니다. 선진화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잠재력의 강화를 통한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점진적 강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강화는 조세수입의 증대 없이는 불가능하고 조세수입의 증대는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또다시 성장잠재력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분배와 복지를 통한 성장을 강조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서구유럽의 복지국가들도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 복지제도를 본격적으로 강화했고, 중진국이나 후진국이 복지제도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꾸준히 해 선진경제에 도달한 역사적 예가 없기 때문이다.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큰 정부, 작은 시장'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후진적 경제에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지만 정부가 자원배분에 간섭하고 경제운영을 주도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가능하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또는 사후적인 소득재분배나 복지를 위해서만 간섭하면 되는 것이다.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산업구조를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인데 현재 4.8% 정도인 이 성장률은 앞으로 계속 내려갈 전망이다.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수, 사람의 질, 자본의 양, 자본의 질(생산성) 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된다.

줄어들고 있는 사람의 수, 특히 생산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고령화 · 저출산문제의 해결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선 출산장려대책과 고령자 및 여성 노동력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외국인력의 활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외국인력 중에서 재외교포를 포함한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중국적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 일자리 알선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사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평준화 위주 교육제도를 개혁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천연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사람 덕분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앞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사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교육개방을 확대하고 평생교육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자본의 양을 늘리기 위해선 저축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저축된 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철폐, 법인세 인하와 노사관계안정을 포함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규제철폐는 규제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 노사관계는 효과 없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 패러다임에 집착하기보다는 당분간 노와 사 모두가 법과 제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법치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빠지고 노사가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고, 불가능할 때엔 중앙노동중재위원회의 강제적 중재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대책의 정상화를 통해 건설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하게 높은 금융규제와 세금폭탄에 가까운 부동산세율을 인하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국민소득 2만달러대의 덫에 걸린채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홍콩(사진 위)과 스페인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단기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부동산가격의 안정화와 주거복지를 더 중시하는 부동산대책을 도입해야 한다. 국내투자뿐 아니라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의 질, 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FTA를 포함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한편, 우리 산업구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중진국형 산업구조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조직을 준연방제 방식으로 광역화하면서 지방분권을 명실상부하게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자발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것은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고용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 · 기술개발 · 유통 · 마케팅을 포함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책을 강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hyalin@hanyang.ac.kr

보수와 실용의 조화를

레이거노믹스와 일맥상통… 자유시장 작동 방해 요인 제거해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활기찬 남대문시장

민주화된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경제를 만들어 내겠다는 정치인을 국가의 대표로 선출한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제시한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의 경제에 대한 가치체계와 인식체계가 확고해야 일관성과 실현가능성이 담보된 비전과 정책공약이 창출될 것이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를 보는 시각, 즉 MB노믹스의 내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일류국가건설을 비전으로 내걸고 이를 위해 연 7%의 경제성장률, 4만달러의 일인당 국민소득, 세계 7대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위해 시장친화적 환경조성과 서민경제회복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성장을 추구하되 정부주도적 성장정책이 아니라 민간에 의한, 다시 말해 기업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독려해 성장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이다.

성장을 위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과거의 많은 정부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파악하고 과감히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조세부담도 경감(예컨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완화)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가 분배를 우선시해 기업의 투자활동에 적지 않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에 근거해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정책방향이라 하겠다.

그러나 MB노믹스는 일방적 성장론으로 그치지 않는다. 혹시 성장에서 뒤쳐질 수도 있는 서민들의 생활도 돌보는 정책들을 구사하겠다는 '따뜻한 시장경제론'을 주장하

고 있다. 이러한 MB노믹스는 보수주의적 시장경제론이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주의적 처방을 구사하겠다는 정책체계로 파악된다. 이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공급측면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으로 규정되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 궤를 같이한다고 하겠다. 경제의 활성화는 정부의 역할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 견해이며 이를 위해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지 MB노믹스가 레이거노믹스와 차이가 있다면 MB노믹스는 시장경제론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정부의 간섭이 동원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어떤 시점에 어떤 실용주의적 정부간섭이 동원될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민경제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가져올 수도 있는 분배의 악화 또는 다른 종류의 시장실패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새정부가 경제정책과 관련해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과제이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5%를 넘지 못할 뿐더러 잠재성장률도 5%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견해가 많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뿐 아니라 투자의 부진, 연구개발의 부진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는 MB노믹스의 기본이 되는 보수주의적 시장경제론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도의 인적자본의 축적과 이를 지탱해 줄 물적 자본의 형성이다. 고도의 인적 · 물적 자본의 축적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시장의 작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단지 자유로운 시장 분위기만을 만들어 주면 그만이다.



레이거노믹스의 선봉장 도널드 리건 전 미국 재무장관

MB노믹스가 포함하고 있는 교육의 자율화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로운 시장의 작동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지금껏 자유로운 시장의 작동을 방해해 온 요인들을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까지 정부주도적 정책에 의해 성장해 왔다. 그래서 정부는 의례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지원정책과 규제를 만들어 냈고, 또 기업인들은 관료들에게 의존하거나 눈치를 보아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태도를 불식하겠다고 과감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수차례 규제를 완화한다고 선포하고 형식적인 규제완화에 그쳐 버린 일이 허다하지 않았는가?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 정부의존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활동에서 오는 이득과 위험 모두 기업이 감당하고 책임지게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정부의존적 태도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10년전의 외환위기와 같은 엄청난 사태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새정부의 또 다른 과제는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일이다. 날로 세계화돼가는 우리 경제는 국제적 경제여건의 변화라는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해 새정부는 실용주의적 접근방법으로 위기를 차단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기적 처방으로써의 실용주의가 정치적 과욕으로 둔갑해 장기적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김대중 정권이 외환위기가 가져온 침체로부터 빨리 벗어나겠다는 욕망에서 카드대란을 야기했던 사실이나 노무현정권이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부동산시장 자체를 침체로 몰아넣는 일과 같은 사태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뜻한 시장경제를 내세우는 MB노믹스는 보수주의적 시장경제론과 실용주의적 시장보완정책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둘을 융합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조화와 중용의 미덕을 살려 MB노믹스가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yslee@yonsei.ac.kr



사진 · 정치호

1학년이 선배들 제치고 대상 움켜 쥐어

'제5회 전국 고교생 경제 한마당'에 모두 5,039명 몰려

재정경제부와 KDI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전국 고교생 경제 한마당' 시상식이 지난 2월 20일(수)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수상자 1백여명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현정택 KDI 원장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경제 한마당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청사 출입구에 서 있는 경찰들과 정부청사 건물의 위엄에 학생들은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상식장에 마련된 자신들을 축하하기 위한 무대를 보면서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 장호준 학생(대원외고 1학년)이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할 때는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져 영화제 시상식장을 연상케 했다.



사진 · 정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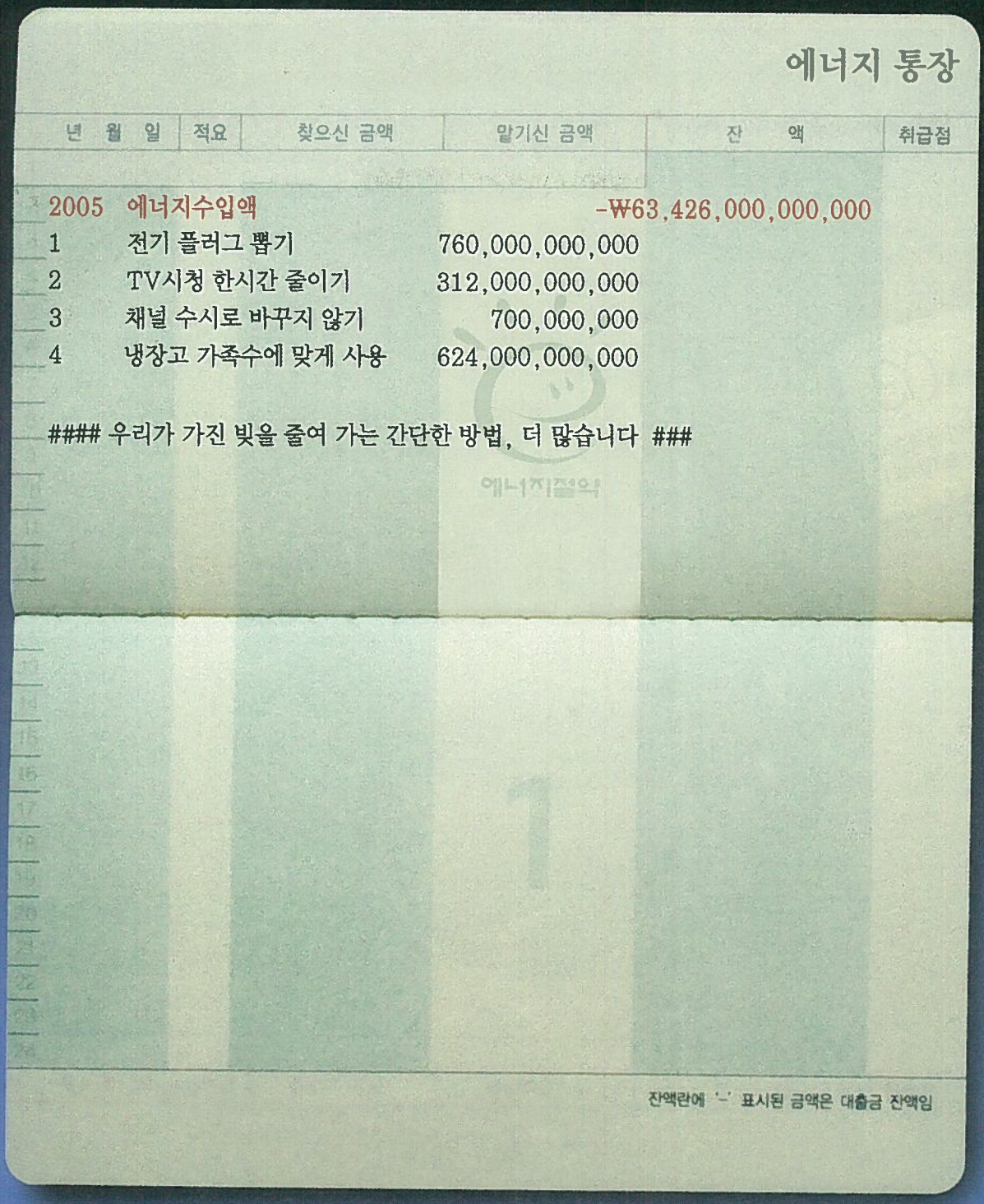
권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자기계발에 매진하면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 교육은 시장경제 원리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시장시스템의 우월성을 믿게 돼 우리 경제를 보다 튼튼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날 행사에는 'young econ(역대 수상자 모임)' 회원들이 참석해 이번 대회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뜻 깊은 대화의 장도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월 19일(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역 대학교에서 열렸고, 응시자는 5,039명이었다. 이는 지난 대회보다 17.6%(754명) 증가한 숫자로, 1학년과 여학생 응시자가 지난 대회보다 각각 3.8%, 4.2% 늘었다.

수상자는 개인부문 252명, 단체부문 47개교, 지도교사상 54명 등 총 353명에 이른다. 특별상(경제부총리상)은 경기여고 2학년 백연주, 단체부문 대상(교육부총리상)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차지했다. 개인부문 대상은 장학금 8백만원, 특별상과 금상은 각각 5백만원, 단체부문 대상 수상 학교에는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이 전달됐다.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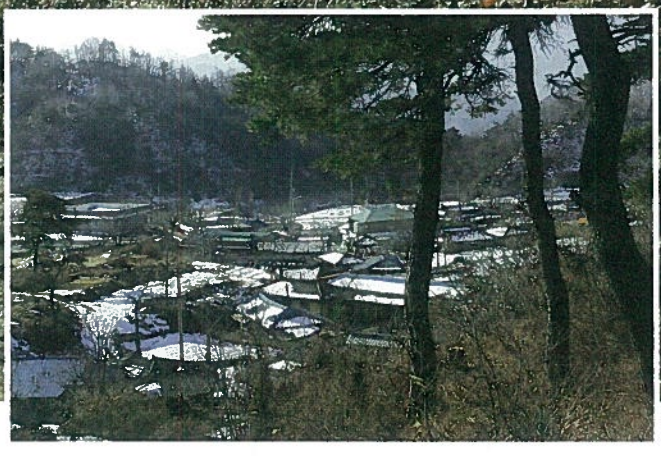
우리가 가진 마이너스 통장
갚기 어려운 빚이 아닙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03
사진작가 권태균의
| 오지기행 |

문경 가은읍 수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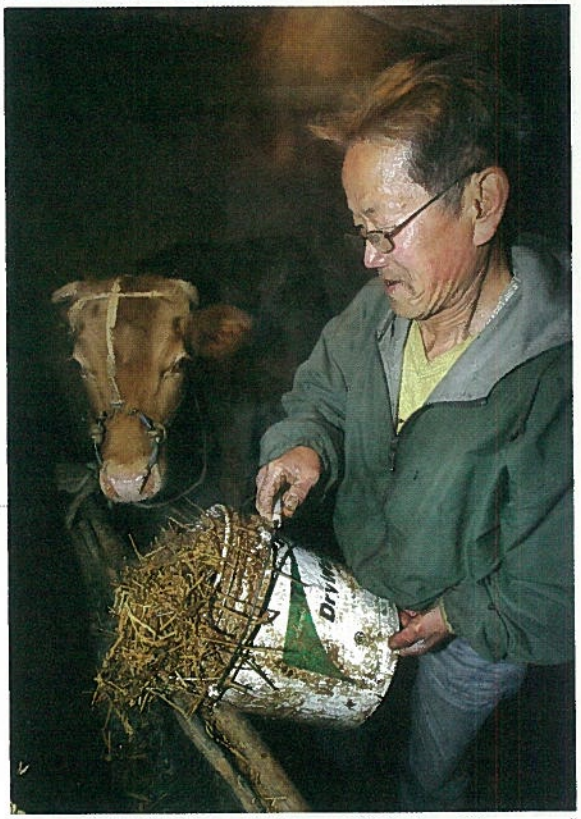
뒷동산 사과나무는 그리움에 야위어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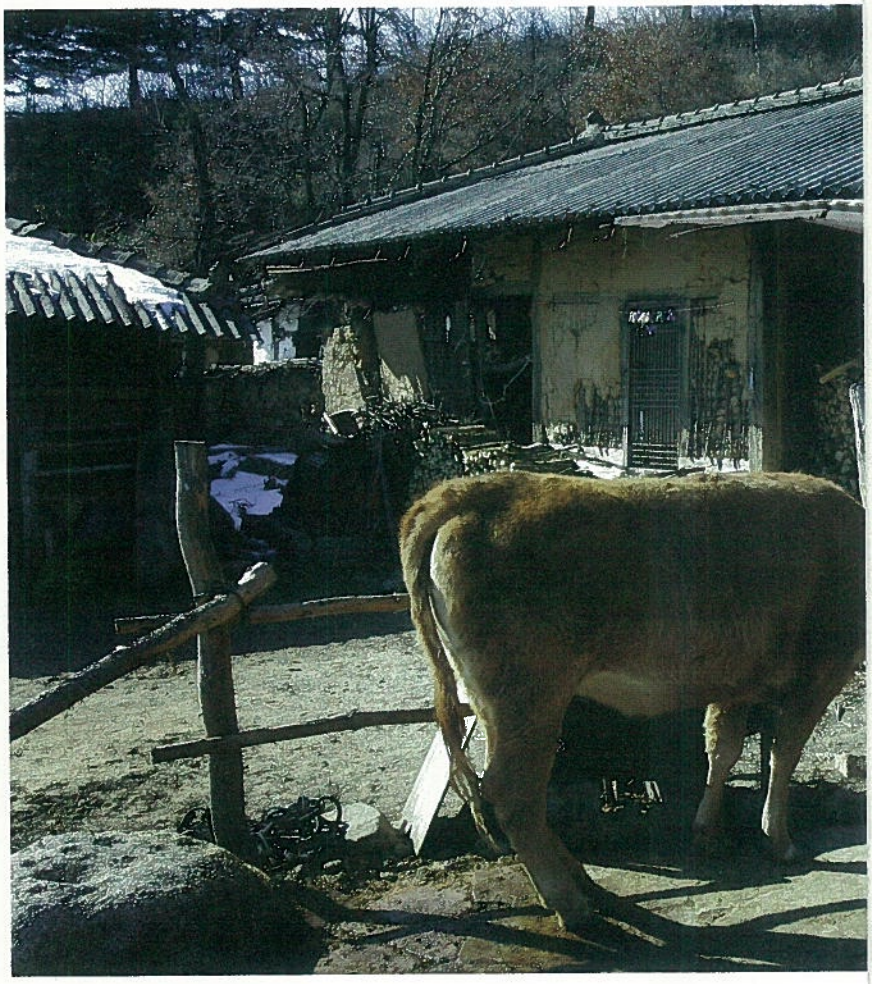












일찌기 육사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고 역설적으로 물었지만 닭 울음 소리조차 끊어진 마을도 있다. 경북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水曳里). 물이 귀해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다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속리산 엉덩이 부분을 힘겹게 받치고 있는 경북 북서부의 산간 오지다.

장작을 때어 설설 끓는 울퉁불퉁한 방바닥에서 잠을 설친 새벽, 작약산 밑에 똬리를 튼 마을에는 닭 울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닭 키울 근력이 이제는 없어서…" 이른 새벽, 창 밖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고 팔순 노인의 힘없는 목소리가 깜깜한 방안에 퍼지고 있다. 하기야 일년 내내 키워 봤자 위생처리 잘 된 생닭 한 마리에 3천원하는 현실에 닭 키울 바보가 어디 있으랴.

임란을 피해 해발 5백여 미터 높은 계곡 너머 오목한 분지, 한때 1백





찾아가는 길
문경시 가은읍에서 901번 지방도로를 이용, 수예리로 가면 된다. 이정표가 제대로 돼 있어 수예리를 찾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가은읍에서 수예리까지는 자동차로 반시간 정도 걸린다. 수예리로 나 있는 길은 경사가 가파라 4륜구동 SUV로도 숨가쁘다.



여 가구를 자랑했던 마을은 이제 열 가구 정도 남았다. '새댁'으로 불리는 가장 젊은 할머니의 올해 나이는 만 69세. 마을을 지나는 버스도 없고 평균 나이 여든이 훨씬 넘는 노인들만 남아 자동차도 없다. 몸이 아파 점촌 같은 대처라도 나가려면 대절 택시를 불러야 한다. 치료비 6천원에 왕복 택시비는 3만원이 훌쩍 넘는 게 엄연한 현실.

읍내 4천원짜리 뷔페가 있지만 차비가 없어 나가지 못한다는 할머니의 말이 땅바닥에 흩어진다. 마을회관은 할머니들이 모여 분홍빛 젊은 날을 되새김질하는 장소다. 난방비가 힘겨워 낮에는 회관에 불을 피우고 화투장과 떠들다, 저녁이면 혼자만의 한평짜리 냉골방으로 돌아간다. 계산하기가 어려워 점당 계산은 생략하고 본이 안 되면 무조건 1백원을 내는 민화투가 이들의 유일한 오락. 그나마 다섯 손가락을 못 채우는 할아버지들은 난방비 부담에 회관에는 모이지도 못하고 나무 때는 컴컴한 토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 홋카이도 징용 3년, 아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를 얘기하는 할아버지들의 쿨럭이는 기침소리에는 아득했던 순간들이 녹아 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을 것 같은 산간오지. 이제 그 길에 오가는 사람은 없다. 하고 싶은 말은 가슴 가득해도 모두들 말이 없다. 이들의 곤고했던 노래는 저녁 연기처럼 밤하늘에 사라지고 있고 겨울이 지나가지만 기다리는 봄은 이제 마을에 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하여 뒷동산 사과나무는 그리움에 더욱 야위어만 간다.

–문경 작약산에서 **김동률** KDI 연구위원

'경기호황'이라는 이름의 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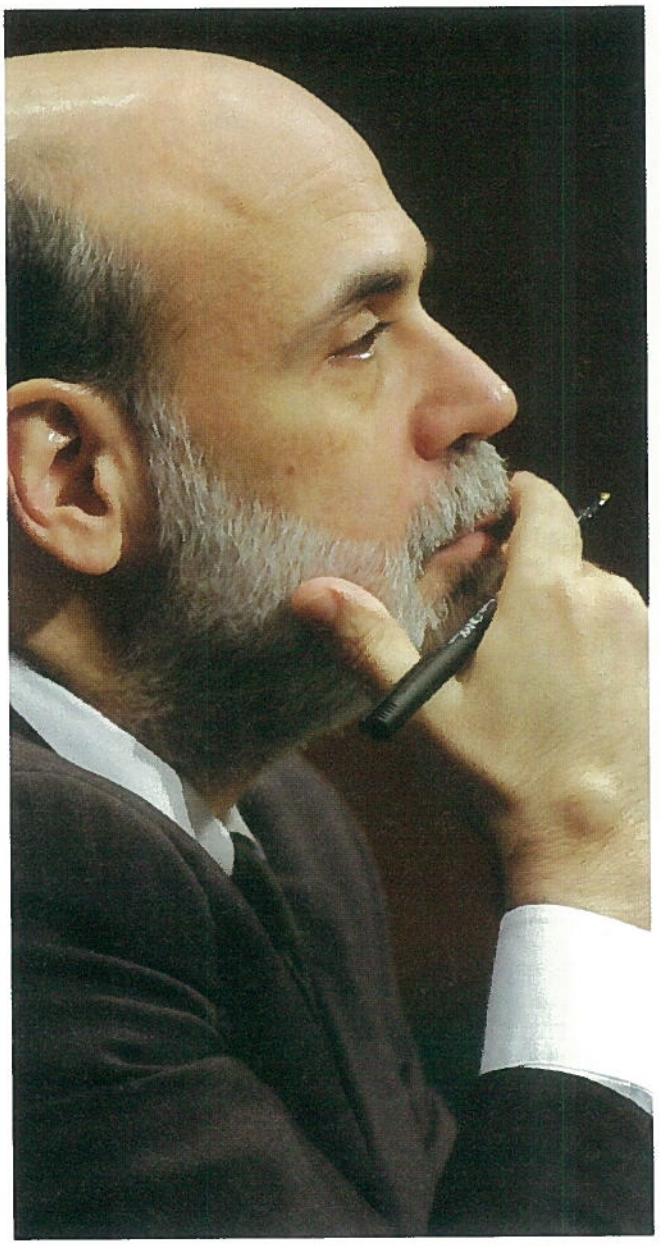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멈춘다

경제기자를 하면서 요즘처럼 외신 기사를 열심히 모니터링 하는 적이 없었다. 독자들도 짐작하겠지만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발(發) 금융위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 이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브프라임 관련 뉴스가 등장하니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새삼 실감한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의 서브프라임 위기를 10년 전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비교한다. 두 위기 사이엔 다른 점도 있고, 닮은 점도 있다. 두 위기가 서로 다른 점은 10년 전 외환위기가 아시아에 국한됐다면, 이번 서브프라임 위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세계 소비의 중심인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한데다, 국제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전됐기 때문이다. 위기의 전파 속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다.

이를테면 시가평가(mark to market) 방식 회계가 정착돼 부실은 즉각 금융기관의 장부에 반영되고 이것이 다시 바로 시장을 움직인다. 국제금융시장에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해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도 다른 점이다. 물론 두 위기 사이엔 비슷한 점도 많다. 예를 들어 두 위기 모두 자산-부채 간 만기 불일치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닮은꼴이다.

과거 한국의 외환위기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선진국에서 단기 외채를 끌어들여 러시아나 동남아의 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것이 문제의 단초가 됐다면 이번에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단기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 화근이 됐다. 두 위기 사이에 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탐욕, 혹은 지나친 낙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모든 위기를 관통하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벤 버냉키 FRB 의장

닉슨 대통령 경제 자문관이었던 허브 스테인(Herb Stein)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멈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브레이크 없는 엔진처럼 언제까지 질주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 미국은 그간 너무 호황에 익숙해져 있었다. 거의 20년간 이른바 슈퍼 사이클(super cycle)을 겪어 왔다. 미국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판정하는 NBER(전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1991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20개월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확장 국면을 경험했다.

2001년 3월부터 경기 침체가 닥쳤으나 그해 11월까지 8개월에 그쳤고 그 뒤 지금까지 다시 긴 경기 호황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은 7년 만에 다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기는 경제 밑바닥에 숨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일본의 경우엔 만성적인 저생산성이 근본 문제였다. 최근 서브프라임 위기의 진짜 위협 역시 기록적인 주가 급락이나 은행의 대규모 손실이 아니다. 걱정해야 할 것은 더욱 깊은 곳에 있다.

지금까지 미국 생산성 향상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착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다. 즉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미국과 세계 경제의 호황이 상당 부분 착시이고, 금융시장의 과도한 신용팽창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포춘'(Fortune)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의 생산성은 매년 2.6%씩 상승했는데, 이는 직전 10년간의 1.6%에 비해 1%p 높아진 것이다. 이를 GDP로 환산하면 1조달러에 이른다. 이 같은 생산성 향상을 설명하는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IT 혁명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IT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금융시장의 광적인 신용 팽창에 의한 착시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생산성 향상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착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다. 즉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는 한편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는 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반복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도 순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경기가 둔화될 때 경제 주체들은 환상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 된다. 기업은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냉정하게 재검토하게 된다. 낭비와 비효율이 없는지 점검해 제거하고 혁신을 추구한다.

미국의 경기 둔화는 최근 세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를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즉 미국 가계와 정부가 부채에 의존한 적자 경제를 벗어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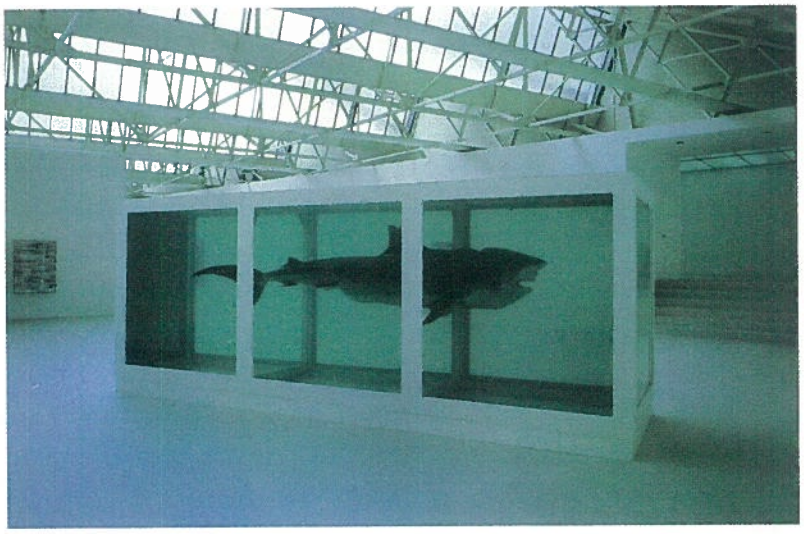
최근 미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금융 시장의 혼란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경기의 자연 조정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계속 진통제를 맞다 보면 나중에 더 큰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FRB의 금리 인하 조치와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향후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시장에 풀려나가는 돈이 다시 버블과 비효율을 낳는다면 FRB는 빠르면 내년부터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진짜 엄동설한 같은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에도 늘 부침이 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마음을 가다듬고 반성하고 준비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기 마련이다. 경기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사실에 보다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지훈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 jhl@chosun.com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0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경제부 중권팀장, 금융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경제부 데스크로 근무하며 土日 프리미엄 경제섹션 '위클리비즈(Weekly Biz)'의 에디터를 맡고 있다.



작품명 : 〈살아있는 자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작가 : 데미안 허스트 제작년도 : 1991년 재료 : 상어, 유리관, 포름알데히드 용액 5%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 갑부 예술가 속출!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라는 말은 오늘날 몇몇 작가들에게는 옛말이 됐다. 과거 대부분의 작가는 살아생전엔 배가 고팠다. 그들이 예술혼을 불사른 작품들은 죽고 난 다음 다시 평가됐다. 그래서 정작 작품을 만들었던 작가는 덕을 못 보고 그것을 소장한 사람이 횡재를 했다. 너무도 불행한 삶을 마쳤던 빈센트 반 고흐의 예가 대표적이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거장 피카소는 생전에 충분한 명성을 얻고 작품도 아주 비싸게 팔려 호사를 누렸다. 앤디 워홀은 "예술이야말로 최고의 비지니스"라고 대놓고 말했다. 그는 돈이 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실크스크린으로 대중적 이미지들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의 아틀리에는 '아트 팩토리'로 불렸다. 이런 작품 생산 방식과 스타일은 팝아트라는 미술양식의 하나가 되었고 워홀은 일약 미술사에 기록될 거장이 되어 어마어마한 부를 쌓는다.

앤디 워홀 이후 현역 작가들이 작품으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생존 작가 중 독일 출신인 게르하르트 리히터, 시그마 폴케 등의 작품은 한 점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데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2006년 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차 방문했던 리히터(1932~)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 중 팔리지 않은 것은 모두 파기시키고 본인은 한 점도 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것은 미술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자신의 작품에 희소성을 부여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다.

43살의 젊은 영국 작가 데미안 허스트도 대표적인 갑부 작가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신이 기획한 '프리즈'라는 전시에 유명 딜러와 화상들을 끌어들였다. 그들 중 영국의 거물 콜렉터인 찰스 사치라는 광고업자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작품은 포르말린에 죽은 상어가 담겨있는 대형 유리관 입체물이었다. 1991년 당시 찰스 사치는 이 작품을 1억원에 사서 2005년에 125억원에 되팔아 막대한 이득을 취했고, 현대 미술의 또 다른 성공 신화가 되었다. 콜렉터의 안목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프로모션을 잘한 작가의 작품 마케팅 능력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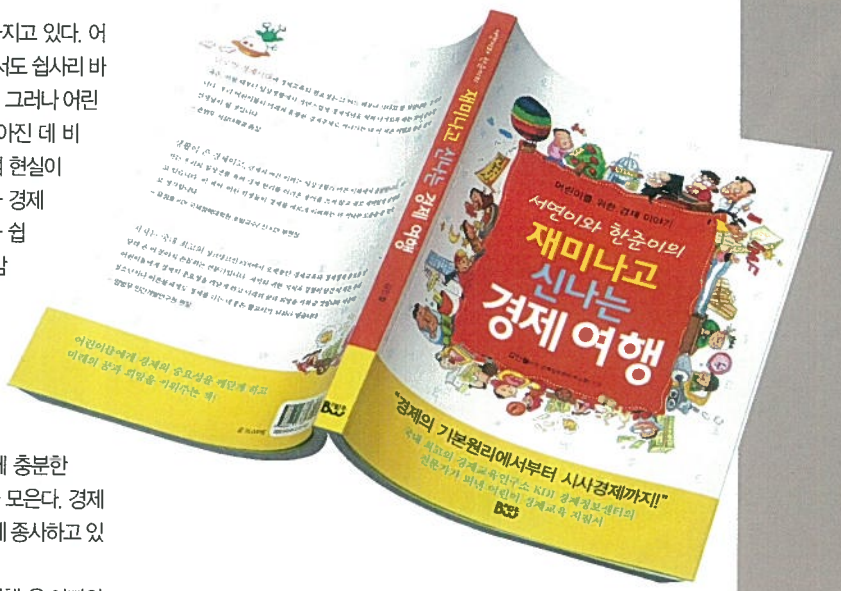
사치 같은 거물 콜렉터가 어떤 작가의 작품을 사면 그 작가의 작품은 곧바로 미술 시장의 블루칩이 된다. 따라서 작가는 금방 갑부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현대 미술시장의 스타는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미란
saykoala@naver.com
서양화를 전공하고 63갤러리에서 큐레이터를 지냈으며, 현재는 아트블루 국제부 전시기획 실장 및 엠포리아 미술 아카데미 원장으로 있다. 주로 현대미술에 관련된 기획, 마케팅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서연이와 한준이의 재미나고 신나는 경제여행

김인철 지음, 종합출판 범우 간, 241쪽, 10,000원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어릴 적에 형성된 사고체계는 성인이 되어서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열의가 높아진 데 비해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그리 충분치 못한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에게 경제의 기본원리와 경제현상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가 하면 경제교육 전문가가 사명감을 갖고 집필한 책자도 별로 없다. 경제는 어렵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을 만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번에 이러한 아쉬움들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한 어린이 경제 이야기가 책자로 출판되어 관심을 모은다. 경제교육 현장에서 후진들을 가르치면서 경제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반갑기 그지없다.

「서연이와 한준이의 재미나고 신나는 경제여행」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인 서연이와 4학년인 한준이네 한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생활 경제 이야기이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고 만나게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경제원리와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 나가는 동안 자연스레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 경제원리 편에서는 경제의 기본원리와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있고, 2부 시사경제 편에서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최근의 경제이슈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인철 KDI 경제정보센터 부소장은 오랫동안 경제정책 홍보와 경제교육 업무에 종사해 온 전문가이다. 이 책에는 저자의 전문적 소양과 경험이 녹아들어 있다.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소년 조선일보』에 5년간 '김인철 선생님의 알기 쉬운 경제'를 연재하기도 했던 저자에게서 어린이와 청소년 경제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엿보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연이와 한준이의 재미나고 신나는 경제여행」은 당시 연재물의 내용을 보완하고 다듬어서 펴낸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처럼 지금의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경제 가정교사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경제 원리와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장차 지혜롭고 미더운 경제주체로서 커나가는 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장경호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다가오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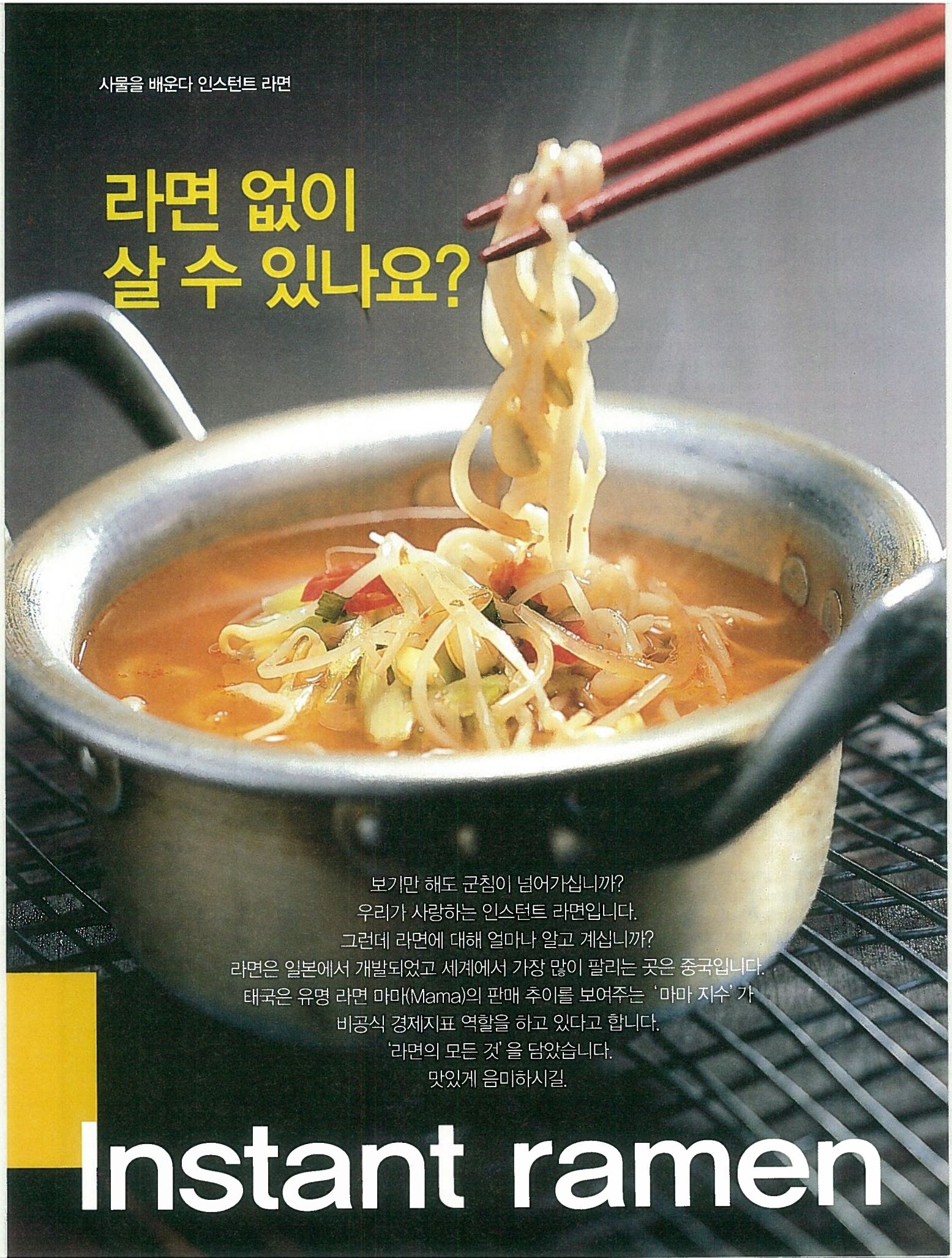
제임스 데이터 엮음, 우태정 옮김, 예문 간, 648쪽, 35,000원

앨빈 토플러, 존 나이스비트 등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미래학자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은 '학자'라 불리기는 곤란하다. 미래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잘 정리하는 저술가에 가깝다. 학문적 방법으로 미래학을 개척한 선구자는 제임스 데이터 하와이대학 미래학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1967년 앨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협회'를 만들어 미래학이란 학문을 처음으로 정립한 인물이다. 그는 '미래학의 대부'라 불린다.

데이터 교수가 엮은 '다가오는 미래(Advancing Futures)'가 최근 번역돼 출판됐다. 데이터 교수는 '미래는 과거에 있다'는 제목의 짧은 논문을 프롤로그로 내세웠다. 과거의 기술이 어떻게 인간 행동을 변화시켰는가를 잘 살피면 미래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단다. 그는 '변화의 쓰나미'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기술 발전으로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 쓰나미처럼 거대한 물결로 가속화된다는 뜻이다. 나이스비트의 '메가트렌드'와 비슷한 개념이다. 21세기 초반 수십 년 새에 변화의 쓰나미는 두드러지게 밀려올 것이란 전망이다.

고승철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라면 없이 살 수 있나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그런데 라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면은 일본에서 개발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은 중국입니다.
태국은 유명 라면 마마(Mama)의 판매 추이를 보여주는 '마마 지수'가
비공식 경제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맛있게 음미하시길.

Instant ramen

아내의 튀김요리에서 힌트

일본, 2차 대전 후 식사 대용으로 인스턴트 라면 개발

라면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 설로 나뉜다. 하나는 중일전쟁 때 일본군에게 생포당한 중국군 포로들의 짐꾸러미에서 발견된 건면에서 시작됐다는 설이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튀긴 요리가 발달해 중국 사람들은 식품을 튀기면 저장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튀긴 면이 중국 군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사용된 것은 수분이 적어 가볍고 고칼로리 식품인데다 급할 때는 끓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종전 후 일본사람들이 이 건면을 식용유지로 튀겨서 보관하기 쉽도록 포장하고 별도의 스프를 개발함으로써 라면이 되었다는 설이다.

보다 정설로 인정받는 것은 일본 자체 개발설이다. 종전 후 식량기근에 시달리던 일본은 미국에서 밀가루를 원조 받아 빵을 만들어 배급했다. 그러나 쌀을 주식으로 하던 일본 사람들에게 빵은 주식이 되지 못해 인기가 없었다. 넘쳐나는 밀가루로 맛과 보관성이 좋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스턴트식품 개발을 궁리하던 사람은 '안도 모모후꾸' 라는 사업가였다.

그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용조합이 파산해 무일푼 신세로 전락한 후 집 마당에 3평 남짓한 창고형 실험실을 짓고 라면 개발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부인이 튀김을 만드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순간 유열건조법' 으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라면이 상용화된 것은 1958년 닛신(日淸)식품이 국수에 양념을 가한 아지스케면을 '끓는 물에 2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판한 것이 효시다. 우리나라 라면의 생일은 1963년 9월 15일. 삼양식품 전중윤 사장이 일본 명성식품과 기술 제휴해 2개의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치킨라면' 을 선보였다.



일본 요코하마의 라면박물관

2년 뒤인 1965년 롯데공업(주)(현재 농심)에서 '롯데라면' 이 생산되면서 국내 라면시장은 활성화된다. 삼양식품에서 처음 나온 치킨라면의 값은 10원이었다. 즉석라면(컵라면)이 등장한 건 1971년. 개발자는 역시 안도 회장이다. 다음해 삼양식품에서도 국내최초 용기면 '컵라면' 을 출시했다. 즉석라면은 한동안 인기를 끌지 못하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세대 라면을 유탕면, 2세대 라면을 용기면이라 한다면 3세대 라면은 생면이다. 생면은 면을 기름에 튀기지 않고 4~26℃에서 숙성시켜 냉각수로 씻은 후 90℃ 이상에서 살균시킨, 수분함량 60% 수준의 차세대 라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라면은 컵라면과 튀기지 않은 생면, 기능성 라면 등을 통틀어 300여 가지에 달한다.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건면과 프리미엄 라면으로 세대교체 중

내수 정체, 아시아 북미에 눈 돌려

"가공식품은 몸에 안 좋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난해 라면시장은 사실상 거의 정체 상태였다. 시장규모가 2006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1조5천억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때문에 국내 라면업계는 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줄 새 제품을 내놓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인스턴트라면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 신제품이 20여종(PB상품 제외) 넘게 나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라면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신제품은 건면류나 몸에 좋다는 각종 재료를 함유한 프리미엄 라면류 등이 주류를 이뤘다. 건면(Non-frying Noodle)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찐 면으로 만든 제품이다. 인스턴트라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은 '건면세대', '녹두국수 봄비', '쌀국수 포들면' 등을 내놨고 삼양식품('안튀긴면', '슬림컵'), 오뚜기('컵누들')도 앞다퉈 건면제품을 선보였다.

건면류의 대표 제품인 농심 '건면세대'는 튀기지 않아 쫄깃한 면발에 지오드레이션 공법으로 생산해 원료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린 스프를 넣어 만든 용기건면이다. 농심은 이 제품생산에 40년 면 제조기술을 집약했다고 밝힐 만큼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건면세대 맛의 종류도 김치, 소고기장국은 물론이고 기존 라면류에서는 드물게 청국장, 치즈 등 건강소재를 사용했다.

침체된 시장성장률 속에서도 웰빙트렌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건면류(Non-frying)와 생면제품의 매출은 평균 20~30% 증가했다. 프리미엄라면은 면보다는 라면에 들어가는 각종 첨가물을 고급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첨가물의 종류도 다양해 기능성 원료인 베타글루칸을 비롯해 겨우살이 추출물(삼양식품의 '맛있는 라면')에 암예방 효과가 있다는 카레(오뚜기 '백세카레라면')까지 다양하다.



국내 라면시장규모는 1조 5천억원, 국내기업의 해외 라면 매출은 1억 7,500만 달러에 이른다. 사진은 중국의 신라면 배 바둑대회

이처럼 라면업계는 국내시장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웰빙트렌드에 맞춘 신제품 개발에 승부수를 거는 한편, 해외수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요 수출지역은 중국 · 일본 등 아시아지역과 북미지역이다. 특히 북미지역에 수출된 라면의 주 소비층이 초기에는 교포 위주였지만 아시아계 · 중남미계 등으로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소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LA · 뉴욕 · 시카고 지역을 주 거점으로 북서부, 중서부, 중남부, 남동부 등 미국 내 전 지역과 캐나다 전지역으로 판매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주요 라면수출기업은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등이다. 그중에서도 국내시장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농심이 해외수출에서도 두드러지게 활약하고 있다.

농심은 미국 · 중국 · 일본 · 호주 · 유럽 · 동남아 등 전세계 70여개 국가에 라면을 수출하거나 현지 생산하고 있다. 해외 라면매출(수출, 현지 생산 포함)이 2006년 1억4,7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억7,500만달러에 달했다. 농심은 올해 2억3천만달러의 해외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연간 1,300만달러어치의 라면을 미국 · 러시아 · 유럽 · 동남아 · 중동 · 중남미 등 세계 30여개 국에 수출하고 있다. 오뚜기도 연간 6백만달러 규모로 중남미 등 10여개 국에 진라면 · 오동통면 등을 팔고 있다.

해외 수출 선두주자인 농심의 라면수출 역사는 30년이 넘는다. 1971년 미국 LA지역에 라면을 수출하기 시작한 농심은 1981년 일본에 농심 해외사무소 1호인 동경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라면 종주국에 조용하게 입성했다. 그 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농심 라면이 조금씩 일본열도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래 20여년이 지난 지금, 신라면은 일본 최대 편의점업체인 세븐일레븐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2004년 5월 일본 공중파방송 도쿄TV는 신라면을 포스트잇, 청도맥주 등과 함께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선정해 저녁 뉴스시간대에 방영하기도 했다.

◆2007년 라면 신제품 출시 현황

회 사	제 품
농심	건면세대(김치, 소고기장국, 청국장, 치즈) 찌개용 사리라면, 새우탕컵, 생생야끼우동
삼양식품	슬림컵, 바지락칼국수(용기), 맛있는 라면, 맛있는 라면(큰컵, 컵), 간짬뽕, 라볶이 먹는날, 잔치국수
오뚜기	잔치국수, 백세 카레면, 컵누들 갈비탕
한국야쿠르트	장라면 고추장맛(용기), 일품 짜장면, 스포컵, 일품 해물라면소컵, 장라면 고추장맛 큰컵, 미니 왕뚜껑

농심은 중국에서도 청도 · 심양에 공장을 짓고 라면 일관 생산체제를 갖춰 신라면, 김치라면, 너구리, 신라면컵, 신라면큰사발, 상해탕면, 오룡면 등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해공장 이전작업을 시작해 올 상반기 안에 완공할 계획이다. 대지 68,967㎡, 연면적 25,664㎡ 규모로 라면제조설비 6라인을 갖췄다.

농심의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은 차별화와 고급화로 요약된다. 현재 중국 라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제품들은 모두 중국인 입맛에 맞추고 있지만, 농심은 고유의 매운맛을 고집하고 있다. 농심 최호민 부장은 "차별화 전략을 위해 매운맛을 고집하는 한편, 중국인들은 대부분 매운 것을 잘 못 먹기 때문에 광고내용도 '매운 걸 못 먹으면 사나이 대장부가 아니다' 는 것을 강조한 TV광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도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가격도 시장 최고 수준의 고가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김주영 매일경제신문 유통경제부 기자

삶고 튀기고 바쁘다 바빠!

라면 종류에 따라 밀가루의 종류와 비중, 배합수의 성분 제각각

이천에 위치한 (주)야쿠르트 라면 공장. 들어서자마자 다섯 개의 원통형 타워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얼핏 보면 라면 공장이 아니라 중화학 공장으로 착각할 정도다. 알고 보니 면의 원료인 각종 밀가루와 전분을 저장하기 위한 설비다. 유조차량 크기의 밀가루 차량에서 밀가루가 이 저장설비로 곧장 내려진다. 밀가루는 최대 100t, 전분은 최대 60t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공장 건물 가까이 가자 라면 튀기는 구수한 냄새가 났다. 매콤한 스프 냄새도 살짝 섞여 있다.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생모를 착용하고 에어샤워기를 통과해야 한다. 공장 안내를 맡은 정재훈 품질혁신팀장은 1990년에 입사해 18년간 품질을 관리해 온 베테랑이다. 각종 기계들이 빼곡한 틈새 이리저리를 빠져 나가면서 공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여러 개의 저장탱크가 있는데 세탁기 크기만한 탱크의 뚜껑을 열자 달걀노른자를 진하게 풀어놓은 것 같은 노란색 액체가 가득하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 쓰이는 배합수다. 천연색소와 소금, 기타 첨가제를 물에 섞어 만든 것이다. 제조된 배합수는 파이프라인을 따라 반죽기로 이송된다. 면의 주재료가 되는 강력분 · 중력분 · 전분 등의 원료도 탱크에서 라인을 통해 반죽기로 옮겨진다.

반죽은 한 번에 12~15분간 이뤄지는데 한 통에 라면 3천개 분량이 들어간다. 뚜껑을 열어 보니 가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문인지 물에 스프 분말을 막 넣은 것 같은 모양이다. 반죽기 안에 있는 5개의 칼날이 회전운동을 하며 반죽을 형성하는 원리다. 야쿠르트 공장에는 모두 16개의 반죽기가 있다. 투입되는 밀가루의 종류와 비중, 배합수의 성분은 라면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라면의 맛을 좌



우하는 것은 주로 스프이지만 면을 일괄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제 반죽은 8개의 롤러를 통과해야 한다. 첫 롤러를 통과할 때는 굉장히 두꺼운데 롤러 하나씩을 통과할 때마다 그 두께가 점점 얇아진다. 마지막 여덟 번째를 지나면 우리가 먹는 라면 한 가락만큼 얇아지게 된다. 롤러를 다 지나면 반죽을 꼬불꼬불한 라면가락으로 자르는 절출 과정을 거친다. 라면이 꼬불꼬불한 이유는 절출기를 통해 배출되는 면발의 속도와 이 잘라진 면발을 밑에서 받아 이동시키는 컨베이어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꼬불꼬불한 면발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모습은 장관이다.

면발을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이유는 빈틈으로 끓는 물이 잘 전달되고 열을 받는 면적도 커져 끓일 때 빨리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절출된 면발은 컨베이어를 통해 스팀박스 안에서 100℃의 열 증기로 쪄진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팀박스 근처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안경에 습기가 껴 닦아내야 했다. 이를 증숙 과정이라 하는데 증숙된 면은 일정 길이로 절단돼 비로소 라면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제 드디어 라면이 튀겨지는 순서다. 정 팀장은 "동물성 기름을 쓰지 않고 식물성 기름인 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한다. 라면 제품 크기의 면들은 유탕가마를 통과한다. 130~150℃의 온도인데 가마의 앞부분에서는125~130℃로, 가운데와 뒷부분에서는 150~152℃로 튀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반부터 온도가 너무 높으면 '퍼핑'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퍼핑'이란 면발에 펑 터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말한다.

다 튀겨진 면은 냉각터널로 이어져 냉각 과정을 거친다. 이때 상온으로 냉각시켜야 하는데 이는 포장 후 라면의 수분을 1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차가운 공기를 주입하고 뜨거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해 상온에 근접하게 식혀준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면은 완성! 반죽부터 시작해 하나의 면이 완성되기까지는 대략 25분 정도가 걸린다.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라면의 장점일 텐데 만들어지는 것도 이처럼 빨리 이루어진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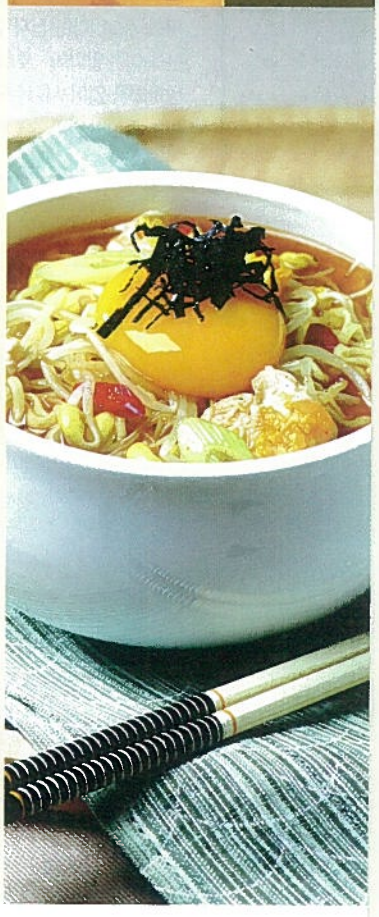
스프는 분말 스프, 액상 스프, 건더기 스프로 나뉜다. 해물 · 새우 · 치킨 등 맛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스프의 기본 원료는 약 30가지 이상이다. (주)야쿠르트의 경우 스프 원료는 협력업체에서 각각의 완제품을 받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스프 제조는 쇠고기, 간장, 핵산조미료, 포도당, 마늘, 양파 등의 주원료를 고압에서 처리한 후 진공농축, 진공건조, 분쇄공정을 거친다. 스프 원료 중 대량으로 들어가는 원료는 사이로를 통해 자동 투입되며 소량 투입 원료는 직접 저울로 재서 수동으로 투입된다.

스프 제조도 자동화기계로 이루어지는데 분말스프의 경우 30분간 스프혼합기에서 혼합 과정을 거친다. 완성된 스프는 자동 포장되는데 그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직접 들여다보고 있으니 눈이 아플 정도다. 분말 · 야채 스프는 시간당 21,000개씩, 비빔면 액체 스프는 시간당 12,000개씩 포장된다.

완성된 면이 컨베이어에서 나오면 스프가 첨부돼 자동포장기로 포장된다. 포장 공정에는 비교적 많은 직원들이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었다. 우르르 쏟아지는 라면을 보니 도대체 누가 이처럼 많은 양의 라면을 다 먹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 라면 제조기술은 일본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 세계시장 수출은 오히려 일본보다 활발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대표 식품의 목록에 이름을 올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자면 붓는 이유는 라면의 염도 때문. 국물만 마시지 않으면 크게 붓지 않는다. 정 팀장은 앞으로 라면업계가 나아갈 방향으로 염도를 낮추는 기술 개발을 꼽았다. 염도를 낮추면 유통기한이 더욱 짧아질 텐데 이 점도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길준범 나라경제 기자





ramen 6

미니인터뷰

"라면은 내 운명"



정재훈 한국야쿠르트 이천공장 품질혁신팀장

– 입사한 지는 얼마나 됐나? 주 업무는?

90년에 입사해 라면만 쭉 취급했다. 주 업무는 한마디로 라면 품질관리다. 재료가 입고될 때 유통기한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하고 성분과 미생물 등을 감사한다. 또 시식도 해서 합격한 제품만 입고한다. 물론 제조 과정의 품질도 관리한다.

– 맛있는 면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이 퍼짐성이다. 3분 안에 끓여 소비자가 먹는 시간은 대략 7분 내외인데, 그 안에 면이 퍼져버리면 식감이 떨어져 맛이 없다. 다 먹을 때까지 면이 퍼지지 않게 만드는 게 기술이고, 그중 핵심이 전분 함량과 알파화 기술이다(편집자 주 : 전분에 수분과 열을 가하면 먹기 좋은 상태가 되는데 이를 알파화 · 호화라고 한다. 쌀을 익혀 밥이 되면 알파화됐다고 한다). 알파화를 많이 시킬수록 쫄깃쫄깃해져 식감이 좋아진다. 라면 공정에서는 찌는 과정이 알파화를 위한 과정이다. 또 전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면이 쫄깃쫄깃해진다. 전분의 비율은 면마다 조금씩 다르다.

– 라면의 맛만 보고 무슨 라면인지 알 수 있나?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는 라면은?

우리 회사 제품은 구분하는데 타사 제품은 아직 잘 모르겠다. 모든 라면의 맛만 보고 무슨 라면인지 맞출 정도가 되어 '라면 달인'에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다.(웃음)

맛있는 라면은 너구리와 해물라면을 뽑겠다. 너구리는 국물이 질리지 않고 시원하다. 해물라면은 해물탕 맛을 완벽하게 재현해 해장용으로 으뜸이다.

– 라면은 자주 먹나?

매일 아침 시식한다. 생산되는 제품에서 골라 제대로 튀겨졌는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일 맛본다. 시식 말고도 일주일에 두 번은 라면을 먹고, 특히 주말에는 꼭 먹는다. 술 마신 다음 날은 반드시 라면으로 해장한다.

정리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씨티보이의 라면예찬



이른 새벽 나는 작은 배낭과 따뜻한 온수 그리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을 준비하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아직 가로등 불빛이 남아 있는 서울거리를 뒤로 하고 산 초입에 들어서선 크게 심호흡을 해본다. 그리곤 이내 산 정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며 산에서만 느끼는 정적과 폐 깊숙히 들어차는 신선한 공기를 벗삼아 오르고 또 오른다. 드디어 정상이 보이고 이내 나의 시야로 서울시내가 들어올 때쯤 배낭을 풀어 컵라면에 물을 붓는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산을 알게 되었고 그때 산 정상에서 아버지가 준비한 컵라면을 먹은 뒤론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물론 이전에도 라면을 안 먹어본 건 아니다. 집에서 끓여 먹는 라면도 맛있긴 하지만 산정상에서 맛 본 컵라면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그때부터 산을 오를 때면 꼭 라면을 준비하는 버릇이 생겼다. 산 정상에서 바람과 함께 먹는 라면은 나에겐 최고의 간식이자 별미인 것이다.

그런 인연 덕분인지 지금은 대한민국 최대의 라면 커뮤니티인 다음 까페 라면천국(99년도에 생겼으며 현재 회원수 67,655명)의 운영자이자 네이버 라면씨티(2008년 1월 17일 생겼으며 현재 회원수 1,280명)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업체의 도움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사회복지관, 외국인 근로자의 집 등을 상대로 무료 라면 급식 봉사활동도 한다.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라면의 참맛을 아는 그날까지 나의 라면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쭉~♡

한창국 34세.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음 카페 '라면천국'의 운영자로 활약 중이다.

라면 王 이야기



1 노르웨이 '라면왕' 이철호

세계 라면시장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지만, 노르웨이만큼은 예외다. '미스터 리 라면'은 노르웨이에서 연간 800만개의 매출을 올리면서 시장점유율 60%를 점하고 있다. 6·25 당시 미군부대에서 하우스 보이로 허드렛일을 하던 그는 허벅지에 파편을 맞아 큰 부상을 입게 되자 미군의 배려로 치료차 노르웨이를 방문하게 된다. 7년간 수십 차례에 걸친 수술로 어느 정도 걷게 되자 노르웨이에 남기로 결심하고 온갖 궂은일을 하며 공부를 했다. 닥치는 대로 일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고 요리사가 되었다.

노르웨이에서 라면사업을 시작한 것은 1989년. 처음엔 한국 라면을 가져다 팔기 시작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구불거리는 면발을 보고 "벌레 같다. 걸레 같다"며 냉담했다. 그러나 그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라면을 맛보여 그의 정성에 감복한 노르웨이인에게 점차 라면맛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간 갈고 닦은 요리실력을 발휘해 유럽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프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Mr. Lee라면'이 탄생한 것이다. 라면 생산은 한국의 농심사, 판매는 노르웨이의 식품회사인 TORO에서 한다. 그는 로열티로 매출액의 5%를 받는다.

2000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있었을 때 노르웨이인들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미스터 리 조국의 대통령'이라며 환영을 해주었다. 노르웨이 북부의 작은 도시 나르빅에서는 백화점 개업 기념 라면 시식행사에 참석한 '이철호'를 보기 위해 학생들이 무단으로 결석을 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노르웨이 최고의 요리사로도 이름이 높다. 유럽 요리사협회 선정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으며, '위대한 노르웨이인' 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의 경영철학은 단순하다. '첫째, 모든 비즈니스의 출발은 인간관계다. 둘째,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셋째, 정직이 최고의 상품이다'인데 순박하고 정직한 노르웨이인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었다.



2 라면 창시자 안도 모모후쿠 닛신식품 회장

안도 모모후쿠는 1910년 타이완에서 출생해 1932년 일본으로 건너간다. 47세의 나이에 이사장을 맡고 있던 신용조합이 도산하게 되자 실직자로 전락했다. 거리를 방황하던 그는 일본 정통 라면집에 줄을 선 사람들을 보고 줄서지 않고 집에서 맛있게 먹는 라면을 없을까 궁리한다. 유일한 재산으로 남아 있던 오사카 이케다시의 자택 뒤뜰에 3평 남짓한 실험실을 만들고 라면 개발에 몰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젖은 면을 어떻게 말려야 부패하지 않고 끓였을 때 원래의 부드러운 상태로 복원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던 중 아내가 일본전통 덴뿌라를 만드는 것을 보고 그는 머리가 번쩍한다. 면을 기름에 튀기면 뜨거운 기름 때문에 열 속의 수분이 다 도망가고 다시 건조된 라면에 물을 부으면 수분이 도망간 자리에 다시 물이 채워져 면이 풀어진다는 '순간 유열건조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면을 장기간 보존하면서도 원래의 부드러운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성공하면서 이어 그는 라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도 성공했다. 1958년 '치킨라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선을 보인 것이다. 그는 48세의 나이에 재기에 성공함은 물론 1971년에는 세계 최초의 컵라면 '컵누들'을 개발한다.

1999년에는 인스턴트 라면의 발견과 개발의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라면의 탄생지인 오사카의 이케다시에 라면박물관을 건립하고 세계라면협회를 창시한다. 2005년 여름에는 그가 직접 지휘하여 개발한 세계 최초의 우주식 라면 〈스페이스 라무〉를, 노구치 사토시 우주비행사가 우주정거장에서 직접 먹어보이기도 했다. 하루에 두 끼만 먹고 그중 한개는 꼭 라면을 먹었던 그는 2007년 1월 96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그의 기본 철학은 '먹는 것이 넉넉해야 세상이 평온하다'이다. 식자원이 어느 한 나라에 편중되는 것을 막아야 세상에 평화가 깃든다고 믿었던 안도는 인류의 식생활에 기여한 평화주의자였다.

이정미 나라경제 편집실 기자

라면광고 열국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부터 '카레가 라면으로 태어났어요' 까지

1985년 안성탕면의 성공으로 시장 1위에 오른 농심은 '고급 매운맛 라면'을 콘셉트로 신라면을 탄생시켰다. 당시 안성탕면이 120원, 삼양라면이 100원이었는데, 신라면은 200원.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었던 농심은 가격에서도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신라면은 출시 초기 매운맛을 해학적으로 표현해 브랜드 확립에 주력했다.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만 드세요', '사나이 대장부가 울긴 왜 울어' 등의 카피를 이용해 매운맛을 선호하는 층을 타깃으로 런칭했다. 이때 만들어진 '사나이 울리는' 슬로건이 현재까지도 브랜드처럼 활용되고 있다.

신라면은 20여년의 역사만큼이나 출연한 모델도 다양하다. 초기에는 구봉서, 강부자, 주현 등 중견배우들, 90년대는 최수종, 김용만 등을 모델로 내세웠다. 2000년대는 최민식, 송일국, 김창완 등을 출연시켜 부녀간의 익살스런 대화나 형제 간의 우애 등을 인터넷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신라면은 현재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와 중남미, 동남아시아 지역 등 해외에서도 판매되고 있고, 광고도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진출 당시의 다이어트 열풍에 편승해 소비자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었다. 매운맛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인식이 번져 매운라면은 신라면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일본 소비자들에게 어필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한 말 '만리장성에 오르지 않는 남자는 사나이 대장부가 아니다(不到長城非好漢)'를 인용해 '매운 걸 못 먹으면 사나이 대장부가 아니다'라는 카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2월 시장 탈환을 꿈꾸며 '맛있는 라면'을 출시했다. 60가지의 재료와 MSG를 첨가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건강지향성 프리미엄라면으로 개발되었다는 맛있는 라면은, 예전의 삼양라면 못지않은 대표 브랜드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삼양식품의 맛있는 라면 광고전략은 '라면보다 맛있는 라면'을 콘셉트로 단기간에 강력하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한다는 것. 이를 위해 윤도현, 김제동 등 빅모델을 활용하고, 특히 20부터 30~40대 모두에게 잘 알려진 일명 라면송(만화영화 '아기공룡 둘리' 삽입곡)을 Jingle로 활용해 TV광고를 진행 중이다.

카레로 유명한 오뚜기는 지난해 7월 백세카레면을 출시했다. 카레맛 라면은 농심과 삼양식품이 90년대 후반에 이미 출시했던 제품이지만,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아 조용히 사라진 적이 있다. 최근의 웰빙식품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카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자 오뚜기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한 것이다.

백세카레면의 광고전략은 기존의 라면들과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한다. 새로 나온 라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존 백세카레의 브랜드 연장선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광고모델도 백세카레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의사 김소형씨를 그대로 출연시키고 있으며, '카레가 라면으로 태어났어요'라는 Jingle과 '카레를 먹는 새로운 방법' 등을 카피로 활용하고 있다.





1970년대 농심라면 신문광고(사진 위). 1980년대 농심의 안성탕면 TV CF 한장면.

이윤우 나라경제 기자



공업용 우지 파동, 중국산 불량 스프, 스위스의 한국라면 수입금지까지

라면에 얽힌 사건 하나 – 공업용 우지 파동

1989년 가을, 검찰청에 익명의 투서가 접수된다. 내용은 '라면을 공업용 우지(牛脂 : 쇠기름)로 튀긴다'는 것이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3일 삼양식품에서 공업용 우지를 사용했다고 발표하고 삼양라면 전중윤 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삼양식품 측은 "우지를 라면에 사용한 것은 20년 전부터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분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수입 · 정제해 식용우지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서 추천했기에 사용했으며 팜유에 비해 우지 수입비용이 훨씬 비싸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 역시 "비식용 유지를 수입한 것은 분명히 위법이지만, 이를 정제하여 생산한 라면은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와 달리 TV · 신문 · 라디오에서는 연일 공업용 우지의 해악과 삼양라면에 불신감을 조성할 수 있는 뉴스를 대대적으로 다뤘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삼양라면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삼양식품은 이 사태로 100만 박스 이상의 라면을 폐기 처분하고 3천여명의 직원 중 1천여명이 이직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었다. 일순간에 불량식품으로 낙인찍혀 국내시장을 잃은 것은 물론, 해외 수출 길도 막혀버렸다. 60%였던 시장점유율도 이 사건 직후 곤두박질쳐 90년대 초까지 수백억원의 적자를 냈다. 1997년 대법원에서 삼양라면의 무죄가 확정됐지만 삼양라면은 아직까지 우지파동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적 지식 없는 검찰의 일방적 발표와 이에 합세한 언론의 공격이 빚어낸, 삼양라면 측으로는 억울하고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1989년 11월 한 슈퍼마켓 직원이 공업용 우지파동으로 문제가 된 삼양라면을 반품하기 위해 진열대에서 내리고 있다.



라면에 얽힌 사건 둘 – 중국산 불량 라면스프

무역업체인 한일농산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 중국산 김치 38,320kg를 수입했다. 이 김치는 중간공급업체인 미담터에 제공됐고, 미담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재포장했다. 미담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를 제공받은 대성농수산은 컵라면에 들어가는 스프의 일종인 '동결건조 김치'로 만들어 삼양식품의 자회사인 삼양농수산에 납품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프는 '수타면 큰냄비'와 '김치 용기면'에 각각 14만개와 30만개가 사용됐다. 대성농수산은 이 스프를 고속도로 휴게실에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양식품 측은 유통 중이던 컵라면 44만개를 모두 수거해 폐기했다. 삼양은 우지파동에 이은 중국산 건더기 스프 파동으로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라면에 얽힌 사건 셋 – 한국산 라면 수입금지 조치

라면은 수출액도 많고 수출대상 국가수도 많으나 이는 대부분 현지에 사는 우리 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이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였다. 스위스인들은 비싼 가격에도 한국 라면만을 고집할 정도로 한국산 라면을 좋아했다.

스위스 최대의 유통업체인 Migros사는 592개에 달하는 자사 유통망을 통해 스위스 전역에 한국산 라면을 판매해 연간 매출액이 250만스위스프랑(약 2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03년 6월 한국산 라면은 판매금지를 당한다. 이유는 라면스프 살균시 방사선을 조사(照射)했다는 것. 스위스 식품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방사선 조사된 식품류의 경우 스위스보건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식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겉포장에 '방사선이 조사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한국산 라면 파동 이후 Migro사는 즉각 한국산 라면 판매를 중단했으며, 빠른 시일 내 새로운 라면을 공급하겠다는 팻말을 라면진열대에 붙여 놓았다. 이전까지 Migros사는 한국산 라면을, 경쟁사인 Coop사는 일본산 라면을 취급해 왔는데 이제는 스위스 전역에서 일본산 라면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황당한 것은 일본산 라면의 이름이 김치라면(KIMCHI RAMEN)이며, 더욱 어이없는 것은 '한국 기무치'를 사용했다고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미 나라경제 기자

ramen 10

면을 중시하는 일본, 편의성을 강조하는 중국

태국 라면, 양 적고 바짝 튀겨

현재 인스턴트 라면의 최대 소비국은 중국이다. 2006년 기준 442억 6천만개가 팔려 전 세계 소비량의 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124억개), 일본(54억3천만개), 미국(39억개), 한국(34억개) 순이다. 1인당 소비량 면에선 한국이 75개로 단연 1위다.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독일 · 영국 등에서도 라면이 팔리고 있으며 1990년대 식량원조 프로그램 이후 북한에도 라면이 유입됐다.

동양권에서 라면이 잘 팔리는 이유는 국수문화권에 속해 있고 거기에 젓가락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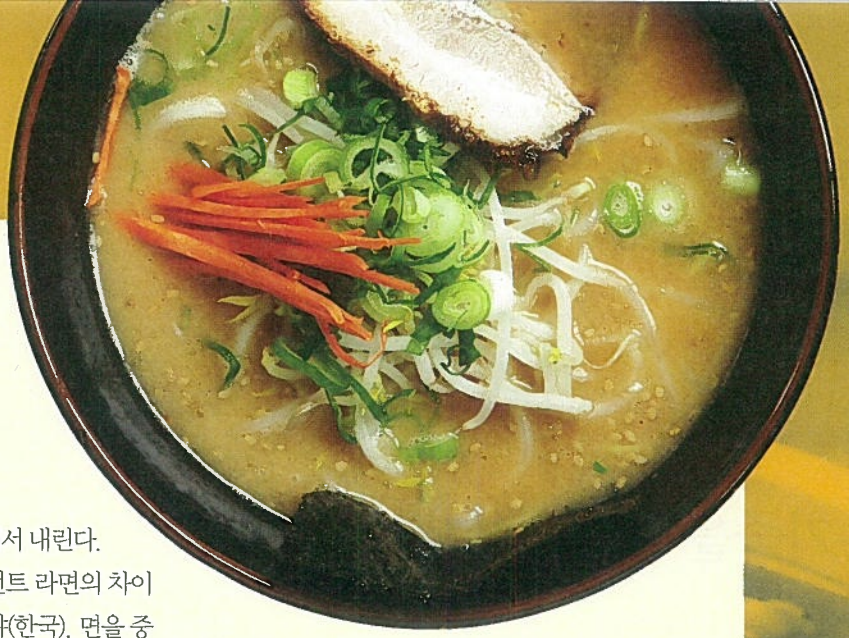
일본, 인스탄트 라멘

일본에서 말하는 라면은 한국과 조금 다르다. 일본에서 라면이라고 하면 주로 생라면(면을 튀기지 않고 국물이나 건더기들도 전부 인스턴트가 아닌 잘 요리된 라면)을 일컫는다. 우리가 말하는 라면을 일본에서는 '인스탄트 라멘' 이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컵라면(또는 즉석 라면)은 일본에서도 '컵라멘' 이라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인스탄트 라면을 끓이는 기본적인 방법이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은 물을 끓인다→ 라면, 건더기를 넣는다→ 다 끓은 면을 불에서 내린다→ 스프를 넣어서 잘 섞어 먹는다. 우리나라는 물을 끓인다→ 라면, 스프, 건더기



일본 도쿄 쇼핑거리의 라멘가게 규슈장가라



를 넣는다→잘 저어 끓인 후 불에서 내린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의 차이점은 스프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한국),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일본)이다. 일본의 인스탄트 라면 스프는 간장맛, 된장맛, 소금맛이 전부다. 닛신의 치킨면과 마루찬의 라임맛 새우라면 등이 인기지만, 생라면만큼 인기를 얻지는 못한다.

라면 발매 첫 해인 1956년엔 1,300만개가 소비되었고 40년이 흐른 2006년엔 54억3천만개가 소비되었다. 인스턴트 라면 시장은 냉동식품 시장에 밀려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2006년에는 전년보다 2.5% 줄어든 53억5천만개 생산에 그쳤다. 컵라면 가격은 개당 150~200엔(1엔 한화 876원) 선이다.

중국, 팡비엔미엔(方便麵)

중국의 라면은 우리나라처럼 끓여서 먹는다기보다는 컵라면 형식이다. 차를 마시던 습관 때문인지 언제어디서나 준비돼 있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불려 먹는 것이다. 신라면이 중국에 라면을 판매할 때 수퍼마켓에서 라면 진열대가 아닌 국수 진열대에 진열돼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선 끓여서 먹는 건 라면이 아니고 국수라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중국라면에는 우리나라 비빔면에서나 볼 수 있는 '액상소스'가 첨가되어 있어 입맛에 따라 넣어 먹는다.

한편 우리나라 컵라면의 경우 동그란 면이 한 개만 들어 있지만 중국 컵라면은 면이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점유율은 캉스푸(康師傅)가 40%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통이(統一), 화룽(華龍)이 뒤를 잇는다. 캉스푸가 연간 90억개의 라면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밀가루는 60만톤, 쇠고기는 8천톤에 달한다. 봉지라면은 2위안(1위안 한화 132원), 일반 컵라면 가격은 4.2~4.5위안이다. 해물라면, 소고기라면, 도라지라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라면은 연간 440억봉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한다.

태국, 마마(MAMA)

태국의 인스턴트 라면시장은 100억바트로 추정된다. 마마(mama)는 이 중 55%를 차지할 만큼 큰 라면 회사 상표이다. 그러다 보니 보편적으로 마마하면 태국식 라면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다. 태국의 권위 있는 민간연구소인 카시콘 연구센터(KRC)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유가로 소비자들의 지출 습관이 크게 영향을 받으면 많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값이 싼 라면류 등의 식품에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태국의 일간 네이션지는 '마마지수'가 태국의 비공식 경제지표로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현재 태국에는 한 봉지에 5바트짜리에서(1바트 한화 33.5원) 12바트, 25바트짜리 라면이 팔리고 있다. 방콕과 지방 대도시 근로자의 한끼 식사비는 30~40바트 선이다. 우리나라 라면이 보통 124g인 반면 5바트 하는 태국 라면은 60g 정도로 양이 매우 적다. 태국 라면은 바짝 튀겨져 있어 한국 라면에 비해 짧은 시간에 요리가 가능하다. 맛은 짜고 매우며 특유의 동남아시아 향기가 있다. 태국인들은 라면을 조금 깊은 접시에 놓고 스프를 위에 얹은 후 뜨거운 물을 뿌려서 먹는다.

이정미 나라경제 기자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상지대 총장

대담 :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때 : 2008년 2월 14일 낮 3시
곳 : 원주 상지대 총장실



"改革은 가죽을 생으로 벗기는 거지"

김서령 : 김대중 정부 시절 2년 5개월 간 농림부 장관직을 맡았다. 이동장관실을 103회나 열었다던데 그건 어떤 건가? 산하기관과 산하단체라는 개념 대신 협력기관과 협력단체로 바꿔놓은 장본인이라는 말도 들었다. 친환경농업, 신지식농업인, e-농정개념을 도입했다고도 하던데?

김성훈 : 조직의 계통상 장관에게 보고되는 민원은 전체의 20% 뿐이다. 80%는 밑에서 다 사라진다. 장관에게 올라와도 거의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나기 일쑤다. IMF 직후였으니 젖소, 돼지, 양계 농가가 하나같이 어려웠다. 그러니 농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해결할 게 많았다. 민원은 세 가지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할 것,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것.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결론을 내려줬다. 이동장관실에서 민원 596건을 해결했다.

그게 폭발직전에 있던 농민들의 불평불만, 자포자기를 많이 달래줬다. 이동장관실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강요할 수 없다. 평일엔 청사에서 공식업무를 보고 토 · 일요일에 열어야 하는데 그걸 나같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말고 누가 하겠나. 2년 6개월간 주말마다 두세 군데씩 다녔다. 집사람은 날더러 간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하.

김서령 : 그 기간 동안 생니가 7개나 빠져나갔다는 게 사실인가? 얼마나 힘이 들었길래?

출장에 집사람 동행하면 경비는 내 돈 낸다. 그런 태도가 여기저기 전염되면 좋으련만…. 다들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나랏돈 아끼겠단 생각 안하더라.

김성훈 : 장관 맡고 농조(농지개량조합)와 농조연합회와 농촌진흥공사를 통폐합하고 수십년간 농민을 울려온 수세를 폐지했다. 저항이 말도 못하게 심했다.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니 꼭 나같은 팔자 눈썹에 곤색 양복 입은 인형을 태우고 있더라. 가만 보니 딱 나더라. 기분 참 묘하데. 그러나 바꿔 생각하기로 했다. 어려서 점쟁이가 날더러 단명할 팔자라 했는데 '저렇게 욕하고 태우기까지 하니 오래 살겠구나' 싶더라.

농협 · 축협 · 인삼조합 통합할 때는 더 심했다. 축협 회장이 배를 째며 덤벼들었고 집에 협박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외출할 땐 경위 무사들이 내 곁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통폐합 바람에 농협 금리 18%를 6%로 내릴 수 있었고 조합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 와중에 이가 네다섯 개 빠져나가더라. 풍치지. 솟아올라 덜렁덜렁했다. 임기 끝난 후 고향에서 4H운동 같이하던 양반 막내아들한테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지. 입안에 에쿠스 한대를 물고 산다고 자랑한다. 하하.

김서령 : IMF 이후 농림부 구조조정의 원



칙은 무엇이었나? 한솥밥 먹던 인원을 줄인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김성훈 : 중앙기구는 기획과 정책입안을 하고 실천은 산하기관에서 해야 하는 건데 농림부에 갔더니 아직도 중앙부처에 업자가 들락거리더라.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못하도록 기능을 이양시키고 기구를 정비했다. 농산물유통공사 · 농업진흥공사 인원을 각각 19%, 15% 줄이고 통합했다. 아래 직원만 자르고 위는 그대로 두면 말썽이 생긴다. 난 위에서부터 잘랐다. 차관보 하나와 국장 넷을 먼저 잘랐다. 타이피스트 같은 기능직은 같은 직급끼리 투표해서 구조조정 시켰다. 다 가정 있고 자식 있는 사람들인데 투표시키려니 마음이 참 안 좋더라.

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 개혁(改革)이란 글자가 '고칠 개' '가죽 혁' 아니냐. 가죽을 벗기는 거니 어려운 게 당연하지. 민주사회에서 개혁은 생사람을 놓고 가죽을 벗기는 거다.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항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우군이 필요하다. 수요자가 편을 들어줘야 한다. 둘째 언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언론에서 여론을 형성해줘야 한다.

셋째 국회의 힘이 필요하다. 내가 재직할 때 37개 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김기춘 국회 법사위 법률소위원장에게 몹시 고맙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이었지만 당리당략에 따르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며 조금씩 손질은 했지만 다 통과시켜 주더라. 넷째 대통령과 청와대 등 힘있는 부서에서 도와줘야 한다. 대통령이 관심 가지면 부서는 따라온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죽어도 깨끗해야 한다"는 거다. 밥 한 그릇도 얻어먹어선 안 된다. 명절 때 과일 한 알도 받아선 안 된다. 장관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그래야 한다.



김서령 : 그런 개혁을 이뤄냈으니 참 장하다. 김 총장 재직 중엔 유달리 사건도 많았던 것 같다. 유사 이래 가장 큰 산불에 구제역 파동 등등…. 그건 어떻게 극복했나.

김성훈 : 서해안엔 구제역 터지고 동해안엔 큰 산불이 동시에 났다. 백두대간이 다 타지 않았나. 산불은 고성부터 울진까지, 구제역은 파주에서 홍성까지. 장관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으면 행정이라고 생각 안한다. 밥은 아예 굶고, 경찰청 헬리콥터 타고 여기저기 다녔다. 불시착도 두어 번 했고 밥을 못먹어 장관실에서 링거도 두 번 맞았다. 새벽 다섯 시에 대통령이 전화하면 항상 현장에서 받았다. 욕을 하려 해도 그 시간에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나. 하하.

김서령 :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표가 반려된 적 있나.

김성훈 : 하도 힘들어서 1999년 9월에 사표를 냈다. "같이 개혁하자 해놓고 자기만 빠져나가면 되겠냐"며 노기 띤 음성으로 대통령이 전화를 했더라. 할 수 없어 뜻을 접었다. 조합 통폐합 끝낸 후엔 이가 다 빠져 밥도 못 먹고 자장면은 후루룩 넘겼다. 하루는 중국집 주인이 전화했더라. 장관님이 와서 먹으니 다른 하급직원들이 못 온다고 호소를 하더라. 그래서 아 이젠 뭐 자장면 집에서도 오지 말래고 내가 갈 곳은 한 군데, 집밖에 없구나 하고 다시 사표를 냈지.

그때 총리가 이한동씨였는데 "나 이거 결재 못 올린다. 한광옥 비서실장에게 직접 내라" 하더라. 직접 한실장에게 가서 의치를 보여줬더니 비서실장이 "나도 내 이 아니다" 하면서 아래 위 의치를 쫙쫙 빼서 보여주더라(정말 기막히는 대목이다. 정부 개혁을 시도한다는 건 이렇게 힘드는 일이었다. 퇴임 후 그는 전남도지사 경선 권유를 뿌리치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로 떠났다).

김서령 : 검소한 장관으로도 유명했다. 안종운 전 농림부차관은 농업관료 모아놓고 "김성훈 장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배웠다. 농민을 섬기는 게 무언지 알았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더라. 힘들지만 보람도 컸을 것 같다.

김성훈 : 지금도 농민들이 강의해달라고 요청한다. 한 달에 두세 번꼴로 학교 일정이 허락하는 한 간다. "수많은 농림장관을 겪었지만 기억나는 사람은 김성훈뿐이다" 라는 말을 공식 · 비공식적으로 들었다. 그럴 때면 '나의 진정성이 통했구나' 싶어 기쁘다. 출장 때 장관은 퍼스트 클래스 타라지만 난 늘 비즈니스 클래스 탔다. 호텔도 스위트룸 주면 거절한다.

입학식 때 학부모에게 편지를 쓰면서 '매발톱' 이란 야생화 씨앗을 동봉한다. 당신의 자식을 천리를 보는 매의 눈으로, 목표를 세우면 바로 낚아채는 매발톱으로 가르치겠다는 뜻이다.

FAO 총회 때도 만찬참석 외엔 부인이 할 일이 없는데 집사람 뭐하러 데려가나. 해외출장 갈 때마다 4~5천달러씩 돌려받았다. 학교에 와서도 똑같다. 출장에 집사람 동행하면 경비는 내 돈 낸다. 그런 태도가 여기저기 전염되면 좋으련만…. 다들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나랏돈 아끼겠단 생각 안하더라. 그러니 전염될 리 있나. 나만 별종되는 거지.

김서령 : 상지대가 좋아졌다는 소문이다. 지원율이 7대1에 등록률 100%, 취업률 78%라는데 대학운영에 무슨 비결이 있나?

김성훈 : 취임하고 원칙으로 세운 것이 두 가지다. 첫째가 학생 제일주의, 둘째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학교가 되자는 것이었다. 멘토 제도를 운영해 교수 1명이 학생 10명을 졸업과 취업, 가능하면 결혼 때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학교의 행정력과 서비스를 학생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피나는 구조조정을 했다.

김서령 : 야생화, 산나물 등을 수천 종 재배하고 조개껍데기도 수집했다고 들었다.

김성훈 : 내가 워낙 그런 데 관심이 많다. 일찍부터 유기농 운동을 시작했고 토종 농산물과 식물을 사랑했다. 1966년에 미 국무성 장학생으로 뽑혔다. 유학길에 올라 남들은 조개를 먹는데 나는 조개껍질 줍고 다녀 4,300종을 수집했다. 고향 목포 자연사박물관에 조가비, 꽃돌, 각종 공예품들, 수정, 상아를 기증했다. 거기에 '농훈 김성훈 기증품 실' 이 있다. 나 대신 다 관리를 해 주니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할아버지 · 아버지 때부터 모으던 산수화 · 글씨들은 중앙대 부총장할 때 안성캠퍼스에 기증했다. 농림부장관 할 때 받은 것들은 수원의 농림 연수원에 기증했다. 상지대에는 그간 애지중지 수집한 러시아의 공훈화가 슈벡코 그림을 18점 기증할 생각이다. 그거 기증하는 날이 내가 여기 떠나는 날이다. 한번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좋아서 모았지만 누가 관리하겠나.

입학식 때 학부모에게 편지를 쓰면서 '매발톱' 이란 야생화 씨앗을 동봉한다. 당신의 자식을 천리를 보는 매의 눈으로, 목표를 세우면 바로 낚아채는 매발톱으로 가르치겠다는 뜻이다.

김서령 : 다들 금연하는데, 아직도 담배를 피우신다?

김성훈 : IMF때 봉화 엽연초 생산 농가를 방문했다. 그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다. 그분들께 "난 아무것도 못 도와드린다. 대신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담배를 피우겠다" 고 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피운다. 상지대 총장으로 왔더니 원주 엽연초 조합장이 와서 나 담배 피우는지 확인하더라. "아직도 도라지 피우냐" 면서 "도라지는 독하니 이거 피우라" 고 갖다주더라(그는 가느다란 순을 피운다).

김서령 : 이력이 아주 흥미진진하다. 별의별 게 다 있더라. 내셔널트러스트 운동본부 공동대표, 벤처농대 명예학장, 고구려연구재단 감사, 섬학회 회장, 진도군 홍보대사, 장보고상 심사위원장, 겨레의 숲 운동 공동대표, 그중 홍천군 남면 명동리 이장고문직은 특히 눈에 띄더라. 그건 뭔가?

김성훈 : 이동장관실 할 때 그 지역 농민들이 수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유기농만 하면 딴 지역 예산이라도 빼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유기농을 했더니 그 동네 강에 피라미 살고 쉬리가 냇가로 튀어오르고 백로가 다시 날아왔다. 모두들 유기농의 성과에 놀라 나를 이장고문도 시켜 주고 기념패까지 주드라. 하하 지금도 이장 고문 노릇하러 종종 간다.

김서령 : 10년 전 장관 당시와 지금의 농촌은 굉장히 달라졌다. 우리 농업의 문제점과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나?

김성훈 : 나 이전엔 정부 공식 입장이 유기농 반대 쪽이었다. 유기농 하시던 분 빨갱이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힘들었다. 내가 취임하면서 친환경유기농업 원년을 선포했다. 농민에게 소득 보전하고 인증제 실시하고. 나를 유기농의 세계로 이끈 분은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다. 유기농은 으레 어려운 건줄 알았는데 박경리 선생이 유기농 농사짓는 걸 보고 자극을 받아 정농회 활동을 시작했다. 농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농촌이 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김서령 :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도 맡으시던데?

김성훈 : 대한민국 묘지면적은 주택면적의 반이다. 매해 20만기의 묘가 새로 생긴다. 이러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땅싸움이 일어날 지경이다. 내 생각은 죽어서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말자는 거다. 한 나무에 다섯 명은 묻을 수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관리가 되면 무덤이 숲이 될 게 아니냐. 나무에 팻말 하나 걸고 이름과 ID 적어놓으면, 궁금하면 컴퓨터 열어 찾아볼 거 아니냐.

김서령 : 다방면의 호기심과 철저하게 파고드는 공부와 성찰이 감동적이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나?

김성훈 : 내게 주어진 일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무슨 일을 맡겨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다. 닥친 일 다 하고 이제 적당히 즐겨야겠다는 맘이 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여기도 임기 4년이지만 뭐 꼭 임기 채울 거 있나. 떠날 시기를 궁리하고 있다.

김서령 : 일흔이 멀지 않았다. 이젠 좀 즐기기도 해야지 평생 일만 하시냐.

김성훈 : 내 천성이 가라오케 운동이다. 내 돈 내고 다니며 운동하는 게 좋다. 다시 가서 내셔널트러스트와 경실련 운동하며 사회봉사 하는 자체가 즐거움이다.

김서령 : 어린 시절 술찌게미를 먹고 살아 키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고 들었다. 지금 보니 총장님 키는 작지도 않은데? 마지막으로 묻자. 성공적인 삶이란 게 뭔가?

김성훈 : 166센티니 작지 뭘. 우리 집이 4형제인데 키순서는 거꾸로다. 막내가 보사부장관 했던 김성호인데 그 사람이 가장 크다. 하하. 갖고 싶은 게 적은 것이 진정한 부요 만족이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평화가 온다. 나는 지금 엄청난 부자다. 정년퇴임하고 연금 나오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남들과 나누면서 살면 바로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다.

정리 **이정미** 나라경제 기자 사진 **이찬원**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기자

김두얼 박사의 경제사 이야기

왕으로 살기, 양반보다 힘들다?

조선 국왕 평균 수명은 46세, 양반은 55세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통치자는 법과 제도가 규정한 임기 동안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종신직이었던 전근대 사회 왕들의 임기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다. 즉 정치적 변고가 없는 한 왕의 통치 연한은 대개 몇 살에 왕위에 올랐고 언제 수명을 다하는가에 따라 규정되었다. 과연 조선시대 왕의 재임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조선시대 스물일곱 왕들은 평균 1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그림 1〉 참조). 그런데 이는 52년간 왕좌에 있었던 영조나 40여 년간 왕위를 유지한 숙종·고종·선조처럼 오랜 기간 권좌에 있던 몇몇 왕들의 재임기간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중위수(median: 27명의 왕을 재임기간이 짧은 왕부터 긴 왕까지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14번째 왕의 임기)를 계산해 보면 대략 15년으로 평균값보다 4년 정도 짧다.

그런데 많은 왕들은 즉위를 한 뒤에도 성인이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섭정이나 수렴청정 기간을 가져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을 배제하고 스스로 왕 노릇을 한 기간으로 재임기간을 계산해 보면 평균값은 17.6년, 중위수는 14.0년이 된다. 결국 조선시대 왕의 평균 통치 연한을 가장 잘 반영하는 값은 14년 정도가 아닐까 싶다.

14년은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인 5년보다 약 세 배 가까이 긴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일단 즉위하고 나면 평생을 왕위에 있을 수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의외로 짧은 기간이다. 예를 들어 왕세자가 25세에 왕위에 오를 경우, 40세경이면 왕위에서 내려왔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과연 재위기간이 이처럼 짧았던 것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왕위에 오를 수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왕들이 삶을 다하기 전에 일찍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서였을까? 혹은 왕들의 수명이 짧아서였을까?

우선 왕위에 오른 평균 나이를 살펴보면 등극이 늦어서 재위기간이 짧았던 것은 아닌 듯하다. 태조가 50세, 정종이 41세에 왕위에 올랐지만 이는 왕조 초기에 있었던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고 대부분의 왕들은 30세 이전에 등극했기 때문이다(〈그림 2〉 참조). 왕위에 오른 나이의 평균값은 약 24세, 중위수는 약 21세였다.

재임기간이 14년에 머문 것은 왕들이 왕좌에서 일찍 내려와야 했기 때문이다. 왕위를 내준 것은 생전에 정치적인 이유로 왕위를 이양하는 경우와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왕위를 마치는 두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왕들이 일곱 명 있다. 태조 이성계와 정종은 건국 초기의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생전에 왕위를 승계했다. 단종은 허명뿐인 왕좌에 3년간 머무르다 세조에게 왕위를 계승한 뒤 약 1년 만에 유배지에서 어린 나이에 생을 마쳤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신하들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났다. 둘 다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연산군은 왕위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는데 비해 광해군은 18년이나 더 살다 죽어서 대조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고종과 순종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탓에 왕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의 어진(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1〉 조선시대 왕의 재위 기간



위를 내어 놓아야 했다.

하지만 나머지 20명의 왕들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왕위를 유지했다. 앞서 살펴본 평균 재임기간과 즉위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대개 40세 초반에 생을 마감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조선시대 왕의 평균수명은 46세였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평균수명의 분포 양상이다(〈그림 3〉 참조). 평균이 46세였지만, 27명의 왕 가운데 40대에 수명을 다한 경우는 정조와 순조 2명뿐이었다. 오히려 분포를 보면 30대와 50대에 쌍봉을 이루는 양상으로 분포되어 있다. 조선시대 왕들은 마흔을 넘기지 못하고 수를 다한 경우와 쉰 이상을 산 경우로 반분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두 집단의 평균 재임기간은 각각 10년과 25년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문종·경종·예종·인종 등 우리에게 낯선 임금들이 바로 전자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임금들인데, 결국 왕들의 짧은 수명이 재위기간을 낮춘 원인이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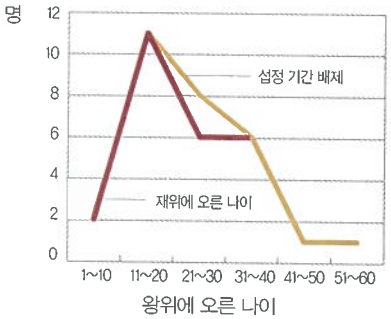
왕의 재위기간과 평균수명에 대한 이상과 같은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 족보를 이용해 조선 후기 사람들의 평균수명을 추정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양반 남성의 평균수명은 대략 55세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왕들의 평균수명이 일반 사대부들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다소 낮았음을 의미한다. 왕은 섭식이나 생활환경 측면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대부들보다 오래 살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왕들 중 절반은 마흔이 채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야 했다.

왕은 섭식이나 생활환경 측면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대부들보다 오래 살지 못했다. 왕이라는 직책이 주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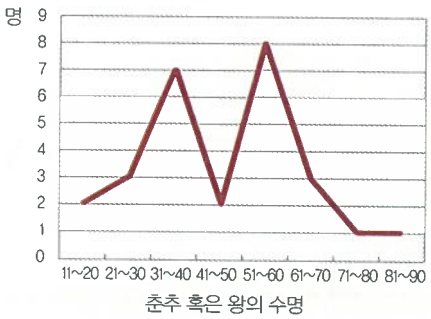
왕이라는 직책이 주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까. 조선왕실 전체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을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의 생애 주기는 조선시대 왕들과는 매우 다르다. 박정희 대통령은 40대 중반에 대통령에 올랐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고 대부분은 50~60대, 이승만,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70대에 대통령직에 올랐다. 또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임기 중 생을 마친 경우는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가 장 짧은 5년을 살았을 뿐 윤보선 · 최규하 대통령 등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30년 가까운 삶을 살았으며 전두환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들은 모두 생존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을 고려해 볼 때,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도 20~30년을 사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사관들에 의해 업적을 평가 받았던 조선시대 왕들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임기간에 대한 세인들의 평가를 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난 달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5년 뒤 퇴임 후에도 자랑스럽게 자신의 임기를 되돌아보고 모든 국민들이 이 기간을 좋은 시기로 평가할 수 있도록 훌륭한 정책을 펼치기를 기원한다.

〈그림2〉 조선시대 왕들이 왕위에 오른 나이



〈그림3〉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





김두얼 KDI 연구위원.
duolkim@kdi.re.kr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제도와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파생상품이 위기에 빠진 날'

포트녹스의 금괴를 방출할까? 소금동굴에 가둬둔 전략비축유를 방출할까?

연초부터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서브프라임 부실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뿐 아니라 이제는 유럽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인도까지 사정권에 들어 비틀거리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전혀 예견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서브프라임의 여파는 하나의 사례일 뿐 파생상품의 본질상 언젠가는 곪아 터져야 할 일이 터진 것뿐이다.

좀 과장해서 생각하면 지구상의 인류가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던 1차 산업 시대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늘 이런 종류의 문제에 부닥쳐야 할 운명을 지고 있다. 2차 산업의 시대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생산력의 증대는 그만큼의 '잉여가치'를 선물했다. 하지만 '잉여'는 문자 그대로 소비할 수 없는(혹은 하고 남은) 찌꺼기일 뿐이다.

2차 산업의 잉여(찌꺼기)가 넘쳐나면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간 것은 그 점에서 인류의 또 하나의 진화일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의 잉여는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VVIP에게 제공하는 콘시어지 서비스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듯 3차 산업의 잉여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복합적이다.

돈 역시 그렇다. 선진국에서 2차 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설비와 장치들이 감가상각을 끝낸 시점부터 내기 시작한 거대한 이익은 막대한 자본축적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장치들은 진보된 기술과 최소비용의 상승작용으로 신흥국에서 다시 세워졌다. 하지만 자본의 실제 주인은 다름 아닌 선진국의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쌓아 올린 막대한 '잉여(화폐)'를 자산으로 '환입(換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가 아닌 새로운 가치기준이 필요했다. 주식 · 땅 · 금 · 석유 · 구리 · 미술로는 잉여재화의 가치환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금융시장은(3차 산업은) 제3의 대상자산을 발굴했다. 늘어난 화폐를 감당할 새로운 환입수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이 '실물자산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한다'는 고전적 정의는 그야말로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무한의 부, 무한의 화폐가 '태환(兌換)'의 길을 열게 된 것이다. 부는 불가사리처럼 증식한다. 그것은 스스로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생존을 위한 진화를 거듭한다. 하지만 암세포가 유전자의 통제를 벗어나 무한 증식함으로써 결국 숙주(宿主)와 함께 자살(自殺)의 길을 걷듯 구체적인 실물로 환입될 수 없는 태환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점에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위기는 암세포의 증식과 사멸과정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파생상품의 신용위기를 경고한 워렌 버핏의 혜안은 금융 시스템의 이해를 넘어 다분히 철학적이다.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어떻게 해소가 가능할까? 문제를 알면 해법은 단순하다. 먼저 거시적으로 보면 과잉 축척된 잉여가 소멸되던지,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태환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뿐이다.

전자를 선택하면 자폭으로 마무리될 것이지만, 후자의 길을 선택하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우주개발이나, 지하세계의 멘틀과 같은 자원을 개발하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돈 스스로 과잉증식을 억제하려는 유전자의 지배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시적인 부분을 보면 우선 당장 해결의 연결고리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상상력이고 한편의 공상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자가 쓰려고 하는 영화의 시나리오는 터무니없고, 황당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좋겠다.

우선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



30억~150억 배럴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멕시코만의 초대형 유전 '잭2'

자. 문제는 지극히 단순하다. 이 문제는 금융기관의 부실담보대출이다. 세계경영을 외치는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한 한국의 은행이나, 부동산 가격의 무한 상승 시나리오를 믿고 가계에 대출한 미국은행이나 오십보백보일 뿐 본질은 하나다. 다만 한국은 달러화 표시 부채를 갚을 방법이 없었고, 그 상황에서 달러를 추가차입하기 위해서 달러 보유국의 요구를 들어야 했지만, 미국은 달러 발행국이다.

'아직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미국정부가 달러를 찍어 은행이나 모노라인(채권보증회사)에 기관대출을 하던지, 아니면 출자전환(공적자금 투입)을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씨티은행이 11%의 이율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부도직전' 이라는 의미다. 중국의 국부펀드들이 무모하게 금융투자에 나섰지만, 이미 그들은 블랙스톤에서만 40~50%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만약 씨티은행의 부도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중동이나 중화자본들이 미국의 손실에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오히려 서로 먼저 배에서 내리기 위한 경쟁으로 바뀔 뿐 실현 불가능한 낭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씨티은행의 부도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중동이나 중화자본들이 미국의 손실에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오히려 서로 먼저 배에서 내리기 위한 경쟁으로 바뀔 뿐 실현 불가능한 낭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방법은 하나다. 해결의 궁극은 미국 중앙은행, 혹은 정부의 개입뿐이다.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귀어진(同歸於盡)하던지, 수모를 견디던지 둘 중 하나만 남았다. 다만 그 경우 '달러가치의 하락' 과 재정부양에 의한 '인플레이션' 등은 치명적인 2차 파국을 몰고 올 것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마 후자를 선택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상상은 무엇일까? 미국은 실체적 힘과 자산을 보유한 나라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종이로 돈을 찍는 것' 이상의 '실체적인 방안'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수단은 '포트녹스(Fort Konx, 연방의 금괴보관소)' 에 들어 있는 엄청난 금괴를 방출하고, 멕시코만의 소금동굴에 가둬 둔 7억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무제한 방출하는 방법뿐이다.

전자는 발행된 달러를 재정부담 없이 회수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후자는 석유가격에 기생하는 투기거래자들에게 일격을 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가장 치명적인 유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중동 산유국들의 반발과 비협조는 의외의 문제를 낳을 공산도 크다.

만약 산유국들이 전략비축유 방출에 대립각을 세우며 감산이나 새로운 카르텔을 시도할 경우 양자간의 싸움은 지정학적 위험까지 불러오는 대립으로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렴된다. 지금 유가나 원자재 가격에 끼어 있는 거품요인들은 반대의 모멘텀이 제공될 경우, 순식간에 투기자본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전쟁의 승부는 미국 쪽에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세계경제를 흔들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은 전세계 금융가들에게 파생거래의 위험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진 세계경제는 다시 자기 갈 길을 향해 달려 갈 것이다. 다만 이 영화의 엔딩은 미국이라는 거인이 석양을 등지고 서서 저 멀리 동쪽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무리지어 달려오는 새로운 영주들을 무기력하게 쳐다보며 고개를 떨구는 장면으로 마무리될 예정인데, 이 영화가 제대로 무대 위에 올려질지는 필자도 전혀 자신이 없다.



박경철 dondonsu@naver.com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경제방송 진행자, 증권사에서 투자를 가리키는 애널리스트, 방문객 3백만을 넘어선 블로그 운영자, 안동 신세계연합병원의 외과의사이다. 최근 네 번째 에세이집 〈착한 인생, 당신에게 배웁니다〉를 출간했다.



스타크래프트, 해리포터, 슬램덩크. 이름만 들어도 신나고 통쾌하다. 이들이 없었으면 이 황폐한 세상, 무슨 낙으로 버텼을꼬. 이제는 상상력이 돈이 되는 시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상의 힘을 들여다보자.

특별기획

상상력이 돈이다!

학생 때만 해도 소설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이야기가 어느 사이엔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영화 · 드라마 · 애니메이션 · 게임 같은 영상산업에 시나리오가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상품 광고에서 제품 소개보다는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주가 되는가 하면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의 상품에는 어김없이 출생의 '비밀'이 회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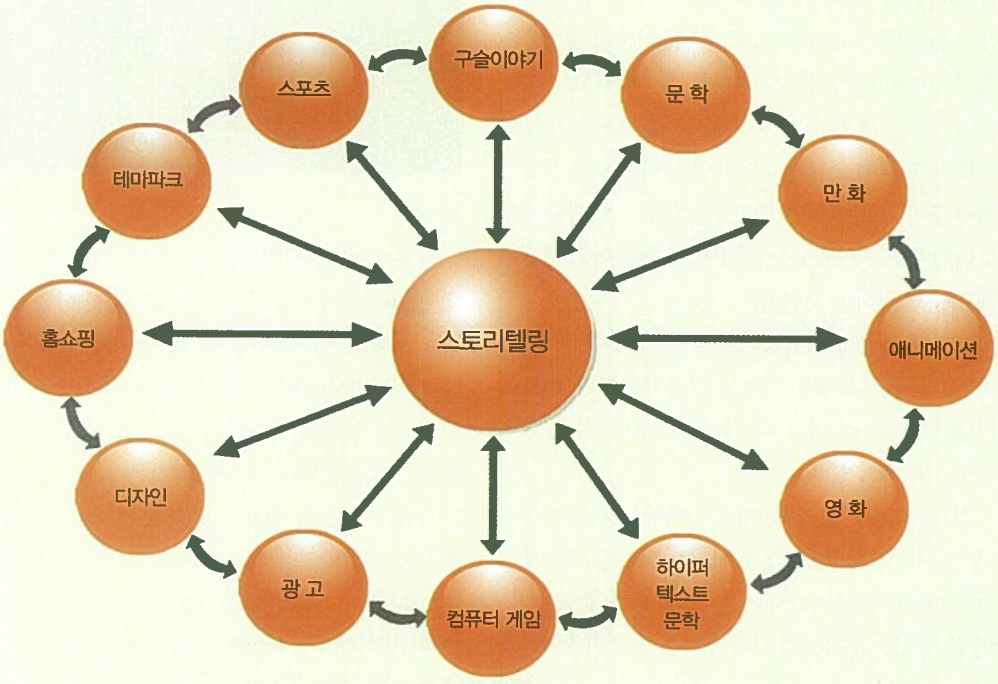
스토리텔링에 주목하라

발렌타인데이 같은 온갖 기념일이 정해지고 그 이야기에 맞는 상품이 팔리는 것 또한 묘하다. 심지어 B형 남자는 바람둥이라는 둥 혈액형 이야기까지 등장해 영화 · 상품 · 드라마 · 광고의 소재가 되고 있다. 선거의 홍보용 홈페이지에는 후보자의 살아온 이야기가 감성적 필치로 펼쳐지고 그에 따른 UCC가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부상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야기가 종이책을 뛰쳐나와 세상 곳곳에서 숨을 쉬게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감성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정보통신의 발달이 큰 힘을 발휘했다. 인터넷 공동체가 감성의 공동체이며 기술 발달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불확실한 미래를 감각적인 꿈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문자가 이성적이라면 영상은 감성적 · 직관적 감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상성이 확장될수록 현대인들은 영상 세계의 감각적 속성, 놀이적 속성을 공간에 적용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현대 산업에서 오락의 요소가 커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놀이'는 우리가 참여하여 만드는 이야기이다.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문화 공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물질을 산출하는 방식보다 기호를 산출하는 방식이 많아지면서 상품의 미학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고, 스토리텔링은 그 미학적 가치의 핵심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야기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먼저 떨쳐버려야 할 선입관은 이야기를 문학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근대는 인쇄매체의 발달과 보조를 같이해 탄생했다. 책이 대량으로 생산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시민계급이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문학은 근대의 가장 중요한 지식 습득



스토리텔링의 '원 소스 멀티 유즈' 방식 (최혜실,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2006)

수단이었던 책을 매체로 탄생한 강력한 스토리텔링이었다.

이야기 통해 과학과 역사적 지식 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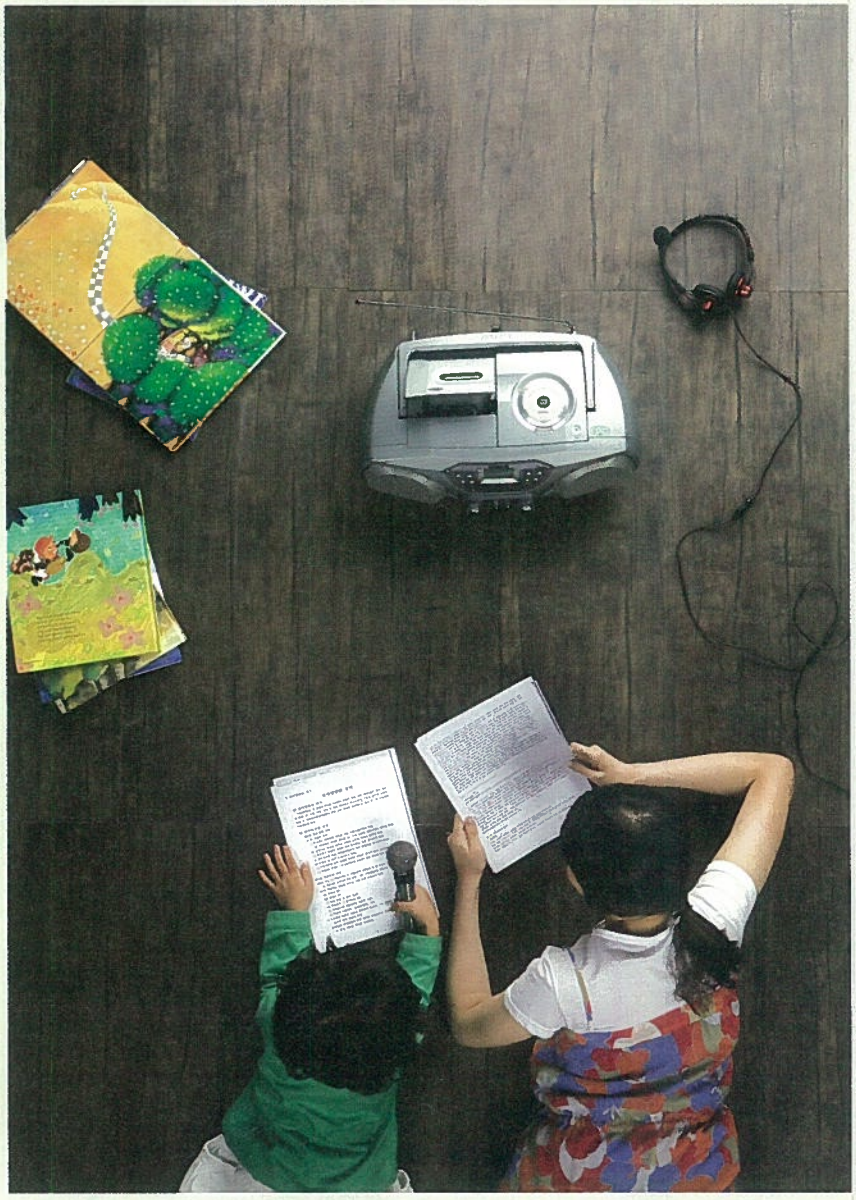
원래 이야기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에 둘러싸여 살게 된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우고 과학자의 이야기나 위인들의 생애에서 과학과 역사적 지식을 습득한다. 성경이나 불경도 이야기로 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과 기억을 이야기로 다른 사람 앞에서 풀어낸다.

이처럼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고정적이고 단일한 대상이 아니라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는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자아는 시간과 장소, 환경에 따라 변모하며 다중적이고 분열적이다.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이 주체의 분열을 정리하고 단일화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사회적 해석들을 취하고 하나의 독특한 삶의 이야기로 짜감으로써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문학이나 게임,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들이 난관을 해결하면서 자신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삶을 대리 체험한다. 구체적인 인물과 배경을 지닌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 삶의 지표를 찾게 한다. 그런데 서사(敍事), 이야기, 스토리, 담론(discourse) 등의 말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야기하기' 라고 번역하기도 어색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란 용어가 최근에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스토리텔링이란 용어가 디지털 시대 이야기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은 'story' 와 'tell' 그리고 '-ing' 의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이야기' 란 인쇄매체 시대에는 주로 이야기되어진 것을 의미했다. 작가가 이야기를 써서 책으로 출판하면 과거완료의 것, 즉 이야기되어진 것이 된다. 이는 문자문화 시대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구연동화를 녹음하고 있다.

둘째, 'tell' 은 말한다, 혹은 정보를 준다는 원래 의미 외에 시각 · 촉각은 물론 후각 같은 다른 감각까지 포함하는 다매체를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가 인쇄매체보다 멀티미디어로 제작되고 소비되는 상황에서 이야기에 문자적 요소보다 다매체적 요소가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셋째, '-ing' 는 현재 상황의 공유, 그에 따른 상호작용성을 의미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화상 화면을 통해 상호작용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는 구연자와 청취자가 같은

맥락 속에 포함되는 구술 시대의 상황과 일치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서 말한다면 스토리텔링이란 정보통신의 발달로 멀티미디어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매체의 특성상 놀이성과 감성적 측면이 늘어나 이야기성, 현장성, 상호작용성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무엇인가? 스토리텔링의 한 분야이나 디지털 매체에서의 서사행위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의 세 가지 특성을 가장 잘 지니고 있는 21세기의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형태라고 보면 된다.

재능있는 시나리오 작가 개발 노력 필요

그런데 매체의 컨버전스 시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다른 영역으로 문화콘텐츠는 확장되었다. 텍스트 콘텐츠(출판 · 신문 · 잡지 · 출판문화), 디지털 이전의 비텍스트 콘텐츠(공예품 · 미술품 · 공연), 시청각 콘텐츠(방송 · 영상 · 광고 · 영화 · 비디오 · 음반), 디지털 콘텐츠(애니메이션 · 게임 · 디지털 · 모바일)로 나뉘는데, 이들 장르의 원활한 소통과 교섭은 부가가치 창출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한 예가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링이란 문학 · 만화 · 애니메이션 · 영화 · 게임 · 광고 · 디자인 · 홈쇼핑 · 테마파크 · 스포츠 등의 이야기 장르를 아우르는 상위범주이다. 상위와 하위, 각각의 이야기 장르들은 서로 미학적 영향관계 속에 있다.

여기서 스토리텔링은 서사 형식의 원형질로 존재한다. 따라서 각각의 장르들은 스토리텔링이란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매체의 특성 때문에 형식상의 차이를 띠게 된다. 예를 들어 이야기가 종이 매체에서 표현될 경우 문학이 되고, 영상 매체에서 표현될 경우 영화가 되며, 디지털 매체에서 표현될 경우 게임 등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된다.

이제 하나의 스토리텔링은 다른 매체로 옮겨 가면서 매체변주를 하게 되고 새로운 표현방식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 자체가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를 대변하며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매체의 콘텐츠로 변주되면서 문화상품을 양산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징을 보여준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중 OSMU가 가장 고르고 다양하게 된 작품이 〈아기공룡 둘리〉라고 한다. 1983년 어린이 잡지인 〈보물섬〉에 연재되면서 시작된 〈둘리〉는 1985년 롯데삼강 '둘리바'로 개발되었고 학용품 · 장난감 · 만화 단행본 ·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또한 극장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장르에도 진출했으며 2003년에는 둘리 박물관, 둘리 거리, 둘리 미용실까지 등장했다.

이렇게 한 장르가 성공했을 때 다른 장르로 활용 · 개발되는 것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특성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매체 장르에 맞게 각색하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원 장르와 활용될 장르의 매체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아는 재능있는 시나리오 작가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화 〈아기공룡 둘리〉.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중 원 소스 멀티 유즈가 가장 다양하게 된 작품으로 꼽힌다.



최혜실 경희대 국문과 교수
choi4626@khu.ac.kr 디지털 시대의 문학에 대해 가장 먼저 연구해 온 학자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연구의 1인자다. 지은 책으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한류문화의 스토리텔링〉 등이 있다.

방영 중인 드라마 〈쾌도 홍길동〉은 흔히 기대하는 홍길동 이미지를 철저하게 배반한다. 다양한 문화기호들이 퓨전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볼거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명랑 퓨전 사극? 영상의 상상력이 진화한다

명랑 만화적 상상력이 진중한 소설적 텍스트에 결합하고 있다. 또한 문화기호들의 융합공간이 된다. 동서양의 다양한 패션과 장신구, 소품들이 조선의 공간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오공의 소품이나 무협지에서나 등장하는 여성 고수 캐릭터에 골프와 자동차, 그리고 색안경이 은유적으로 등장하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진지한 텍스트적 민중혁명론을 내세웠던 〈장길산〉이나 〈신돈〉이 주목받지 못했던 것과 비교된다.

새로운 영상적 상상력이 장르와 시간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세대에게 주목받고 있다. 〈쾌걸춘향〉은 평균 시청률 23.8%를 기록하며, 10대 여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눈에 띄는 톱스타도 없고 해외 로케도 없었던 이 작품이 성공했던 것은 고전 춘향전의 인물과 설정을 현대극으로 잘 변화시킨 상상력 덕택이었다.

계속 미드가 유행이다. 그중 메디컬 요소는 한국 드라마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미드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외과의사 봉달희〉는 정과 휴머니즘을 다양한 인간군상과 함께 멜로로 변주해냈다. 〈하얀거탑〉은 조직 권력을 둘러싼 현대인들의 처절한 쟁투기로 차별화시켰으며, 〈뉴하트〉는 이 두 드라마의 장점들을 취해 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해냈다.

최근 경성 바람이 영상을 주름잡고 있다. 경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일제 시기라는 점이다. 일제 시기 하면 일제의 침략으로 암울한 분위기 아니면 거꾸로 독립군의 투쟁을 떠올린다. 민족적인, 진지한 이미지를 넣지 않으면 연출자는 매국노가 되기 일쑤다. 그러나 영화 〈원스어폰어타임〉은 투쟁과 저항이 아니라 보물찾기를 다룬다. 1940년대를 배경으로 잃어버린 석굴암의 보석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영화는 주성치와 성룡 영화에 인디아나 존스를 버무린 상상력을 보여준다. 일제 통치기간을 인간의 욕망을 읽어내고 그것을 유쾌 액션으로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 〈경성스캔들〉이 독립 투쟁의 관점에서 서사 전개를 하는 것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원스어폰어타임〉은 할리우드와 홍콩 영화가 이국적인 문화기호로 한 편의 영화에 버무려졌고 그것은 문자적 기호가 아니라 영상 기호들의 융합에 다름 아니다. EBS 〈지식채널e〉는 사실적 다큐멘터리를 사실적 상상력으로 뛰어넘고 있다.

"상상력이야말로 창조의 출발점"

단 5분 만에 인간과 세계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함축한다. 어떤 방대한 다큐보다 대중적 영향력은 폭발적이었다. 인터넷 영상물은 대개 5분 안쪽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식채널e〉 현상은 영상의 상상력이 지닌 호흡이 이제 5분 안에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공길에 대한 기록은 실록의 기사 몇 줄에 불과하다. '임금은 임금답게 처신해야 한다' 고 연산에게 간언한 배우 공길은 불경하다며 귀향을 보냈다는 내용이 전부다. 영화 〈왕의 남자〉가 흥행하면서 출판사는 대박을 맞았다. 전에는 연극이 잘나가도 쳐다보지 않던 연극 대본이 날개돋힌 듯 팔렸다. 〈왕의 남자〉를 본 관객은 1,230만명, 역대 관객 랭킹 2위다. 생산유발액 1,350억원, 연간 1,800명의 일자리, NF소나타 2,951대를 생산한 것과 같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40억원의 제작비의 영화가 수십 배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만들어낸 핵심에는 상상력이 있었다. 그것도 문자적 상상력이 아니라 영상적 상상력이었다.



미드 : 미국 드라마의 줄임말로, 케이블 TV 채널을 통해 들어온 미국 드라마들이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네티즌들이 만든 신조어. 대표적인 미드로는 X파일, 프렌즈, 섹스 앤 시티, 프리즌 브레이크, CSI과학수사대 등이 있다.





영화 〈왕의 남자〉와 〈반지의 제왕〉의 한 장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고안한 이론의 밑바탕에는 상상력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니 다른 창작 영역에서 상상력의 중요성이야 말할 것이 없겠다. 버나드 쇼는 상상력이야말로 창조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버나드 쇼가 말한 상상력은 소설적 상상력이 아닐까. 이제 문화콘텐츠의 상상력은 영상적 상상력에 종착된다. 영화 〈쥬라기 공원〉 효과는 상상력의 효과다. 미래학자 롤프 옌센(Rolf Jensen)은 이렇게 말했다.

"디즈니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천 가지 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팔아 엄청난 이윤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상상력으로 재탄생한 영상 콘텐츠들이다. 2006년 월트디즈니의 매출은 총 353억 달러였는데 이는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인텔(315억 달러)을 추월한 액수다. 최근 4년간(2004~2007) 마이크로소프트의 순이익 증가율은 18%였지만 월트 디즈니는 41.4%였다. 성공 비결은 영상적인 문법에 철저하게 충실한 것이다.

이제 소설적 상상력을 영상적 상상력으로 옮기는 작업이 매우 중요해졌다. 예컨대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1954)은 세계적으로 1억부 이상 팔렸고,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29억달러를 벌었다. 이 사례를 보면 문자로 된 원작 즉 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상작품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화 〈나니아연대기〉, 〈황금나침반〉, 〈베오울프〉 등이 유명한 원작을 바탕으로 했지만 재미를 보진 못했다.

얼마 전 개봉했던 〈나는 전설이다〉도 원작에 한참 못 미친다는 혹평을 받았다. 요즘 '원소스 멀티유스'에 따라서 많은 소설 · 만화들이 영상화되지만 성공하는 작품은 많지 않다. 예컨대, 인터넷 인기 작가 강풀 만화를 영화로 만들어도 결과는 썩 좋지는 않다. 영상적 상상력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책은 상상력의 기본이라고 한다. 책을 읽지 않는 세대에게 질타를 가하기 일쑤다. 그런데 앞으로 신세대는 문자가 아니라 영상으로 상상한다. 단순히 이야기의 시대가 아니라 영상 이야기의 시대다. 단순히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아니라 영상적 스토리텔링의 시대다. 영상으로 꿈꾸고 상상하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것이다.



김헌식 문화평론가 codesss@hanmail.net
문화와 사회 그리고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많고 이를 움직이는 대중 문화 심리를 주목하고 있다. 저서로 〈대중문화 심리로 본 한국사회〉, 〈대중문화 심리읽기〉 등이 있다.

$E=mc^2$. 상상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이 공식을 떠올린다. 나는 이 공식을 대할 때마다 가슴 한 편이 먹먹해지곤 한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감상일지 모르나 나는 이 공식이 어떤 엄청난 운명론적 법칙과 궤를 같이한다고 믿고 있다.

소설 밖에서 소설을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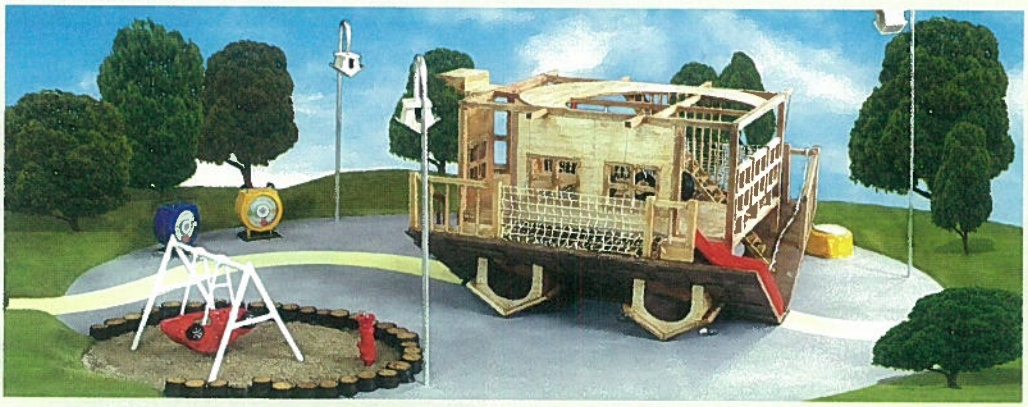


'해리 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을 읽고 있는 영국의 어린이들

그건 단순히 이과 계열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 존재와 맞닿아 있는 철학적 인식이라는 철석같은 믿음이다. 이 공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다. 이 작은 문자와 기호의 조합으로 인류는 이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끔찍한 원자폭탄도 만들었고 텔레비전 음극선과 새로운 에너지원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선사시대 예술의 역사를 말해주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역시 이 공식으로 인해 가능해졌다.

지난 20세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이 공식에 많은 부분 빚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빚은 계속 늘어갈 것이다. 이 공식을 창조해낸 아인슈타인의 위대성은,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질량과 빛의 관계를 에너지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질과 연결시킨 데 있다. 이질적인 것들이 실상은 서로 닮아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인식,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인식이 아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지금 이 글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 한 장 안에는 지구를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이 숨어 있다고 한다.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섬유질과 잉크의 혼합물인 이 종이에, c^2에 해당하는 속도(그러니까 448,900,000,000,000,000 mph)만 가해질 수 있다면, 이 종이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닌 인류 최후의 폭탄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종이가 종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종이 자신의 에너지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인식하고 상상해낸 것이다. 남들과 다른 상상으로 이 세계 도처에 감추어져 있던 진



현대프로젝트 AG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도록
고안한 거꾸로 놀이터

실을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바라본 것이다.

상상력이란 그런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 우리 시대에 낯선 발명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은 오직 발견뿐. 이제까지 찾아내지 못했거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처음으로 찾아내는 것뿐. 상대성이론은 아인슈타인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다. 그것은 우라늄도 마찬가지이고 전기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누가 우라늄에서 방사능을 발견하고 누가 전기에서 양과 음의 전하를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발견뿐

그리고 그것들의 발견은 늘 엉뚱하고 이질적인 곳에서, 낯선 곳에서부터 찾아온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낯선 것에서 비슷한 것을 발견해내는 힘. 소설을 쓸 때, 나는 가급적 소설을 읽지 않으려 노력한다. '소' 자로 시작되는 그 무엇도 가까운 곳에 두지 않으려 노력한다(그러니까 소주, 소고기, 소음, 소면, 소세지 같은 것들). 그리고 되도록 그것들과 거리가 먼, 요리나 법전, 여행, 배구나 육아, 천문학에 관련된 책들을 집중해서 읽는다. 소설을 읽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소설을 읽고 쓴 소설들은 소설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클래식이 대중들과 거리가 멀어진 이유는 클래식이 클래식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비단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장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다. 영화도, 소설도, 연극도, 모두 세월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다. 영화의 상상력이 영화 안에서만 머물 때 우리는 '영화답다'라고 말을 한다.

소설의 상상력이 소설 내부로만 집중될 때 우리는 '소설답다'라는 말을 한다. 그것이 영화의 경계를 한정시키고 소설의 철책을 확고하게 만들어줄지 모르나 한계 또한 명쾌하게 그어버린다. 위기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장르의 내부로 깊이 깊이 침잠할수록, 소외는 필연이고 상상력은 '자폐화' 되고 만다. 요리나 지도책을 오래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뜻하지 않은 드라마들이 우르르, 떼를 지어 몰려오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그것은 법전이나 육아책을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것들은 모두 사실에 기초해서 씌어진 것들이지만 그 행간에 놓인 것들은 나에게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스파게티든, 아욱된장국이든, 과실치사든, 애정결핍이든 어느 것 하나 인간과 세계 사이 가느다란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아욱된장국과 88만원 세대를 연결시키는 것, 스파게티와 범죄자를 한 줄로 이어 만드는 것, 과실치사와 근현대사를 한 카테고리 안에 교차시키는 것, 애정결핍에서부터 판타지를 출발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상상력의 원천이다. 도무지 나는 문학이 문학다울 때가 제일 답답하게 여겨지니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이기호 소설가 90402201@hanmail.net
1999년 현대문학 단편소설 〈버니〉로 등단했다. 소설집 〈최순덕 성령충만기〉,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를 출간했다. 고3 시절 여자에게 작업 거느라 쓴 4백통 넘는 편지가 '창작'의 시작. 글 쓸 때 축구 유니폼 즐겨 입는다. 육아(育兒)와 첼로 초심자.

상상이 마음대로 실현되는 공간을 생각하면 게임이 떠오른다. 용을 타고 하늘을 날기도 하고 세상을 뒤흔들 마법을 부릴 수도 있다. 머나먼 미래, 별들 사이를 날아다니거나 아득한 과거의 어딘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잘 놀아야 잘 만든다

보다 현실적인 것도 가능하다. 이미 사라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상과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이전에 했던 많은 잘못들을 이번만큼은 범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본다고 자랑하던 영화의 한 장면마저도 게임에서는 어렵지 않은 경험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탄하곤 한다. 놀랍지 않은가, 상상이 실현되는 이 놀라운 게임 세계라는 것이. 그리고 묻게 된다. 모든 상상이 실현되는 세계를 만든다니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상상을 하는 사람, 어떤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인가? 특히 어느 나라 누구보다 딱딱하고 각박한 삶에 시달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정신없을 정도의 스피드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까지 여겨진다.

그래서 이제 이 상상력이라는 도깨비 방망이에 대한 탐색 작전이 시작된다.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겠지만 이런 작전의 결과는 '못 찾겠다' 이다. 게임을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꼼꼼하게 재보고, 단지 기획서로만 있는 것을 치밀하게 연상해보고, 수많은 버그와 게이머의 예상외 행동에 맞서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성실함이 더 우선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상상을 할 것이라고 엿본 순간, 그들은 지루한 반복 작업을 참아내는 성실함을 보여줄 뿐이다.

'암묵지' 니 '창조 자산' 이니 아무리 이름을 붙여봐도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묘한 역설 아닌가? 꿈꾸는 모든 상상이 실현되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은 정작 상상력 대신 성실함이 요구된다니 말이다. 그렇다면 게임 제작자들은 게이머들이 꿈꾸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어딘가 상상이라는 놈이 위치할 장소가 있을 텐데 말이다. 우선 시장조사 같은 무미건조한 대답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을 인터뷰하고 목록으로 만들고 연령대별 · 성별로 철저하게 분석해 가장 큰 시장을 목표로 게임을 만든다.



컴퓨터 게임 〈스타크래프트2〉의 화면

상상이 실현되는 놀라운 게임의 세계

분석되고 정리된 상상에 대해선 이미 존재하는 소설 · 영화 · TV · 만화 등의 이미지를 잘 조합하고 정리해서 비슷하게 만든다. 이런 과정으로 게임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꿈이 현실로 실현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임들은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말로야 될 것 같지만 게이머들은 현명하게 짜깁기로 만든 가짜를 구분할 줄 안다. 우리가 흔히 게임이라 부르는 컴퓨터 게임이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놀이의 형태라는 건 쉽게 이해된다.





온라인 게임에 열중해 있는 게이머들

보드 게임, 펜슬 앤 페이퍼 롤 플레잉 게임, 워 게임, 파티 게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놀이 형태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컴퓨터로 옮겨져 우리를 사로잡는다. 디지털이라는 형태에서 새로운 특징과 제약들이 생겨나긴 하지만 여전히 놀이인 이상 놀이의 일반적 특성은 게임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놀이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놀이가 현실 세계에도 상상의 세계에도 모두 발을 걸친다는 점이다. 아동 놀이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위니캇은 스누피의 캐릭터인 '라이너스'가 들고 다니던 담요를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한다. 라이너스는 담요를 안고 다니지만 그에겐 담요인 동시에 곁에 없는 엄마라는 것이다. 그래서 담요에 얼굴을 비비는 것이 라이너스에겐 엄마 품에 비비는 것과 마찬가지다. 외부의 대상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자신만의 무언가로 만드는 능력이 놀이인 셈이다.

한 번 생각해 보자. 아주 어린 시절 보자기를 목에 걸면 슈퍼맨, 손수건을 머리에 쓰면 바다를 주름잡는 해적이 되던 기억 말이다. 어렸던 우리는 슈퍼맨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슈퍼맨 그 자신이었다. 위니캇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힘이 문화 창조의 원천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세계에 있는 외적 법칙을 연구하고 따르는 것이 과학이라면 이 외적 법칙을 자기 식으로 상상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라보는 힘이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사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 노는 사람이다. 잘 놀고 놀이가 무엇인지 풍부하게 경험한 사람이다. 놀이에는 우리들이 지니는 보편적인 상상의 힘이 들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된다는 이유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놀이로부터 떠나갈 때, 그래서 어떤 상상력도 필요치 않는 어른들만의 놀이로 돌아설 때,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놀이를 즐거워하며 기꺼이 새로운 놀이를 배우고 즐기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 놀이를 아주 꼼꼼하게 게임으로 바꾸게 된다.

게임에 감탄하고 눈이 휘둥그레져 개발자의 상상력을 찾아봐야 보이지 않는 이유다. 어떤 놀라운 힘이 아니라, 놀이 속에서 우리 몸에 유지되고 자연스럽게 머무르는 것이 게임을 만드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놀이가 보다 풍부한 게임을 만들고, 나아가 보다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상상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머물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 성장할 뿐이다. 비법도 별다른 재능도 없다. 놀 줄 아는 것만으로 게임이 가진 놀라운 상상은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상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박상우 게임평론가 sugy@madordead.com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 빵집 테이블에서 시작한 게임 라이프. 그 출발은 미약했지만, 게임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밝히겠다는 창대한 가치를 꿈꾼다.

요즘 공연예술 분야에서 뮤지컬의 인기가 대단하다. 그러나 뮤지컬 산업의 급성장이 반드시 분홍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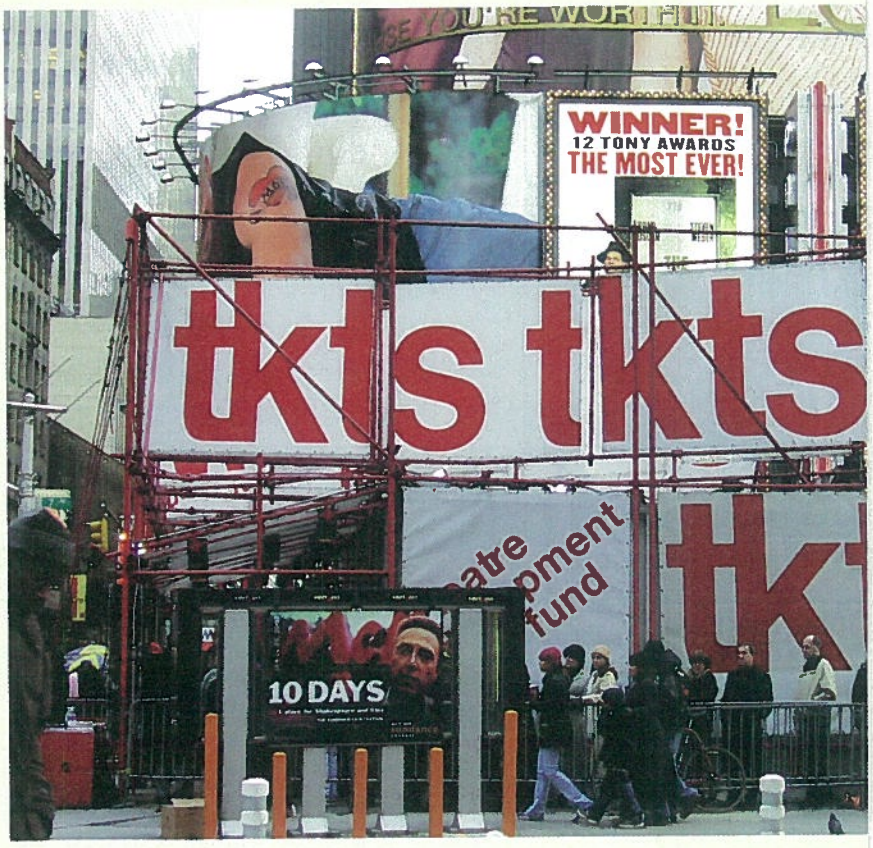
뮤지컬 신화 계속 되려면…

대형화 · 고급화 일로를 걷고 있는 작금의 뮤지컬계는 대중문화로서 시장의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관객들에게 '편식이 심한 문화소비' 만을 부추기고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객의 형성보다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고급문화 소비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기도 한다.

창작 뮤지컬에 이르면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우리식 감성과 기호를 반영한 '물건' 의 등장은 뮤지컬계의 오랜 숙원이건만 아직 마음에 흡족한 작품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시장의 이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고민은 더 깊어진다. 2006년 한국뮤지컬협회 조사에 의하면, 라이선스 뮤지컬은 약 62%가 500석 이상에, 투어 뮤지컬은 세 개에 두 작품 꼴로 1,0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막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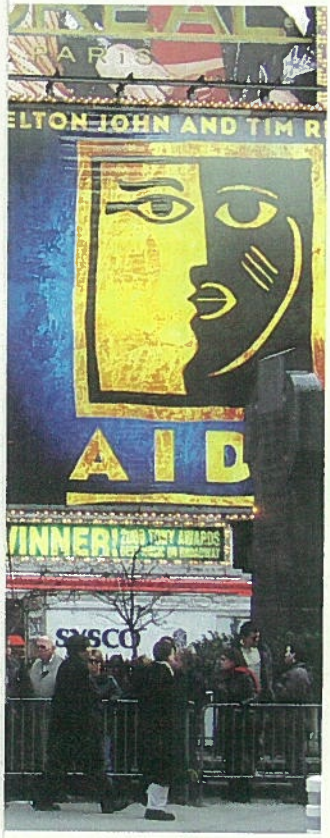
반면 창작 뮤지컬은 78%가 500석 미만에서 상연됐으며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38편은 200석 미만 극장에 올려졌다. 아직 공식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뮤지컬 작품 수가 180여 편으로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이 같은 편중현상은 더욱 심화됐다는 주장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대형 극장에는 수입 뮤지컬이, 소형 무대에는 창작 뮤지컬이 집중되는 문화소비의 '편식' 이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좋은 작품을 빚어내기 위해서는 천재의 등장 못지않게 과정에 대한 꼼꼼한 배려와 환경의 조성이 수반돼야 한다. 감이 익어서 떨어지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가지도 쳐주고 비료도 주는 환경과 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작품의 뼈대야 예술가에 의해 창조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바탕이 되는 '토양' 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는 전문 공연장의 부재다. 서울 시내에 이미 대형 공연장들이 여럿 존재하는데 또 무슨 극장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는 전문 공연장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해 생긴 잘못된 인식이다. 뮤지컬 전용극장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기능을 충족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 42번가에 있는 대형 뮤지컬 광고판

먼저 장기공연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처럼 '오픈 런' 이 가능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마니아들 사이에는 새로운 뮤지컬일수록 개막 초반에 극장을 찾지 말라는 비밀스런(?) 노하우가 있다. 무대예술인 뮤지컬은 반복된 실연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영미권의 상업 극장가에서는 트라



이 아웃(try-out)이나 프리뷰(preview) 같은 제도를 통해 작품의 안정적인 완성도를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트라이 아웃이란 대도시에서의 본공연에 앞서 인근 지방도시에서 시범 공연을 통해 관객의 반응을 알아보고 작품의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프리뷰란 본공연에 앞서 일정 기간 동안 '연습' 공연 기간을 설정하고 정식 오픈에 보다 완성된 공연을 선보이는 제도를 지칭한다. 우리도 당장 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같은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장기공연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지 않고는 시도되기 힘들다는 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트라이아웃, 프리뷰 통해 작품 완성도 높여야

기껏해야 한두 달의 대관 공연만 가지고는 트라이 아웃이나 프리뷰 같은 제도를 실행하기에 기획자나 제작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의미다. 예술적 자긍심이나 사명감만 가지고 감내하라 종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제도를 합리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또한 전용극장에서의 장기공연은 제작비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해 매출액을 분산시켜주는 효과를 내며, 이는 다시 티켓 가격을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마케팅 환경을 조성해주는 데에도 일조한다는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둘째, 공연을 만들거나 즐기기에 적합한 시설로서의 의미다. 뮤지컬에 적합한 극장 구조란 무대와 객석이 가깝고, 무대 폭은 좁지만 높이와 깊이는 여유가 있으며, 노래나 대사의 효과적인 전달이 가능한 음향적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서구의 뮤지컬 공연장 대부분에 오케스트라 피트가 무대 아래쪽에 위치해 스테이지와 객석의 물리적인 공간을 최소화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배경에서다.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우리의 대형 공연장들은 덕분에 1층 앞쪽에 앉아도 외국 공연장의 1층 맨 뒤에 앉아있는 듯한 열악한 구조를 만들어 낸다.

우스갯소리로 서울시내의 대형 공연장에서 막을 올린 뮤지컬에서는 배우가 무대의 좌우 측면에서 중앙까지 뛰어나오면 숨이 차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말도 있다. 무조건 무대나 극장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면 불필요하게 큰 공연장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다름없다. 게다가 브랜드 가치가 높은 수입 뮤지컬들보다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우리 창작 뮤지컬들에게 이 같은 구조적 결함은 치명적인 약점이자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뮤지컬 극장이 운집한 공연장 밀집지역(Theater Cluster)의 조성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곳에 가면 공연은 물론 쇼핑이나 관광, 외식산업 등 2차적인 소비도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돼야 한다. 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조,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는 문화산업에서는 너무도 당연히 고민해야 할 요소들이다. 한국 뮤지컬 시장의 성장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외형적 · 수적 성장의 개념을 넘어 질적 성숙을 꾀해야 할 단계이다.

뼈대가 튼튼하지 못한 양적 팽창은 자칫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 성공적인 뮤지컬 작품의 등장을 기대하기에 앞서, 그런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결과란 사실 과정의 산물일 뿐이다.



원종원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jwon@sch.ac.kr
뮤지컬 평론가. 〈오페라의 유령〉,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캣츠〉 등 해외 유명 뮤지컬을 번역했으며, '비밀의 정원' 예술 감독, '미스 사이공' 예술 자문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원종원의 올 댓 뮤지컬'이 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클로버문고의 향수'라는 동호회가 있다. 회원이 5천여 명 되는데 동호회 이름처럼 70~80년대 만화문고였던 클로버문고에 대한 기억을 나누는 곳이다.

만화가 돌아왔다



(위부터) 신일숙의 〈아르미안의 네딸들〉, 박소희의 〈궁〉, 허영만의 〈식객〉, 이노우에 타케히코의 〈슬램덩크〉



인도 반다지역에서 발견된 4만년전 구석기시대 벽화

다양한 사람들이 어린 시절 즐겨 보았던 만화를 매개로 모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30년도 더 된 만화를 잊지 못하고 추억한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는 연재만화 코너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만화를 읽고 수천 개에 이르는 댓글을 단다. 어떤 이들은 포털 사이트의 연재 만화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한다. 강풀은 웹 연재만화의 대표적인 인기 작가로 〈순정만화〉부터 이어지는 그의 작품들은 영화 · 드라마 · 뮤지컬로 제작되었다.

대형 서점의 어린이 코너에는 신간 만화가 가득하다. 특히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는 학습만화가 대세인데 과학 · 영어 · 한자 · 수학을 넘어 〈군주론〉, 〈유토피아〉, 〈국가〉와 같은 고전들까지 만화로 나와 있다. 스크린도 온통 만화판이다. 〈올드보이〉, 〈미녀는 괴로워〉에 이어 〈식객〉이 만화 원작 성공신화를 이어갔다. 공중파도 만화의 영상화 대열에 합류해 〈궁〉의 성공을 시작으로 〈위대한 캣츠비〉와 〈쩐의 전쟁〉이 그 뒤를 이었다. 역으로 인기 드라마나 영화의 만화작업도 활발하다. 〈커피프린스 1호점〉, 〈주몽〉 등이 영상만화로 출판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손만 뻗으면 만화가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20년 전만 해도 만화는 전형적인 '골방'의 매체였다. 동네 구석마다 자리잡고 있던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거나, 아니면 만화잡지나 책을 사서 방에 틀어박혀 뒹굴거리며 보곤 했다. 만화가 광장에 나올 일은 별로 없었다. 가끔 광장에 나올 때면 그 처지가 서글펐다. 어린이, 청소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마녀사냥을 당해 화형대에 오













르곤 했으니까. 허무맹랑한 만화를 보고 높은 곳에서 어린이가 뛰어내렸다, 죽지 않는 로봇 만화를 보고 자살했다, 일본만화를 보고 일진회를 만들었다, 동성애 만화가 유행해서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이 흔들린다, 모든 것이 만화 때문이었다.

보통 매체라면 아마 저 지독한 마녀사냥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TV 광고모델로 나오기도 하고 쇼 프로그램의 패널로도 출연하는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적 만화가가 상고사를 그린 '성인용' 만화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파렴치범이 되기도 할 정도였으니까. 어디 마녀사냥뿐일까. 사실 만화는 확신범에 가깝다. 만화 안에는 늘 파격이 있었다. 실사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몸개그, 격투와 로맨스라는 욕망의 양날검이 있었다. 건전한 상식인의 사고방식에서 볼 때 만화가 담아내는 세계는 황당 그 자체다.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꿈을 표현

게다가 만화는 하멜른의 사나이가 부는 피리 소리처럼 쉽게 아이들을 홀린다. 글을 깨우치기 시작할 때 만화를 손에 잡으면 그걸로 경쟁은 끝.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만화에서 눈을 떼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니 누가 만화에 눈을 곱게 뜨겠는가? 그런데 이런 문제투성이 만화가 안경 쓴 꺼벙한 신문 기자가 안경을 벗고 옷을 벗으면 훈남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화려한 변신에 성공했다.

21세기에 신데렐라로 떠오른 만화의 힘은 '상상력'에서 나온다. 만화는 상상력의 매체다. 작가는 기술의 힘을 빌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손에 의지해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꿈을 표현한다. 독자는 칸마다 오롯이 버티고 선 그림을 자신의 상상에 띄워 움직임과 소리를 만들어낸다. 만화를 볼 때마다 평면에 간략하게 그려진 인물들에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적 행위를 해야 한다. 피곤하다고? 아니다. 인간은 창조적 행위를 즐기게끔 진화되었다. 이미지에 자신이 전달하려는 정보를 담아내는 행위는 '문자'가 나오기 이전 인간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전달수단이었다.

선사시대 동굴벽화에, 이집트의 무덤벽화에, 마야의 병풍그림에, 프랑스의 태피스트리에, 중세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에 등장했던 소통 방식이다.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에 이미지 언어(만화적 표현)를 저장해 후세에 전달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읽는 것보다 만화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우리 유전자 정보에 저장된 만화 표현은 근대에 이르러 대량생산되어 대중매체의 등장과 함께 '만화'라는 근대매체가 되었다. 정리하자면, 만화는 상상력의 매체이고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이미지 언어로 이뤄져 있으며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읽히기 위해 등장했다.

21세기 영상의 시대, 문화의 시대, 정보의 시대, 지식의 시대에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이다. 만화는 작가 개인에 의해 창작되지만 대량생산되어 대중에게 소비된다. 온전한 개인의 수작업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엔터테인먼트다. 개인의 상상력이 직선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만화에 매달린다.

그래서 만화에는 참신한 젊은 일꾼들이 부지기수다. 만화는 눈으로 읽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마음으로 읽는다. 칸과 칸으로 나뉘어 그려진 그림들을 보며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말풍선에 적힌 글을 통해 인물의 목소리를 듣는 마술은 눈이 아니라 마음, 상상에서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기적이다. 그래서 만화는 마음의 소비재다. 만화의 기적을 모든 분야에서 확인해 보기 바란다.

어려운 매뉴얼을 만화로 만들자. 포스터도 만화가 좋다. 현수막에도 만화가 들어가고, 명함에도 캐릭터가 필요하다. 동네 작은 가게라도 만화로 된 간판을 붙이고, 홈페이지에는 만화를 연재해 보자. 마음을 사로잡는 만화의 기적이 이 글을 읽는 당신과 함께할 것이다.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 교수
enterani@chungkang.ac.kr
만화평론가. 만화 전시, 기획, 스토리, 평론 등 만화와 관련된 모든 것에 즐겁게 푹 빠져 있다.

주5일제 실시와 경제 성장에 힘입어 여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체 중심의 레저패턴에서 개인 · 가족 중심의 레저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테마파크(theme park)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레저시설로서 각광받고 있다.

테마파크, 꿈을 현실화시켜라

2001년 이후 레저심리의 회복과 일부 테마파크의 신규 투자, 2002년 월드컵 개최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테마파크 방문객이 점차 늘어났다. 하지만 이후 대형 테마파크의 집중화 현상이 저하되면서 일부 테마파크의 입장객 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6년 국내 12개 테마파크의 입장객 수는 2,316만명으로 전년보다 5.8% 감소했고 2003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영실적 파악이 가능한 8개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총매출액은 2006년에 5,159억원으로 전년보다 6.4% 감소했지만 이용료 인상으로 1인당 소비단가는 2006년 2만8,293원으로 전년보다 0.4% 상승했다.

테마파크란 일정한 주제로 전체 환경을 만들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창출해 고객들에게 비일상적인 경험을 체험케 하는 여가공간이다. 즉 탑승물(ride), 관람물(attraction), 건축물, 테마음악 등 테마의 여러 표현수단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고객의 향수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테마파크는 사람들의 상상력과 꿈을 실현시켜 주는 장소이다. 따라서 기획에서부터 설계, 디자인, 건축, 디스플레이,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상상력과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

상상력을 현실화한 가장 성공적인 테마파크로 디즈니랜드를 들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입장객을 유치하고 있는 디즈니랜드는 월트디즈니 자신이 제작한 만화영화를 현실 공간에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어른과 어린이 모두 함께 즐기고 사람들이 행복과 지식을 찾아내는 장소를 목표로 상상력과 기술적 능력을 다하여 만든 대규모 테마파크로, 어린이들에게 영원한 동화의 세계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도 디즈니랜드는 '꿈 꿀 수 있는 것은 실현될 수 있는 것' 이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뛰어난 상상력과 이를 실현시킬 만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디즈니랜드는 방문객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면서 상상력이 비즈니스와 결합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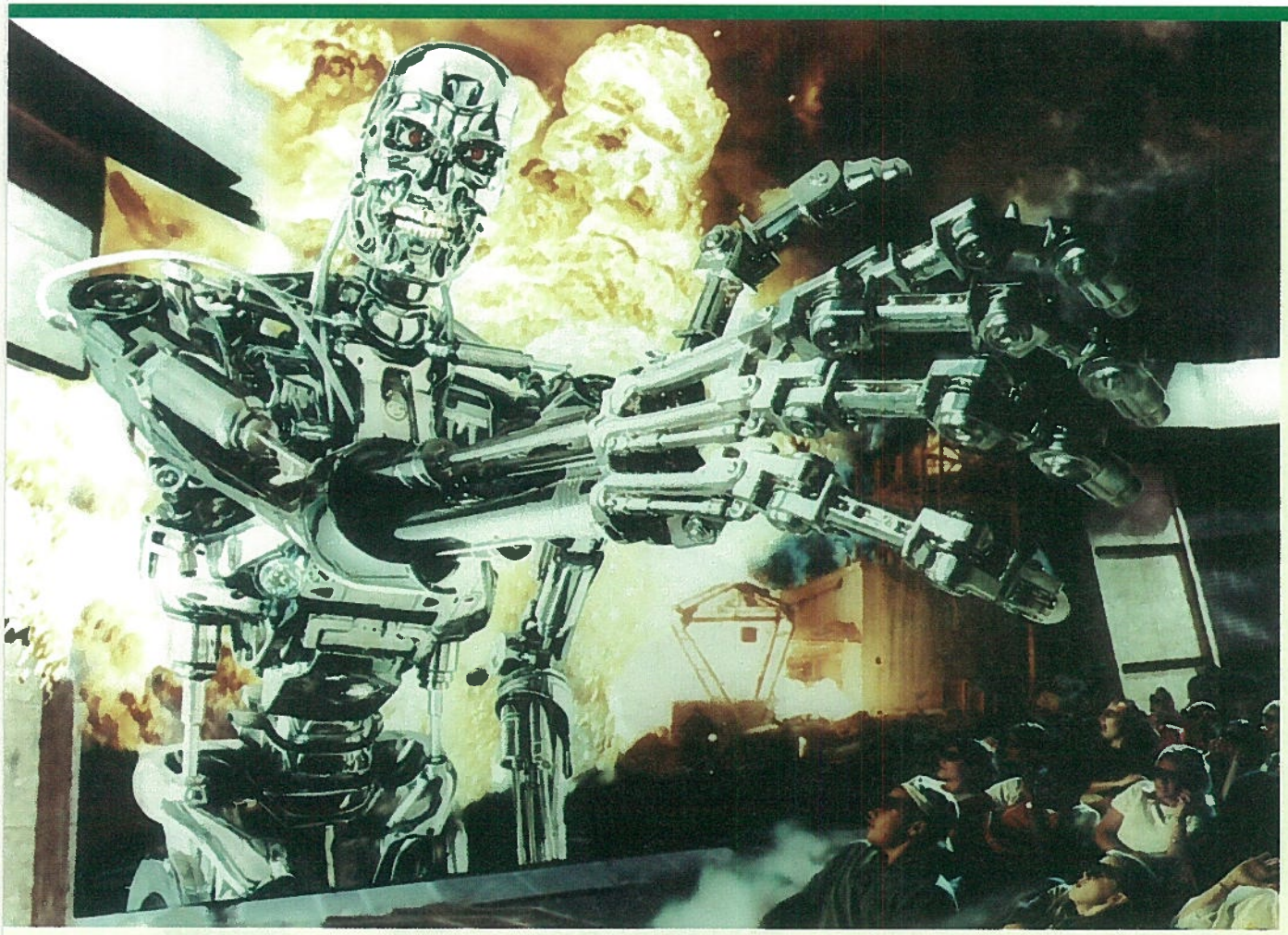
이러한 상상력과 창의력 외에도 테마파크가 사업적으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우선 철저한 기획력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테마파크 사업은 거대한 장치산업으로서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투입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건축 · 디자인 · 음향을 일관된 테마로

따라서 독특하고 차별화된 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근거한 환경을 조성해 매력있는 파크로 다가가야 한다. 미국의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레고랜드 등은 각각 만화캐릭터 · 영화 · 장난감 등 독특한 아이디어와 철저한 기획,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많은 입장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꾸준한 리뉴얼을 통하여 재방문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테마파크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트랙션 · 건축물 · 음악 · 이벤트 · 쇼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족들이 함께 즐길 만한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과 매력적이고 독특한 테마가 기본요소이다. 즉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해 탑승물 · 관람물을 지속적으로 갱신 · 신설하고, 핵심 테마의 지속적 개발로 입장객들이 갈 때마다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유원지를 운영하는 수준에서는 테



일본 오사카의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의 '터미네이터 2-3D' 관람관

마파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테마파크는 상상을 현실로 표현해야 하는 장소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뛰어난 기술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로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테마파크는 건축 · 디자인 · 조명 · 음향 · 조경 등 모든 구성요소들을 일관된 테마로 표현하면서도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테마파크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세계적 테마파크의 기술 수준과 운영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테마파크 산업은 점차 복합리조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테마파크의 시설이나 규모를 확대했으나 최근에는 숙박시설 · 워터파크 · 카지노 등 새로운 레저시설을 추가로 건설해 복합리조트로 조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새로운 레저시설을 추가하거나 주변 숙박시설, 쇼핑시설과의 연계는 시즌을 연장하거나 다양한 연령층을 끌어들여 더 많은 입장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테마파크의 대규모 투자 및 업체간 통합, 미국 테마파크의 시설 · 규모 확대, 새로운 실내 시설 조성과 복합화 추세는 최근 테마파크 산업의 빠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테마파크는 방문객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장소이다. 요약하자면 뛰어난 창의력 · 상상력과 함께 이런 상상력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인 추가투자, 핵심 테마의 보유 및 지속적인 개발, 집객을 위한 이벤트 ·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kole333@hanmail.net
기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1999년부터 한국레저산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레저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레저산업 관련 자료를 모아 매년 〈레저백서〉를 출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두 가지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있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에서 발표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예술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고, 이 중 네 명은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뭘 만들지?"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오세요

참으로 놀랄 만한 결과다. 지식산업시대라고들 말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처한 현실을 짐작케 하는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조사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였다. '향후 5년 내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전망 있는 직업군'을 묻는 질문에 '콘텐츠 개발자'라고 응답한 사람이 40.6%나 돼 IT전문직(17.9%), 펀드매니저 · 변리사 · 감정평가사(15.9%), CEO · 전문경영인(7.6%), 연예인 · 스포츠매니저 · 엔터테인먼트직종(6.4%) 등 전문직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개발자란 직업이 모든 업종을 통틀어 5년 후 가장 유망한 직업군으로 꼽힌 것이다. 응답자의 95.4%가 문화콘텐츠산업이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고 문화콘텐츠산업을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21세기 국가 주도 신성장산업으로 꼽았다. 아직도 배를 곯는 문화예술인들이 즐비한, 우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민 열 명 중 네 명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꼽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위성DMB폰과 휴대폰으로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5년 후 가장 유망 직업군

이렇듯 청소년들에게 유망한 분야이자 신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시켜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만화 · 애니메이션 · 게임 · 영화 · 음악 · 드라마 등 정부의 공식적인 진흥 업무는 1994년부터 추진되었다. 1999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됐고 그 기본법에 의해 2001년에는 한국문화콘텐



오디오북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는 가수 유열

츠진흥원이 설립되어 구체적인 지원체제를 갖췄다.

설립 초기 진흥원은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알리는 데 힘썼다. 예전에 '딴따라' 라고 비하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했던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 그리고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교수 ·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투자의 중점을 뒀다. 문화콘텐츠는 시설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한류로 큰 수익 거둔 사람 거의 없어

진흥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원사업이 바로 인력양성사업인 것도 이 때문이다. 지원 결과 문화콘텐츠 관련학과가 많이 생겨났고 창작 기획, 마케팅 전문 인력이 늘어나는 등 산업 발전과 함께 산학협동의 기반이 탄탄해졌다. 최근 진흥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문화콘텐츠의 원소스 멀티유즈(OSMU, One Source Multi Use)를 강조하고 있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문화콘텐츠가 유행처럼 퍼져나갔지만 실제로 한류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둔 사람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도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처음 개발단계에서부터 OSMU 개념을 유념해 창작 · 제작 · 유통 · 수출 등이 매우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획기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나서 그 문화콘텐츠가 만화 · 영화 · 게임 · 애니메이션 ·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로 활용되고 각종 상품과 관광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콘텐츠는 창의력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문화상품이다. 따라서 폭발적인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력' 과 '제작역량' 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춰야 한다. 올해부터 진흥원은 단순한 지원차원에서 벗어나 현장밀착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콘텐츠도 일반 국민들과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콘텐츠 자체로서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진흥원은 콘텐츠 제작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새 정부도 문화콘텐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진흥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블루오션 주역은 바로 문화콘텐츠산업이기 때문이다.



채수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기획혁신팀 대리
coolsujin@kocca.or.kr

> 좌담 – 외환보유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때 : 2008년 2월 14일 낮 1시
곳 : 서울 시내
사회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참석자 : 채선병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기획팀장
오석태 한국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

리스크 범위 내에서 신중한 활용 모색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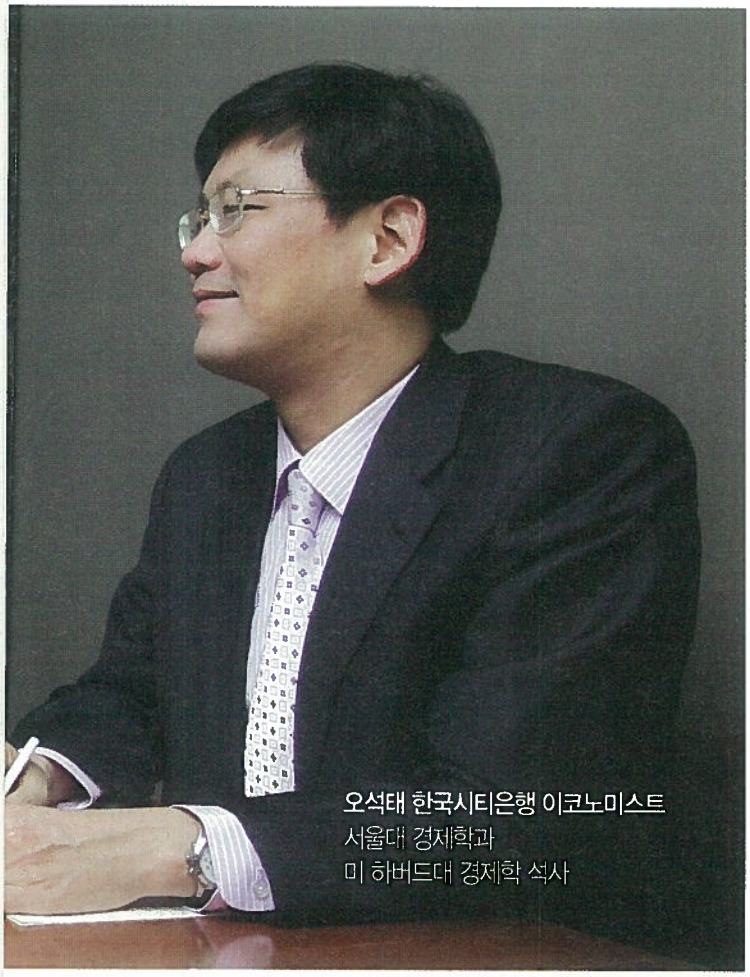
김 : 지난 1월 한국투자공사(KIC)가 세계적인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해 지분 3.1%를 확보했다.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 만에 우리나라 국부펀드가 세계 금융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대략 2천6백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최근 높아진 외환보유고의 활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채 : 외환보유액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대외자산으로 국가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안정적 운영이 우선시되는데 그러면서도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오 : 개인으로 비유하자면 외환보유고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으로 보느냐 아니면 재산 전체라고 보느냐 두 시각으로 나뉜다. 외환보유고 활용 논의는 곳간에 쌓여있는 돈 전체로 보는 입장에서 나온 것 같다.

최근 들어 단기외채 급증으로 외환보유액이 적정 정도에서 모

한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은이 투자하는 상품은 다양하다. 정부채와 정부기관채뿐 아니라 금융채, 자산운용화 증권에도 투자하고 있다.



오석태 한국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
서울대 경제학과
미 하버드대 경제학 석사

자란다는 건데, 경제가 발전하면 자연히 단기외채가 급증한다. 그래서 단기외채까지 포함해서 합산하는 건 외환보유액을 너무 과다하게 산정하는 것이다.

외환보유고는 2천억달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비상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전체 운용수익이 떨어진다. 비상금으로 보유하되 초과하는 액수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좋을 것이다.

김 : 외환보유액이 많을 때 가장 큰 이익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반대쪽 얘기는 외환위기 원인이 있는데 외환보유액이 아무리 많아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임시방편이라는 것이다.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운용수익이 낮아 손실이 크다. 보통 정부 개입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높이는데 이 경우 환차손을 당할 우려도 크다.

채 : 외환위기 이후에도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SK 사태, 북핵 사태 때였는데 외환보유액이 어느 정도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게 유지된 것도 사실이다.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해 통일된 기준은 없다. IMF는 잔여만기가 1년 미만인 유동외채에 자본도피 가능 자금을 더해서 보기도 한다.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반드시 여유가 있다고만은 할 수 없다.

외환보유액의 적극적 운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외환보유액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규모가 커지면 투자대상을 다양화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김 : 과거에는 적정 외환보유고 기준을 3개월 수입액으로 잡았는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여기에 단기외채,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투자 일부분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생겼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략 단기외채 1천5백억달러, 3개월 수입액 9백억달러, 외국인 주식투자 1/3 가량을 잡으면 천억달러로 이들 금액을 합치면 3천4백억달러가 되는 셈이다. 이 밖에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오 : 주식시장에 들어간 외국인 돈을 외환보유고 산출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단기외채도 최근 2~3년 새 많이 늘어난 게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외환보유고에 넣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외환보유액을 쓰기 전에 거시 · 금융 정책을 적절히 써 미리 위기를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굳이 단기외채증가나 외국인 주식이 유출에 맞춰 외환보유고를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자본 흐름에 일일이 맞추지 않고 기준을 느슨하게 잡는다면 2천억달러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싶다.

채 : 말씀대로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성숙해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은 높아진 게 맞다. 다만 외환위기 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외환보유액이 있어야 IMF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외채가 1천2백억달러, 현재 유동외채가 약 1천8백억달러 가량 된다. 앞으로 외환보유고 증가세는 둔화될 거다.


채선병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기획팀장

김 : 그렇다면 외환보유고는 어떻게 운영·활용해야 할까?

채 : 한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은이 투자하는 상품은 다양하다. 정부채와 정부기관채뿐 아니라 금융채, 자산운용화 증권에도 투자하고 있다. 미 재무성에서 외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액으로 정부 측에 투자한 규모가 얼마인지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가 16~17% 정도, 일본 20% 이상, 대만이나 중국은 20~30%에 달한다. 외환보유고 투자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오 : 외환보유고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원금 손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다. 한은이 외환보유고 운용은 잘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있는 것 같다. 외환보유고의 운용수익을 높이자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전체 자산의 운용수익을 높이자는 건지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가 자산을 직접 운용해 수익률을 올려야한다면 외환보유고를 공격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외환보유고를 다른 쪽으로 빼서 다른 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한은에 주식도 하라, 하이일드 본드(고수익 채권)도 하라는 건 무리라고 보인다.

김 : 최근 외환보유고를 국부펀드에 넣어 수익률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부펀드에 대해 말씀해 달라.

채 : 국부펀드란 용어는 2005년 센트럴뱅킹저널이라는 잡지에서 처음 등장해 사용된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성격의 펀드는 50년대부터 존재했다. 중동 산유국들이 국가 잉여자금을 원유 가격 완충과 다음 세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기구를 세워 펀드를 만들어 운용한 개념이다. 외환보유액과는 보유목적, 자금조달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증권과 같은 유동성 부채로 조성되는 반면에 국부펀드는 부채가 없는 자금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9월 중국 CIC(중국 투자 유한책임공사)가 설립됐는데 중국 인민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정부가 사는 방식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해졌다.

김 : 국부펀드가 외국의 기간산업을 사들인다든지 해서 외국 금융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부펀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KIC 투자 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보는가?

오 : 국부펀드가 왜 나왔느냐를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유가가 워낙 올랐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흑자가 워낙 많았다. 중국과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부펀드로 이어진 것이다. 글로벌 임밸런스가 2003~4년까지 외환보유고의 형태로 국제금융시장에 나타났었다면 이제 국부펀드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부펀드는 외환보유고보다 투명성이 없는 데다 공격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겁을 내고 말들도 상당히 많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국부펀드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분히 회의적이다. 미국의 금융업체가 싸게 나왔으니 사야한다는 건 우리나라 현실과 핀트가 맞지 않는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부펀드가 미국 금융기관에 투자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글로벌 임밸런스가 국부펀드를 만들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작년에 경상수지에서 소폭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적자가 예상된다. 중국식이든 산유국식이든 국부펀드의 전제조건은 경상수지 흑자이다. 우리나라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국부펀드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분히 회의적이다. 미국의 금융업체가 싸게


오석태 한국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

나왔으니 사야한다는 건 우리나라 현실과 핀트가 맞지 않는다.

채 : 꼭 외환보유액이 아니더라도 그럴 만한 자금이 있으면 적극 운용하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금이 있느냐는 짚어봐야 한다. 우리는 원유수출국도 아니고 정부재정 잉여자금도 많지 않다. 다만 국민연금 규모가 상당히 크고 자금 흐름이 예측 가능하며 장기간 분산돼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익 목적의 투자자금으로 보인다. 현재 KIC 운용자금은 외환보유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채를 통한 조달이므로 자산운용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 : 연기금과 국부펀드는 다르게 봐야 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논의되는 국부펀드의 틀이 아니라 연기금이 해외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게 적합해 보인다. KIC도 외국의 기구들처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돈줄을 봤을 때 그 나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김 : 국부펀드 규모가 커지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수익률이 20%에 가깝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KIC의 투자를 늘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채 :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74년 생겼는데 처음에는 국내에서 투자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에 점차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많이 다른데 잉여자금도 없고 잉여자금이 있다 해도 연기금 같은 것뿐이다.

싱가포르 테마섹의 수익률을 말씀하셨는데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중국의 CIC 같은 경우는 작년에 블랙스톤(세계 최대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커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KIC가 다른 나라 국부펀드처럼 과감히 투자하고 싶다는 쪽인 것 같은데 외환보유액은 부채를 통해 조성되었으므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으로서는 KIC에 대해 외환보유고 본래 목적에 맞게 투자유치를 시키고 그것에 맞춰서 운용하라고 얘기해야 하는 입장이다. KIC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KIC가 과감한 투자를 지향한다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KIC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투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 : 마지막으로 앞으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능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오 : 외환보유고를 끝없이 쌓는다는 건 목적이 될 수 없다. 선진국일수록 외환보유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다. 외환보유고를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비상금이 충분하다면 다른 주머니에 옮겨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현재는 한은이 KIC에 위탁하는 형태인데 아예 외환보유고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KIC에 맡겨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다. 일단 KIC가 설립됐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이미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예 KIC가 운용하는 국가자산으로 해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려면 외환보유고를 줄여도 좋다는 정책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공격적으로 운용해 국가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정책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채 : 외환보유고가 많이 늘었지만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게 목표일 수는 없고 외환정책과 통화정책의 결과다. 외환보유액은 성격에 맞게 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외환보유액 성격에 맞춘다고 하면 보수적인 방식으로, 리스크가 거의 없는 곳에 투자한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리스크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은 있다고 본다. 실제 KIC에 위탁하고 있는 자산의 최대 50%까지는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주식투자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 우리가 외환을 너무 많이 보유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지만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본 유출이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고를 신중하게 활용하면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는 것 같다.

정리 **길준범** 나라경제 기자 사진 **정치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기자

아프리카에 부는 지식재산권 바람

2004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본격 논의

최근 아프리카 경제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 2002년 3.2%에서 2004년 4.6%, 2007년 5.8% 등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안정과 적절한 경제정책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만성적인 가난과 질병,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에서 과연 지식재산권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WIPO)가 주관하는 '경제발전을 위한 지재권의 전략적 활용방안'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을 방문했다. 이 세미나에는 25개 아프리카 대표들이 참석해 WTO 지재권 협정,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지재권적 보호, 공중보건과 의약품 특허, 지리적 표시, 스포츠산업과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는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부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1976년과 1977년 각각 창설된 ARIPO(Africa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와 OAPI(Organization de la Africaine Propriete Intellectuelle)가 아프리카의 지식재산권기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ARIPO는 아프리카의 15개 영어권 국가들로 구성돼 있고 OAPI는 16개 불어권 국가들로 구성돼 특허 · 상표 · 디자인 등의 출원 접수 및 심사, 등록을 대행하고 있다. 또한이 두 기구는 WIPO를 비롯해서 유럽특허청(EPO), 미국특허청 등 선진 각국 특허청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지재권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전자제품 쇼핑몰

남아공처럼 독자적인 지재권제도와 담당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드물게 있다. 남아공은 1인당 GDP 5천달러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산유국 나이지리아와 함께 아프리카를 이끌어가는 리더다. 특히 2010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두뇌 유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의약품과 병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유치하는 데 지재권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물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도 지재권 보호에 소극적이고 국제 지재권 규범이 지나치게 높은 보호수준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내부적으로는 지재권제도의 본질적 기능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 지재권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요인이 몇 가지 있

다. 먼저, 경제발전에 있어서 지재권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들의 기대가 대단하다는 것이다. 2004년 아프리카와 남미의 공동제안으로 지재권을 이용한 경제발전 지원 문제가 WIPO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3년간의 진통 끝에 지난해 제43차 WIPO 총회에서는 45개 개발 아젠다에 합의했다. 그리고 신설되는 개발 및 지재권 위원회(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P, CDIP)를 중심으로 45개 개발 아젠다의 세부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 단순한 경제원조가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개도국들은 종전과는 다른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들이 이처럼 열망하는 분야인 만큼 지재권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협력가능성은 매우 높다.

둘째로, 한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범국가이다. 불과 50여년 전 아프리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한국이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경제규모 세계 11위로 성장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어가 국제특허 분야의 공용어로 지정되기까지 했다. 일찍이 식민지의 역사를 가진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없다. 따라서 한국은 이들에게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는 이들이 따르고자 열망하는 바로 그것이다. 물론 선진국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과 수준 높은 지재권 교육훈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이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단지 선진국을 위한 제도를 이식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이 더더욱 빛날 것이다.



아프리카의 킬링필드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의 버스

셋째, 지재권 분야의 개발협력은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지재권 분야 협력은 물자나 인력 지원보다는 교육훈련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적은 금액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인색한 해외원조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지재권 분야는 매우 적절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규모 물량공세만이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도로 · 교량 · 항만 시설을 건설해주고 수십억달러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등 대규모 원조를 실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경계심만 커져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재권 교육훈련에 있어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국제특허연수원에서는 매년 개도국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지재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WIPO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매년 WIPO와 함께 최빈국들을 상대로 10여개의 지재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지재권 연수원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었다.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 출원접수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개도국들에게 배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훈련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한다면 지재권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인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우리의 중간자로서의 역할은 더더욱 빛날 것이다.

박성준 주제네바대표부 과학산업기술관
seongjoon.park@gmail.com

교토의정서 발효 앞두고 바이오 연료 생산 늘려

2022년까지 에탄올 360억갤런 사용 의무화



신재생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사용의 확대는 미국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얼마



뉴욕 타임스퀘어

지난해 12월 19일, 부시 미 대통령은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2022년까지 360억갤런에 달하는 에탄올의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 시대에 수입 원유가 약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조되고 있는 에너지 확보에 대한 미국민의 위기의식과 친환경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에탄올 생산국으로 브라질과 함께 세계 에탄올 생산을 견인하고 있다. 2006년 생산량은 전세계 에탄올 생산량(약 135억갤런)의 36%인 49억갤런에 달하고 있으며, 2007년 생산량은 2006년보다 29.2% 증가한 62억갤런을 기록하는 등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에탄올 생산시설은 미 전지역에 134개에 불과하나, 새로 77개가 건설 중이어서 에탄올 생산 가능량이 조만간 현재의 약 1.8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 매년 에탄올을 브라질과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2006년 수입량은 2005년보다 384% 증가한 6억5천만갤런에 달하기도 했다. 미국의 에탄올 수요량은 2006년 1월 3억5천만갤런에서 2007년 11월에는 6억3천만갤런으로 2년여 만에 무려 17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에탄올 주유소도 급증하고 있는데, 일례로 일리노이주의 에탄올 주유소는 2005년에는 18개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160개가 영업 중이다.

이처럼 미국 내 에탄올 생산과 사용이 증가한 원인은 미 국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미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미 연방 에너지국은 2005년부터 각종 지원 정책을 수립해 신재생 바이오 연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에탄올 등 신재생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거나 기존의 휘발유와 혼합하는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세금 혜택 외에도 보조금을 통해 에탄올 등 신재생 바이오 연료 생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억달러를 동식물 폐기물(biomass)에서 추출되는 에탄올 생산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으로 지불할 계획이다.

일리노이주 환경청에서는 바이오 연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차량을 바이오 연료로 운행하는 차량(Flexible-fuel Vehicle)으로 바꾼 개인 및 사업자에게는 최대 일시불로 4천달러, 바이오 연료 사용자에게는 연간 사용 마일리지에 따라 최대 450달러를 리베이트로 지급해주고 있다. 바이오 연료는 고유가 및 환경오염 시대에 대체 에너지로 각광을 받으며 수요와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에탄올은 주원료가 된 옥수수, 사탕수수 등 작물과 옥수수 시럽,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바이오 연료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뉴욕 브루클린의 하이브리드 택시

우유, 치즈 등 관련 식료품의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에탄올은 휘발유에 비해 갤런당 주행거리가 30% 짧아 연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크게 낮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에탄올의 원료를 옥수수 등 식료품용 작물에서 찾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작물(nonfood energy crop)이나 나무 조각, 동식물 폐기물(biomass)에서 찾고 있다. 폐타이어,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에서 에탄올을 생산하려는 시도도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생산된 에탄올은 휘발유에 비해 온실 가스 방출량이 85%~90%나 적어 전통적 탄소 추출 에탄올보다 훨씬 환경 친화적이다. 쓰레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에탄올 가격 하락에도 일익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타이어를 활용한 에탄올 생산 기술을 보유한 일리노이 소재 Coskata사에 따르면, 에탄올 생산 비용은 갤런당 1달러 미만으로 옥수수 에탄올 생산 가격인 갤런당 1.4~1.5달러보다 훨씬 저렴하다 한다.

미 최대 자동차 기업인 GM은 지난 1월 디트로이트 자동차 전시회에서 Coskata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2011년까지 탄소 성분을 포함한 어떠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GM은 이를 통해 정부의 연료 효율성 기준을 쉽게 달성하면서 전기와 휘발유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일본 자동차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에탄올 생산 확대에 반대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으나, 신재생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사용의 확대는 미국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바이오 연료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종태
KOTRA 시카고무역관장
chung@kotra.or.kr

윗글이

맑아야

아랫글이

맑다

Re : 올바르지 못한 리플은 타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맑은 리플 습관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겠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팔순 아버지의 토크쇼

얼마 전 아버지의 팔순 잔치를 치렀다. 팔십 번째 맞는 생일, 당신에게나 가족들에게나 매우 큰 행사임에 틀림없다. 그 뜻 깊은 날을 어떻게 기념하면 좋을까? 흔히 하는 대로 근사한 식당이나 호텔에서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거하게 식사를 한다? 너무나 재미가 없다. 예전에는 워낙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잔치상'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다.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이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을의 많은 이웃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어울리는 시간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곁들여졌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 평소에 잘 먹기 때문에 포식의 즐거움은 상대적으로 훨씬 줄어들었다. 그리고 하객들이 떠들썩하게 모여드는 것도 아니라서 축제의 분위기가 좀처럼 형성되지 않는다.

나는 색다르게 잔치를 치르고 싶었다. 고심 끝에 생각해낸 프로그램은 할아버지가 손녀들에게 들려주는 '나의 인생 80년'이라는 토크쇼였다. 워낙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성향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이다. 미리 아버지에게 구상을 말씀드리면서 내용과 형식을 의논했고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아버지가 살아오신 세월에 관련된 시각 자료를 수집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조선의 상황을 보여주는 구한말의 사진부터, 그동안 간간히 찍어 놓은 사진들을 모두 모아 중요한 것들을 골라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진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그 부분은 아버지가 직접 그림으로 그려 보충하였다. 그 자료들을 모두 스캔을 떠서 파워포인트에 옮겨 슬라이드 쇼를 한 것이다.

행사 장소는 우리 집. 마루에 자그마한 무대를 마련하고 흰 벽면을 스크린 삼아 빔 프로젝트를 쏘았다. 팔순 잔치의 제목을 '아침해가 돋을 때'라고 붙였고 그 바탕 화면에 이만익 화백의 '해동일출도'라는 그림을 깔아 무대를 장식했다. 가족들이 하나 둘씩 도착했고, 행사가 시작되었다. 첫 순서로 캐나다에 이민 가 있는 형의 가족들이 부쳐온 영상 축하 메시지가 나왔다.

대리 체험 통해 낯선 삶으로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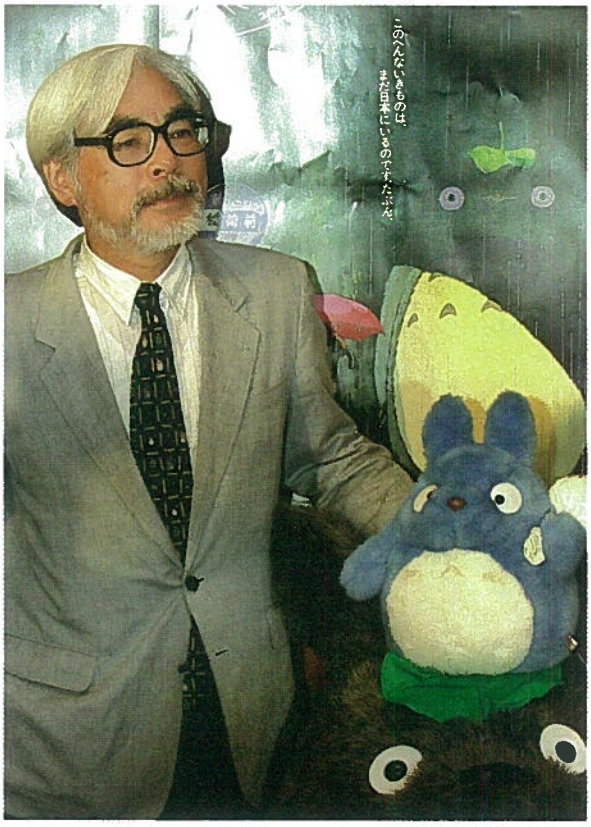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이메일로 부쳐온 것이라서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팔순 노인에게는 신기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손자가 피아노 연주하는 장면도 깜짝 쇼로 보여드리려 했는데 불발로 끝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격적인 행사 시간이 되어 무대 앞에 의자를 놓아두어 할아버지와 손녀들이 빙 둘러 앉았고 토크쇼가 시작되었다. 80여장의 사진과 그림들이 한 장 한 장 나타나면서 당시의 시대상과 아버지의 경험담이 줄줄이 흘러나왔다.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져 1, 2부로 나눠 진행되면서 꼬박 세 시간이나 걸렸다. 다섯 손녀들로서는 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자세하게 인생담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누구보다도 기쁜 것은 아버지 자신이었다. 생각해 보면 자기의 일생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앞에서 회상할 기회를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후손들에게 자기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내레이션' 할 수 있는 마당을 여는 것은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았다.

그 순서에 이어서 가족들이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배경 음악과 함께 큰 손녀가 낭송했다. '한결같은 그 발자취를 따라'라는 제목의 그 글 역시 파워포인트로 제작되어 스크린에 올라갔다. 낭송이 끝나고 그 편지를 전달했고 그에 대한 아버지의 답사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손녀들이 각자 준비한 그림 전시회가 열렸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직접 붓글씨로 적은 가훈을 표구로 만들어 각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촬영되어 편집 중인데 CD에 담아 캐나다에 이민 간 형에게도 보낼 예정이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장황하게 쓴 이유는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달은 귀중한 계기였기 때문이다.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삶의 이야기를 조금만 정성 들여 가공하고 편집하면 매우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자기의 경험을 타인과 나누고 싶어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대리 체험을 통해 낯선 삶의 세계를 여행하게 된다.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산업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기한 스토리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대량으로 복제되고 유통되는 이야기들을 구경만 하는 청취자, 시청자 또는 독자로만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문화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능동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 타인이나 상황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자기 효능감(sense of effectiveness)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그래서 여자들은 모여 앉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왼쪽)과 그가 만든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

으면 수다를 떤다. 남자들은 자기의 생활 경험을 시시콜콜하게 늘어놓지는 않지만 술좌석에서 주정을 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람은 만남으로 기운을 얻는다

말벗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다.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맛이 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소통으로 기운을 얻는다. 〈성공하는 기업에는 스토리가 있다〉. 어떤 책의 제목이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재미있는 스토리에 빨려들고 거기에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작품들 중 상당수는 오래 전 존재했던 신화에서 발상의 단초를 찾은 것이 많다. 호주에서도 원주민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이어 내려온 민담이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탄생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재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언어로 디자인할 수 있는 창조성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잠재해 있는 능력이다.

인류는 신화를 갈구하고 있다. 그 시나리오는 거창하고 위대한 인물들만이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지층들을 더듬어 보면 놀라운 의미의 광맥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 별 것 아닌 것으로 스쳐지나가는 일들에서 소중한 메시지가 탄생할 수 있다. 내게 쓰라린 상처를 주는 사건들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거기에서 삶과 세상을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언어를 건져낼 수 있다면 말이다. 말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끈이다. 자아를 명징하게 닦아주고 타인에 대한 애정을 두텁게 깔아주는 이야기의 세계가 광활하게 열릴 때, 우리 문화는 행복의 텃밭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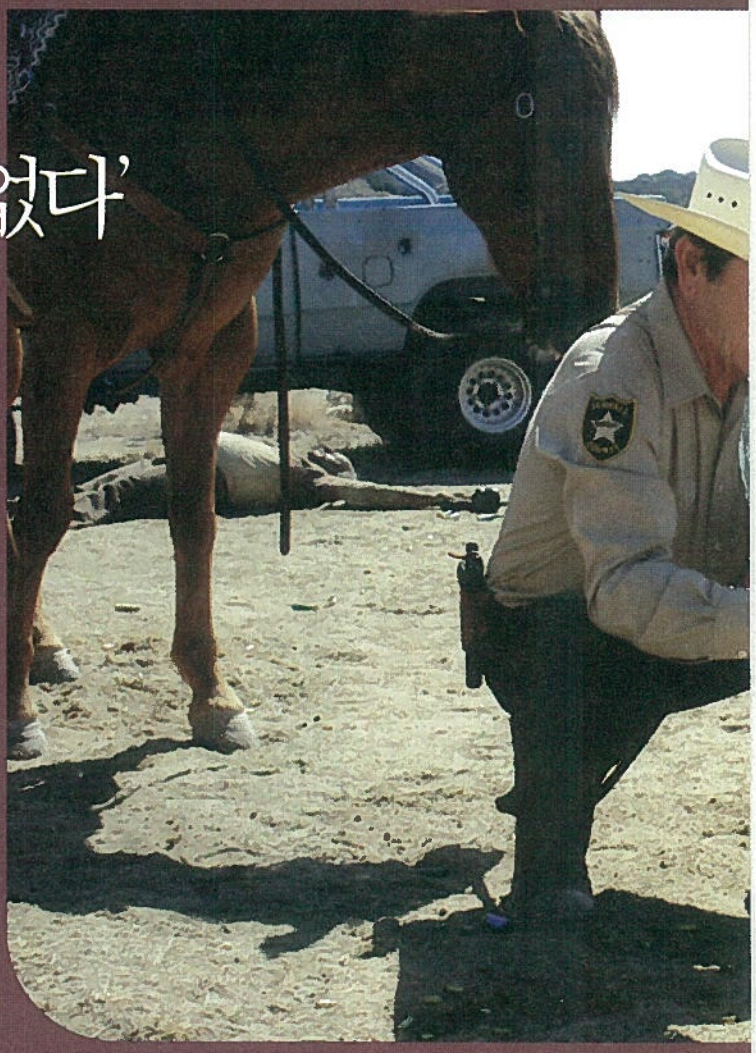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chan-ho7@hanmail.net
우리 주변의 일상적 소재들을 독특한 시선으로 포착해내는 장기가 있다. 삶 속에 자리잡은 문화의 의미를 정교하게 탐색하는 작업을 계속 중이다.

이동진과 함께 보는 영화

해석되지 않는 섬뜩한 惡의 향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추격자'





스릴러에는 흔히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살인마들이 나온다. 이들 대부분은 극중에서 왜 그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지 설명된다. 그건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복수심에서 발원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영화들은 살인을 업으로 저지르는 흉악범을 다루면서 그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 더욱 섬뜩한 느낌을 준다.

악은 해석되지 않을 때 가장 무섭다. 여기 해석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악을 다룬 두 편의 새 영화가 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엔 복수가 없고 응징이 없다. 해결도 없고 정의도 없다. 그렇다고 필연도 없다. 이 영화에 있는 것은 끝 모를 폭력과 눈 먼 살인, 그리고 노쇠한 몸으로 꾼 지난밤의 어슴푸레한 꿈일 뿐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이 피비린내 나는 영화 속에서 죽어나가지만, 관객은 누가 죽고 누가 살 것인지, 누구의 죽음이 묘사되고 누구의 죽음이 생략될 것인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

로웰린(조쉬 브롤린)은 사막에서 사냥을 하다가 시체들이 뒹구는 마약 거래 현장과 마주친다. 중상을 입은 채 물을 갈구하던 단 한 명의 생존자를 외면한 그는 주변에서 24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발견한다. 새벽녘 다시 현장에 갔다가 총탄 세례를 받고 가까스로 살아난 로웰린은 돈가방을 든 채 아내와 함께 잠적한다. 돈가방을 찾으려는 칼러 안톤(하비에르 바르뎀)은 로웰린의 행적을 쫓고서 숨통을 조여온다. 단서를 잡은 보안관 에드(톰 미리 존스) 역시 사건의 해결을 위해 뒤를 쫓는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코언 형제가 범작 '잠을 수 없는 사랑'과 '레이디 킬러'를 지나 오랜만에 내놓은 걸작이다. 폴리처상을 받은 작가 코맥 매카시의 원작 소설은 코언 형제의 타고난 재기와 탁월한 테크닉에 깊고 깊은 우물 하나를 파주었다. 코언 형제의 범죄 스릴러들은 언제나 좋지만, 어느 전작보다도 강렬하고 어두운 이 영화의 성취는 가히 그 정점으로 꼽을 만하다.

텍사스의 광막한 사막과 국경 도시의 비좁은 모텔 방을 잡아내는 로저 디킨스의 촬영은 섬세하기 이를 데 없고, 매섭게 달려드는 개를 총으로 쏴 죽이는 평범한 장면에서조차 대단한 스릴을 느끼게 하는 편집은 능숙하기 이를 데 없다. 그리고 좋은 각



와 쫓기는 자가 서로를 의식하면서 맞설 때의 긴장감은 가히 전의무몽의 경지다. 장르 영화의 외피를 뒤집어쓰고도 전편을 신선한 묘사로 잡득 채운 것도 감탄스럽다.

이 영화의 연기들은 주연에서 조·단역까지 하나 같이 훌륭하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열기는 이 작품으로 올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있는 스페인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이 보여준다. 그는 등장하는 모든 장면에서 관객에게 악마와 마주친 듯한 느낌을 전해준다. 지난 10년간 스크린에서 얼룩만큼 무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바르뎀에게 아카데미 트로피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스페인에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극의 후반부에서 피해자는 애걸한다.

"굳이 나를 해칠 필요가 있잖아요." 살인자는 대답한다. "맞아. 그런데 내가 그러기로 약속을 했거든." 생사를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자는 제안에 피해자는 저항한다. "동전으로는 결정 못해요. 당신이 직접 결정해야죠." 살인자는 심드렁하게 대꾸한다. "동전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걸." 안톤을 우연이라는 이름의 악마다.

'추격자'의 주목할 만한 신인 나홍진 감독은 서스펜스가 어떻게 직조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극중 범인이 휘두르는 망치처럼 파괴력 높은 화법을 구사하는 그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는 플롯과 좁은 통로를 질주하는 듯한 편집, 배우의 밑바닥 에너지까지 뽑아 쓰는 용인술로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출장안마소를 운영하는 전직 형사 중호(김윤석)는 업소 여자들이 손님의 전화를 받고 나간 뒤 연달아 사라지자 그들이 도주했다고 생각한다. 어이 미진(서영희)을 불러낸 손님의 전화번호가 이전 번호와 일치하자 중호는 그 남자가 여자들을 팔아 넘겼다고 판단한다. 미진마저 연락이 끊기자 행적 추적에 나선 중호는 우연히 영민(하정우)과 마주친 뒤 그가 범인임을 직감해 격투 끝에 붙잡는다. 소동 끝에 중호와 함께 연행된 영민은 경찰서에서 자신이 살종된 여자들을 죽였다며 태연히 입을 연다.

'추격자'는 본론만 있는 영화다. 도입부는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고, 엔딩은 최대한 꼬리를 자른다. 여기에 쫓는 자의 가족관계나 쫓기는 자의 범행 이유 같은 것에 대한 친절한 설명 따윈 없다. 두 주인공이 격투를 치른 뒤 범인이 체포되기까지를 이미 초반 30분에 전부 그려낼 정도로 장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 작품은 나머지 시간을 아이러니로 가득한 수사극과 두 캐릭터를 강렬히 맞세우는 추격전의 무대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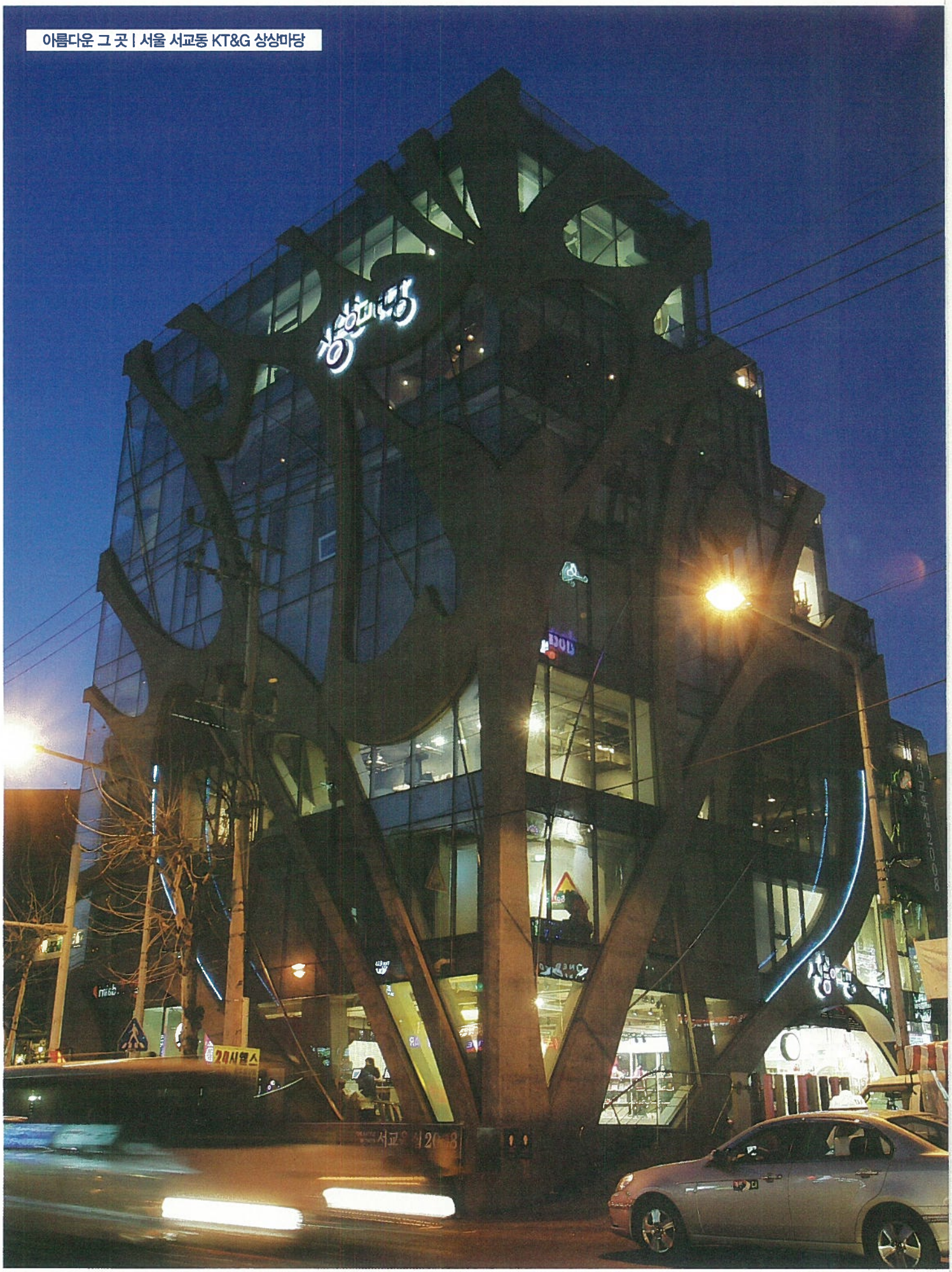
범인을 심문하는 선에서의 심리전이 정점에 도달할 때 갑자기 바뀌는 심문자의 이투와 범인의 입을 열려고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엣 동료의 행동을 못 본 척함으로써 사건을 손쉽게 해결하려 하는 형사들을 스케치하는 등, 경찰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묘사 방식이 흥미롭다.

신선하게 축조되었다기보다는 장르의 조각칼로 잘 다듬어진 것에 더 가까울 캐릭터에 매혹적인 생동감을 불어넣은 것은 두 배우의 호연이다. 이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 작품의 무게를 온전히 떠맡게 된 김윤석은 그를 위해 최적으로 깔린 멍석에서 최선의 연기를 펼친다. 터뜨리기 위해서는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는 육체의 느낌 하나만으로 절대악과 마주친 순간의 혼돈 속을 헤쳐가는 인물을 생생하게 살려냈다.

악마와 어린아이를 절반씩 섞어 연기하는 하정우는 고백하거나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피식 웃는 장면들에서 무척 인상적인 악역을 만들어냈다. 다양한 캐릭터에 겨냥적으로 도전해 조금씩 성실하게 반경을 넓혀가는 배우를 보는 기쁨이 여기 있다.

이동진 영화평론가 ileismcool@naver.com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10여년간 조선일보에서 영화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현재 1인 미디어 '이동진닷컴'을 운영하며 절제한 글쓰기와 명쾌한 감성으로 다수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아름다운 그 곳 | 서울 서교동 KT&G 상상마당







즐겁고 자유로운 생각의 놀이터

홍대앞 상상마당







상상마당 외관은
고치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려는 나비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지하 4층 극장에서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인다.







젊은이들의 놀이터 홍대 앞에 큼직한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KT&G의 상상마당' 이라는 나비는 이제 홍대 앞의 새로운 랜드마크다. 네모반듯하고 높게 치솟기만 한 콘크리트 건물이 즐비한 도시에 나비의 모습을 형상화한 건물은 보기만 해도 탄성이 나온다.

상상마당은 작가들에겐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게 하고, 일반인에겐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총면적 3,347㎡로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층별로 영화관, 공연장, 아트스퀘어, 갤러리, 아트마켓, 아카데미, 스튜디오, 영상 편집실, 카페 등이 들어섰다.

기존 건축의 형태와 마감을 존중해 노출 콘크리트는 가급적 살려두면서 새롭게 리모델링해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벽과 천장은 필요한 곳에만 마감을 해 거친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난다. 고정된 벽과 천장도 가구의 일부로 보이도록 자작나무 합판을 주재료로 마감해 참신하다. 상상마당은 투명성(Transparency), 유연성(Flexibility), 다양성(Variety), 상승효과(Synergy)를 컨셉으로 설계되었다. 상호 소통을 위해 공간 · 형태 · 소재 면에서 투명성을 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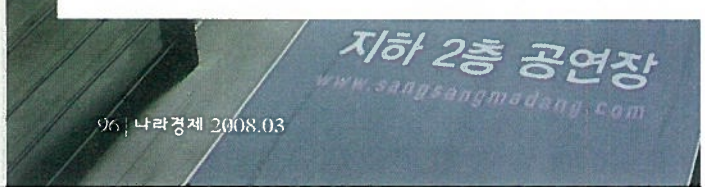
상상마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용자 스스로 공간을 구성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듈화된 이동 가구, 퍼즐형태의 가구, 이동형 전시판넬, 이동식 방음 파티 픽처레일을 사용했다. 계단 전시공간, 사인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장르가 서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다. 각층 복도에 빌트인으로 설치된 생수통 · 커피자판기도 군더더기 없이 정연하다. 상상마당의 창문은 사각이 아니다. 커다란 나비 날개 모양의 곡선을 통해 바깥이 내다보이는 독특한 경험을 겪게 한다.



7층 사무실에선 상상마당의 모든 전시 일정이 기획된다. 6층은 상상마당의 백미인 카페다. 카페에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기증한 CD 3천장이 벽면에 가득하다. 사방이 통유리이고 흡연석으로 이어지는 문도 대형 통유리 회전문이다. 천정에는 한지를 이어 만든 구름모양의 조명이 몽실몽실 떠 있어 이채롭다. 5층 스튜디오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사진 입문 강좌가 있고 스튜디오와 암실을 싼값에 빌릴 수 있어 사진하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하다.

4층은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아카데미다. 1층 아트스퀘어에는 평범함을 절대 거부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생활 소품이 상상력을 자극한다. 지하 1~2층은 인디밴드의 공연마당이다. 지하 의 독립영화 상영관에 들어서면 붉은 소파와 파란 조명이 대비를 이룬다.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동안 심심치 않도록 200여권의 단편만화도 구비해 놓았다.

상상마당이라는 나비의 힘찬 날갯짓으로 이곳이 파리의 퐁피두센터, 홍콩의 프린지클럽,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 독일의 칼스루헤(ZKM) 못지않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훨훨 날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정미 나라경제 기자



위장이 나빠지면 이도 아파요

한여름 비 온 뒤 야채를 모아둔 곳에선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썩는다는 것은 어떤 개체가 완전히 분해되어 다른 개체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빠르게 썩는 조건에는 온도와 습도가 있고 여기에 적당한 효소들이 작용한다. 사막에서 죽은 동식물들은 습도가 유지되는 초기에는 잘 썩지만 그 후로는 말라서 더 이상 썩지 않고 단지 밤낮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분해될 따름이다. 추운 지방도 이와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진다. 1977년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아기 맘모스 '디마'가 더운 지방에 있었다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의 몸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위장이다. 과음 · 과식한 다음 날 아침 토하면 멀건 죽 같은 것이 나온다. 밤새 벌써 많이 삭혀 놓은 것이다. 위장이 이렇게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습도와 온도, 효소의 작용 그리고 맷돌같이 강력하게 갈아버리는 튼튼한 위장의 근육들이 있기 때문이다.

위장에서 기운이나 영양분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므로 한의학에서는 위기(胃氣)를 인체의 근본 기운으로 여겨, 위장을 다기다혈(多氣多血)한 양명경(陽明經)에 배속한다. 소화하기 위해 기운도 많이 쓰고 피도 많이 몰린다는 뜻이다. 이렇게 중요한 위장에 병이 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체질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났거나,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과로하거나,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간식을 자주 먹게 되거나, 특히 밤에 음식을 많이 먹고 마셔 위장이 병들면 위기가 손상된다. 위기가 손상되면 아래위에 있는 유문과 분문을 닫고 위장을 하나의 밀폐된 주머니로 만들어 음식물을 으깨고 부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기불승곡(氣不勝穀)이다.

내 기운이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물들의 기운을 이겨야 비로소 내 몸의 일부가 된다. 그렇지 못하면 오랫동안 음식물이 위장 내에서 머물러 소화가 아닌 부패가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헛배가 부르고, 트림이 나고, 신물이 올라오고, 속이 아프거나 쓰리며, 치통이 극심할 수 있다. 치아는 경락 상으로 위장(상치)과 대장(하치)에 배속된다. 위와 대장이 안 좋을 때 치통을 동반하는 것은 음식물을 씹지 못하게 해, 위장에 부담이 되는 고형식보다는 유동식을 보내달라는 신호다. 이때는 죽을 먹거나 며칠 굶는 것이 필요하다. 치통치료에 좋은 침혈자리는 모두 위경락과 대장경락에 편중된다.

위장의 병은 위기허(胃氣虛), 위한(胃寒), 위열(胃熱), 위음부족(胃陰不足: 습기부족), 위혈어(胃血瘀 : 식체가 오래될 때 나타나는 증상)로 나눠지며 이는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철규 하늘꽃한의원장 a7969129@hanmail.net

김철규 원장은 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10여년간 회사생활을 하다 30대 후반에 한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한국일보에 건강칼럼을 연재했으며 기공 수련에도 관심이 크다.

황영진 KDI 연구위원
미 MIT대 경제학 박사
거시경제, 계량경제



이명박 대통령님께

먼저 새정부 출범과 대통령직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지난 선거운동 기간부터 줄곧 강조하신 화두 중 하나가 '실용' 이기에 이런 문제에는 그리 개의치 않으시리라 생각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시라도 결례가 되지 않기를 빕니다.

지난 설에는 오랜만에 열차를 이용해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열차 여행의 재미 중 하나는 여러 명의 옆자리 승객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서울로 오는 길에 두어 명의 승객과 짧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처음의 중년 남성은 여행 내내 어지럽게 보이는 그래프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책에 골똘해 있더군요. 슬쩍 어깨너머로 훔쳐보니 주식 투자 전략에 관한 재테크 서적이었습니다. 두어 시간쯤 지나 제 옆 좌석은 젊은 여성으로 바뀌었고 이번에는 '20대에 준비하는 내집 마련 전략' 이란 책이 들려 있더군요.

'재테크' 란 말이 자연스러운 우리말처럼 들리고, 천정부지의 아파트 가격이 익숙해져 가는 시대, 몸값 관리와 그 투자가 삶의 중요한 '기술' 이 된 시대에, 어찌 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풍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유를 갖고 한눈 팔며 딴생각을 해봄직도 한 귀경길 열차 안일지라도 말이지요.

선거운동 기간 중 제시하신 공약들 중 "국민 여러분, 성공하세요!" 라는 문구는 아직 기억납니다. 그와 맞물려 '효율과 실용' 이라는 화두를 여러 차례 강조하시더군요. 하지만 아직도 제게는 그 의미가 모호한 '국민성공' 이란 수사는 차치하고서라도,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등을 통해 발표된 '국민성공시대' 를 위한 정책들과 그와 관련된 몇몇 웃지 못 할 해프닝은 적잖이 혼란스러웠고 조금은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여물은 먹여줄 테니 곁눈질 말고 앞에 난 길로만 전력질주하기를 다그치는 경주마 조련사의 모습과 겹치는 듯도 해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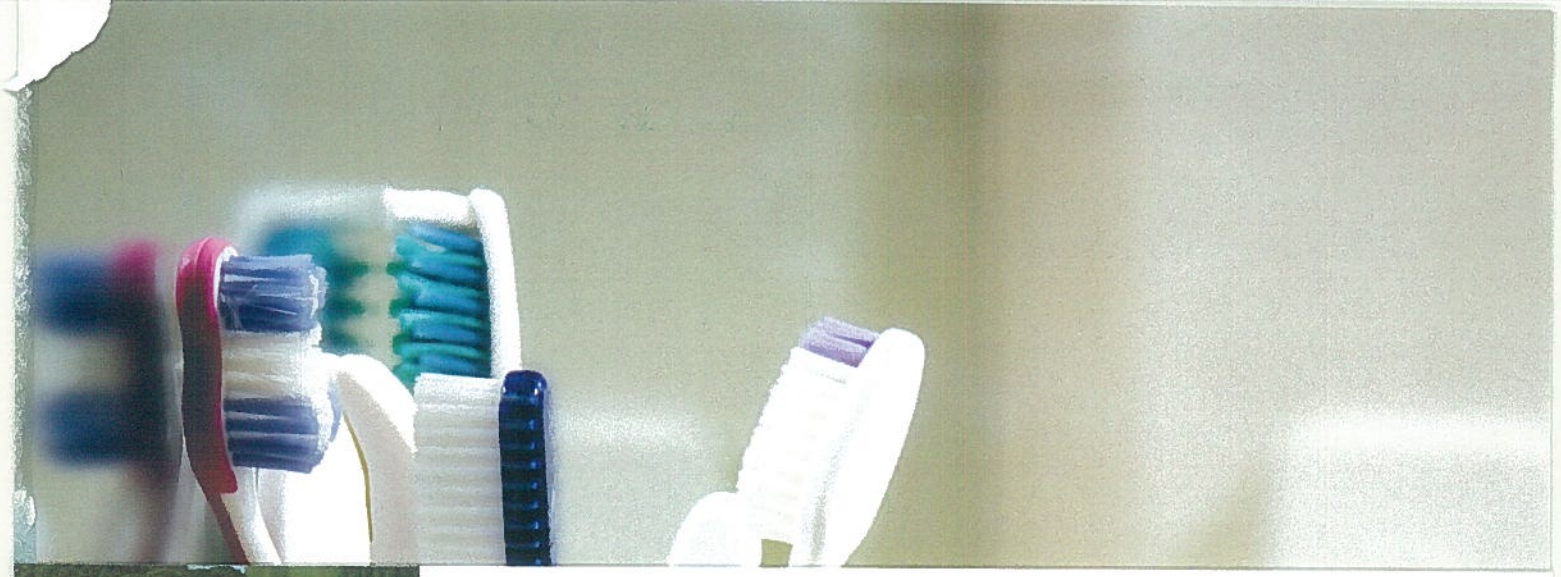
과거 '부국강병' , 혹은 '잘 살아보세' 등의 다소 투박하거나 촌스러운 수사로 점화돼 아드레날린을 연료로 질주를 가능하게 했던 시대에 비해 오늘의 우리들은 다소 영악해지고, 한편으론 지친 삶을 살고 있어 좀 더 '세련된 수사' 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수사가 단순한 선동적인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체화될 가능성을 잘 요약해 준다면, 이는 '가능성의 예술' 이라는 멋진 정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누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모습이지만, 저는 대통령님이 '가능성의 예술' 로서의 정치에 좀 더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누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모습이지만, 저는 대통령님이 '가능성의 예술' 로서의 정치에 좀 더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구의 한 문예 이론가는 '그다지 쓸모가 없어 보이는' 자신의 책 서문을 이런 미려한 문장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갈 수 있고, 또 가야 할 길의 지도를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해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그 길을 별빛이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황홀했던가?"

감히 여쭈어 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지도의 길이 이끄는 곳은 어디입니까? 늘 건강하시길 빌며 이만 줄입니다.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08.2.1-2009.1.31
서울동대문우체국
승인 제40159호

보내는 사람

이름 : 나이 : 세(남/여)

전화 : - -

직업 : E-mail

주소 :

□□□-□□□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팀

경 제 정 책 하 면
나라경제

130-012

독 자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08.2.1-2009.1.31
서울동대문우체국
승인 제40160호

보내는 사람

이름 : 나이 : 세(남/여)

전화 : - -

직업 : E-mail

주소 :

□□□-□□□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팀

경 제 정 책 하 면
나라경제

130-012

운전대와 휴대폰을 같이 잡으면 사람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통화는 나의 목숨은 물론이고
남의 생명마저 담보로 잡는 무서운 운전 습관입니다

자동차와 휴대폰을 따로 사용하면 문명의 이기가 되지만
같이 쓰면 사람 목숨도 잡을 수 있는 분명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바꿀만큼 위급한 전화는 없습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에 잘못된 운전 습관부터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